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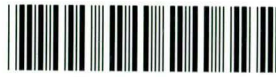
龍仁市の 文化遺蹟

—용인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崔夢龍 · 李憲宗 · 吳世筵



 용인시립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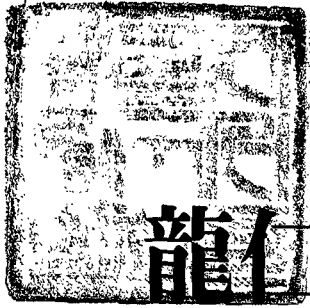
RE06067

1996

서울大學校博物館
龍 仁 市

여

백



龍仁市의 文化遺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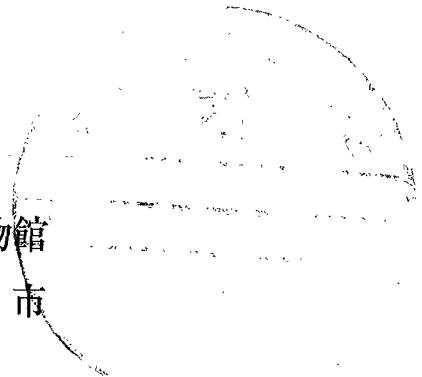
—용인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崔夢龍 · 李憲宗 · 吳世筵

1996

서울大學校博物館

龍 仁 市



◆표지사진 설명◆

용인시 이동면 덕성리 수습 규암제 석해

발 간 사

본 서울대학교박물관은 용인시의 의뢰를 받아 용인시 전 지역에 대한 지표조사를 1996년 2월 7일 부터 3월 30일까지 두달여 동안 3팀으로 나누어 16차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이 짧은데다가 2월 중순까지 눈이 녹지 않아 3월 말까지 부분적으로 조사가 길어졌다.

용인은 1996년 3월 1일자로 市로 승격되기 오래전부터 경제자립도가 가장 높은 郡으로 알려져 온 곳이었고 지역개발도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개발도시이다. 조사과정에서도 곳곳에 건설현장이 눈에 띈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아직도 여러 곳에 중소기업의 소규모공장, 아파트와 골프장이 들어설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또한 용인은 용인 지역의 개발과 맞물려 용인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 용인향토사료관, 호암미술관 등의 기관에서 많은 조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조선시대 이래 많은 문인들이 찾던 고장이어서인지 용인의 문화와 역사에 관심을 가진 향토사학자들도 많았다. 오랫동안 그 고장에 살면서 관심을 갖고 탐나는데로 유적을 찾아가는 향토사학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로 많은 유적들이 발견·보고되었고, 아직도 미보고된 자료나 유적들도 허다하여 정성을 다하였지만 본 박물관에 주어진 짧은 기간동안 용인의 모든 유적을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더우기 기존에 발견, 보고되었던 유적들이 최근에 가속된 골프장 공사, 공장과 아파트 건설 등의 여파로 흔적도 없이 파괴되어 버렸을 뿐 아니라 유적이 있을 법한 지점에는 이미 공사가 진행되거나 마쳐진 곳도 많았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지표조사를 통하여 대체적으로 용인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이번 지표조사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신석기시대를 제외하고 구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등 전시대에 걸친 유적과 유물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새로 발견된 유적과 발견되었으나 유물이 보고되지 않은 유적을 정리해보면 구석기시대유적은 모두 5지점, 청동기시대 3지점, 삼국시대 7지점, 통일신라시대 10지점, 고려시대 5지점(도요지 : 1, 산포지 : 4), 조선시대 25지점(도요지 : 8, 산포지 : 14, 사지 : 1, 건물지 : 2)으로 모두 55지점의 새로운 유적이 발견되었다(어떤 지점은 여러 시대의 유물이 함께 발견되고 있어서 이를 각

각 분리하였다). 이 유적들은 용인시 전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며 이 결과는 구석기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조상이 머물기에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실 이같이 짧은 기간에 592.05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넓은 지역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조사원들을 비롯한 조사참가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들에게 깊이 감사한다.

이미 서두에서 밝혔던 것 처럼 용인시 관계자 여러분의 도움이 없었으면 이 지표 조사는 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특히 지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용인시 卍秉熙 시장을 비롯하여, 崔眞錫 문화공보담당관, 李仁寧 용인군노동복지회관 관장, 李應峻 용인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소장, 호암미술관의 俞載悅 실장, 俞邱軍 선임연구원, 포곡면사무소 趙誠武계장을 비롯한 각 이장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조사과정에서 늘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이 고장 출신의 李秉根교수(서울대 국어국문학과)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1996년 5월 18일
조사단을 대표하여
서울대박물관 관장
崔 夢 龍 씀



筆者未詳, 〈鄭夢周肖像〉, 紙本彩色, 35.5×26.8cm

고려말의 忠臣 圃隱 鄭夢周(1337~1392)의 초상화이다. 이 초상화는 朴在杓 舊藏品으로 1955년에 서울대학교박물관이 구입하였다. 비교적 작은 그림으로 간략한 墨線으로 윤곽을 그리고 안면, 입술, 의복, 사모 등에 담채, 혹은 농채를 입혔다. 간략한 필선묘사이나 정몽주의 강직한 기품이 형형한 눈빛에 상당히 잘 표현되어 있어 상당한 기량의 화가의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옛부터 전해오는 초상화를 다시 모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初本으로 보인다. 현재 정몽주 초상화의 모사본으로는 龍人 圃隱先生影堂, 경북 永川郡 臨臯書院, 전남 長興郡 陽岡影堂 등에 소장되어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에는 1880년 希園 李漢喆(1809~?)의 重模本이 소장되어 있다(진준현; 서울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사).

여

백

目 次

발 간 사

I. 머 리 말	9
II. 調査經過.....	11
III. 龍仁의 埋藏文化財 調査現況	12
IV. 調査內容.....	16
1. 慕賢面	16
2. 蒲谷面	25
3. 水枝邑	28
4. 駒城面	29
5. 龍仁市	32
6. 器興邑	34
7. 遠三面	35
8. 白岩面	42
9. 陽智面	47
10. 二東面	51
11. 南四面	65
V. 맺 음 말.....	75
도면·사진	77
부록 1. 용인시 매장문화재 일람표	219
부록 2. 용인시 매장문화재 위치도	222

여

백

I. 머리말

龍仁市는 한반도 및 경기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과 충청지방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발전하였다. 龍仁市의 면적은 총 592.05km²인데, 이 중 대부분은 임야로 372.81km²(전체의 63%)이고, 전답이 155.09km², 기타 64.15km²이다. 龍仁市는 廣州山脈에 속하여 남북으로 달리는 네 개의 산줄기에 의해서 구분되고 있다. 남측 시흥군과의 경계지역에는 光教山(582m)·白雲山(560m)·바라산·兄弟山 등으로 이루어진 400m 이상의 남북방향 山陵이 있으며, 이 산릉의 동쪽에도 남북방향의 침식저지를 지나 이 산릉과 평행한 또 다른 산릉이 있다. 이것은 남한산성에서부터 뻗어내리는 것으로서 구성면, 모현면, 포곡면 사이의 경계를 이루고 기흥읍과 용인시 그리고 이동면과 화성군 동탄면의 자연적 경계를 형성하고 있다. 한편 廣州郡 京安里 남측에서 正南방향으로 발달한 산릉은 용인읍의 동부지역을 크게 구분하는 것으로서 태화산(654m)·老姑山(579m)·發梨山·正光山·兄弟峯·雙嶺山 등의 산봉이 솟아 있다. 이 산릉의 동측에는 비교적 고도가 낮은 산릉이 남북으로 달리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低位丘陵性 山地에 해당하며 산릉이 남북으로 발달하여 그 사이의 침식저지와 충적지들도 같은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다. 용인시의 하천의 특징은 南北走向의 斷層들이 발달되어 있으며, 이러한 단층을 따라 하천이 흐르고 낮은 저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하천유역을 따라서는 제4기 충적층이 형성되고 있다. 주요하천은 北流하여 한강으로 유입하는 金嶺川, 西南으로부터 汾鄉灣으로 誘入하는 駒興川, 동남쪽으로 흘러 남한강으로 유입하는 淸溪川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가장 서쪽의 저지는 한강지류인 탄천과 진위천의 지류인 (신)갈천이 있다.

이러한 좋은 입지조건을 가진 龍仁市 일대는 최근의 수도권 개발로 인하여 많은 인구가 밀집되고 있다. 농업 및 공업용지개발·택지개발·골프장 등 유흥시설 개발 등으로 인해 현재의 모습이 사라지게 되었으며, 자연지형의 훼손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사업 시행청인 龍仁市廳에서는 서울대학교박물관에 龍仁市내의 매장문화재에 대한 정밀지표조사를 의뢰하여 왔으며, 본 대학박물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조사단을 구성하여 龍仁市 全域에 대한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1996년 2월 7일부터 3월 30일까지 두달여 동안 이루어졌으며, 조사단의 인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용인시 정밀지표조사 조사단 인원구성

조 사 단 장 : 최몽룡 (철학박사, 서울대학교박물관 관장)

자 문 위 원 : 이병근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조 사 원 : 신숙정 (문학박사, 서울대학교박물관 특별연구원)

이현종 (역사학박사, 서울대학교박물관 특별연구원)

진준현 (서울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사)

최종택 (서울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사)

오세연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과정)

김범철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조교)

조사보조원 : 강인욱 (러시아과학원 시베리아지부 고고학·민족학연구소 박사과정)

조대연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대학원)

김태식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4학년)

양성혁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4학년)

최 원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3학년)

조사는 밭이나 얇은 구릉에 작물을 심기전인 2월 7일에서 3월 30일까지의 동절기에 실시하였다. 그러나, 동절기라고는 하더라도 숲이 우거졌던 산의 경우는 낙엽이 5cm 이상 쌓여 있어 지표조사를 통한 매장문화재 조사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본 조사는 평지나 얇은 구릉에 형성된 밭을 중심으로 조사지역 전역을 踏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는 크게 세 팀으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A팀은 崔夢龍, 申叔靜을 중심으로 사전조사와 전반적인 조사의 방향을 설정하는 본부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현장조사는 조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두 팀으로 나누었는데, 李憲宗을 중심으로 한 B팀은 국도의 以西쪽을 담당하였고, 吳世筵을 중심으로 한 C팀은 국도의 以東쪽을 담당하였다. 보고서는 이현종과 오세연이 나누어 집필하였으며, 최몽룡의 최종 감수를 받았는데, 수지읍 구성면, 기흥읍은 이현종이 작성하였고, 원삼면, 백암면, 양지면은 오세연이 작성하였으며, 모현면, 포곡면, 용인시, 이동면의 경우 전반부는 이현종이 후반부는 오세연이 작성하였다. 또, 사진과 도면도 이와 같은 체계로 두 사람의 총괄 하에 이루어졌다. 그밖에 이번의 조사에는 위의 조사원 외에도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학생들이 참가하였는데, 이승민(3학년), 강인욱(러시아 유학중), 김태식(4학년), 김민구(대학원), 김선지(대학원), 류동현(3학년), 이화연(서강대학교 사학과 4학년) 등이 현장조사와 보고서 작성에 도움을 주었다.

II. 調查經過

조사는 위에서 말했던 바와 같이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 팀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각 팀별 구체적인 조사과정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이루어졌다.

2월 7일~2월 16일 : 龍仁市에 대한 문헌자료 및 기존의 조사자료 수집·정리와 기초자료와 조사장비의 구입 등을 통해 龍仁市의 전반적인 지형을 파악함과 더불어 조사방법과 일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龍仁市 전 지역에 대한 개괄적인 답사를 통해 용인시를 크게 두 지역으로 가르고 있는 45번 국도를 기준으로 두 팀으로 나누어 조사하기로 하였다.

2월 17일~2월 20일 : 설날연휴로 인해 조사를 쉽.

2월 21일~2월 27일 : 본격적인 현장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조사 중에도 관련 자료에 대한 조사는 계속되었다. B팀은 모현면과 포곡면에 대한 조사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C팀은 모현면과 포곡면 일부 지역과 이동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2월 28일~3월 5일 : B팀은 수지읍과 구성면에 대한 조사를 하였으나, 수지읍의 경우는 대부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는 등 개발되어 더 이상의 유적을 찾을 수 없어 구성면에 대한 조사에 집중하였다. C팀은 조선시대의 도요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백암면과 이동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3월 6일~3월 12일 : B팀은 용인시와 기흥읍 및 이동면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C팀은 용인시와 양지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3월 13일~3월 19일 : 이 기간부터는 파종을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거름을 뿌리기 시작하는 시기로 부분적으로는 거름이 덮여 조사할 수 없는 지역이 생기기 시작하여 조사를 서둘렀다. B팀은 이동면과 남사면에 대한 조사를, C팀은 원삼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3월 20일~3월 26일 : 농가에서는 거름뿌리기 작업이 본격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싹이 나기 시작하였고, 조사 대상지역에 대한 조사가 거의 마무리 됨에 따라 이제까지 나뉘어 조사하던 세 팀이 함께 새로 발견한 유적을 답사하고, 이와 더불어 기존에 알려져 왔던 유적의 현황을 살피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3월 27일~3월 30일 : 이제까지 조사된 자료들을 정리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충하는 것으로서 현장에서의 조사는 마무리하였다.

Ⅲ. 龍仁의 埋藏文化財 調査現況

용인의 매장문화재에 대한 유적조사는 우선 일제시대에 도요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世界陶磁全集 14 〈李朝篇〉에서는 23지점의 도요지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遠三面의 文村里, 學日里 1·2, 東面の 罌里 1·2·3·4·5·6, 泉里, 西里 1·2·3·4·5, 水餘面(현 龍仁市) 雲鶴里 1·2, 海谷里, 虎里, 外四面의 湧泉里, 大袋里, 南谷里 1·2 등이다.¹⁾ 이 유적들이 발견된 시기는 1937년 이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수여면이 용인면으로 바뀐 시점이 1937년이었기 때문이다.²⁾ 도요지의 형성연대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후기에 걸쳐 다양하다.

일제시대에 발견된 이 도요지들은 대개 정확한지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번 지표조사 당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재 대부분의 도요지가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 용인 문화원이 활성화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유로운 문화유적조사가 향토사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李應峻 所長과 李仁寧 館長에 의하면 金種九 용인상업고등학교 선생님과 도예가 馬順官 氏에 의해 발견된 도요지만 해도 각각 20여 지점이 넘는다고 한다.

물론 상하리 支石墓는 도요지가 발견되기 이전부터 잘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인영에 의하면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상하 지식의 두음을 따서 上·下里라 하였다고 한다.³⁾

세계도자전집을 통하여 알려진 용인의 도요지에 대한 관심은 60년대에 들어와서도 계속 되었다. 湖巖美術館에서 발굴한 바 있는 龍仁·西里 巾德部落에 있는 고려백자도요지는 60년대에 정양모에 의하여 재 발견되어 그 중요성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⁴⁾

6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선사시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되어 1965년 이후 주민들에 의해 선사시대의 유물들이 발견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당시 고고학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발견들이었다.

1) 後藤茂樹 編著, 1956, 《世界陶磁全集 14》李朝篇, 河出書房: 250.

2) 李仁寧 編著, 1986, 《내고장의 일》, 용인문화원: 17.

3) 李仁寧 編著, 1986, 《내고장의 일》, 용인문화원: 42.

4) 鄭良謨, 1984, 〈우리나라의 도자기〉《湖林美術館所藏品選集(1)》, 湖林美術館: 205.

鄭良謨, 1991, 《韓國의 陶磁器》, 文藝出版社: 67.

1965년도에는 4지점에서 선사시대의 유물이 발견되었다. 용인시 남동 옥현부락에서는 국립박물관에 의하여 半月形石刀가 발견되었고, 남동에서는 주민에 의해 石鏃, 이동면 덕성리에서는 소진화 씨에 의해 一段有柄式 石劍이 발견되었다. 특히 이 해에는 남상현 씨 소유 야산에서 細形銅劍의 용범 3점이 발견되어 학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포곡면 전대리 포곡초등학교에 돌도끼가 한 점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었는데, 1968년 李仁寧에 의해 그 존재가 확인되었다. 또한 이동면 화산리에서는 석기와 석검이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1969년도에는 남사면 창리에서 국립박물관에 의해 마제석검이 발견되었다.

이처럼 1960년대에는 처음으로 선사시대의 유물이 발견되기 시작하였는데 주로 청동기시대의 석기들이 두드러지게 발견된 것이 특이하다.

1970년대에는 선사시대 유물에 대한 발견사태가 현격히 줄어들었으나 용인지역의 유적들에 대한 보존과 관리가 구체화되었던 시기였다. 1975년에는 정수리에서 돌도끼, 유운리에서 김기섭 氏에 의해 석검이 발견된 외에 다른 발견예가 없었다. 한편 그 해 도예가 韓益煥氏에 의해 고안리에서 분청사기 도요지가 발견되었다. 하지만 이 시기에 괄목할 만한 것은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에서 출간한 文化遺蹟總覽⁵⁾에 용인의 매장문화재가 처음 정리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이전부터 잘 알려져 왔던 지식묘들이 지정문화재가 되었다. 1974년 10월에는 왕산리 지식묘가 지방 유형문화재기념물 제20호로, 1975년 2월에는 주북리 지식묘가 경기사적 제6호로 지정되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용인의 매장문화재에 대한 조사는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발견예도 많았을 뿐 아니라 1956년 처음 용인의 문화유적이 소개된 이후 가장 활발한 조사가 실시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책 출간뿐 아니라 발굴도 실시되었다. 이 시기는 용인지역의 문화재에 대한 연구의 형성기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 형성기를 맞이하게 한 가장 중요한 장본인은 현 사회복지회관 李仁寧 관장이다. 그는 이미 1970년대부터 용인의 문화, 전통, 민요, 설화 등에 대한 폭넓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계속 글을 발표한 바 있다. 더욱이 이인영은 선사시대를 비롯한 매장문화재에 대한 유적답사를 계속 시행했을 뿐 아니라 그간 발견된 자료들을 모아 정리하여 <내고장의 얼, 遺物, 遺蹟編>을 출간하였다.⁶⁾ 물론 당시 이 책을 쓸 때 전문가적인 시각을 가지고 쓰여진 것은 아니어서 학문적인 차원에서의 미비한 점이 여러 곳에서 보이지만 이 책은 정식 학술기관의 조사과정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동시에 공식학술기관으로서는 처음 자세한 지표조사가 한양대에 의해 실시되어 보고서가

5) 文化財管理局·文化公報部, 1977, 《文化遺蹟總覽》.

6) 李仁寧 編著, 1986, 《내고장의 얼》, 용인문화원.

간행되었다.⁷⁾ 이 보고서는 경기도 백제문화유적에 대한 조사였으며 마성리 보개산성, 동백리 노고성, 아곡리 처인성지, 유방리 성지, 서리 하반의 석실분 등에 대한 조사결과들이 보고되었다.⁸⁾

1980년대에는 70년대와는 달리 선사유적이 많이 발견되었다. 1980년에는 고메리에서 돌도끼가 수습되었고, 1981년에는 구성면 보정리 연원부락에서는 송영만 씨가 무친 장례식 도중 구덩이를 파다가 돌도끼를 비롯한 석기들을 발견하였다. 1984년에는 남사면 창리에서 선돌이 발견되었고, 외사면 근삼리에서는 鄭亮和 교사에 의해, 원삼면 맹리에서는 이인영, 정양화에 의해 지식묘가 발견되었다. 1985년에는 원삼면 두창리 황토재에서 이인영에 의해 김명국 씨가 발견한 석축이 확인되었다.

1983년에는 호암미술관에서 1982년 崔淳雨⁹⁾에 의해 다시 조사된 바 있는 이동면 서리 중덕골에 위치한 고려백자요지를 비롯한 주변지역의 지표조사를 실시하였고 1984년 11~12월에 걸쳐 위의 도요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¹⁰⁾

국립박물관에서는 1988년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용인군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동안 산만하게 발견되었던 매장문화재에 대한 본격적인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팀은 주로 이미 학계에 알려져 있거나 매장문화재 신고지역으로 보고된 지역을 확인하고, 한강의 지류인 크고 작은 하천변과 그 주변의 구릉을 따라 새로운 유물포함층이나 유적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여러 새로운 유적도 발견보고하였다.¹¹⁾

1990년대에는 용인의 문화유산에 대한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가 활발하게 실시되었다. 1990년도에는 그 동안의 연구결과들을 모두 망라하여 龍仁郡誌編纂委員會에 의해 《龍仁郡誌》가 출간되었다.¹²⁾ 1994년에는 명지대학교 박물관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요청에 의하여 그 해 5월부터 8월까지 遠三而 佐恒里에 위치한 고려 분묘군을 발굴조사하였다.¹³⁾ 이 발굴조사에서는 고려초기의 분묘 16기와 숫가마 1기가 확인되었다. 1995년도에는 한신대학교 박물관이 한국토지개발공사 경기지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지 2지구 택지개발조성계획지의 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용인 수지 2지구 문화유적 및 민속조사보고서》가 출간되었

7) 金秉模·沈光注·許美經, 1986, 《京畿道百濟文化遺蹟》, 漢陽大學校, 京畿道.

8) 金秉模·沈光注·許美經, 1986, 《京畿道百濟文化遺蹟》, 漢陽大學校, 京畿道: 114-128.

9) 崔淳雨, 1982, 《韓國青磁陶窯址》, 韓國精神文化院: 20-21.

10) 李種宣·金載悅·朴淳發, 1987, 《龍仁·西里高麗白磁窯 發掘調查報告書 I》, 湖巖美術館.

11) 국립중앙박물관, 1988, 《新岩里 I》,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20책: 67-105.

12) 龍仁市廳, 1996, 《龍仁·鄉土史料館遺物圖錄》.

13) 明知大學校博物館, 1994, 《龍仁·佐恒里 高麗古墳群 發掘調查報告書》.

다.¹⁴⁾ 한신대학교의 지표조사를 통해 新鳳川에 의해 형성된 충적지대에 위치한 정평농장 창고 주변에서 연질과 경질의 백제 토기편들이 수습되어 유적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확인된 이 산포지에 대한 시굴조사와 발굴조사가 실시되어 여러 기의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14) 徐紘一 외, 1995, 《龍仁 水枝 2地區 文化遺蹟 및 民俗調査報告書》, 한신대학교博物館.

IV. 調査内容

1. 慕賢面

1) 新院里 지석묘(사진 1)

① 시대 : 청동기시대

② 유적의 위치 및 현황

이 지석묘는 양지촌 89-1번지 위밭에 위치하고 있다. 상석이 둘로 깨져있으며 북북서 방향으로 놓여 있다. 상당수 땅속에 매몰되어 있어 크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깨어진 상석의 하나는 길이 100cm, 폭 65cm, 다른 하나는 길이 120cm, 폭 80cm이다.

2) 新院里 건물지(사진 2)

① 시대 : 조선시대

② 유적의 위치 및 현황

이 산포지는 新院里 양지촌 89-1번지 위밭에서 발견된 지석묘로부터 남쪽으로 100여 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③ 유물

이곳에는 다량의 瓦片과 磁器片이 산재해 있다. 채집된 瓦片(사진 3~5) 중에는 ‘世獻’이라는 銘文을 가진 瓦當편이 발견되었다(사진 3, 4). 이 명문은 여러 편의 瓦當편에 남아 있었다. 그것으로 보아 아마도 기와에 이 명문을 다량으로 찍어 이 건물을 건축할 때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명문의 성격으로 보아 사찰일 가능성이 많다.

조선시대의 瓦當편과 함께 백자편들도 다수 수습되었다. 자기의 저부들은 주로 대마디굽이며 조질의 모래받침을 하여 구운 조선시대 말기의 대접과 접시류이다. 유약처리는 잘 되

어 있는 편이다(사진 6, 그림 1-①~②).

이 산포지는 “世獻”이라는 글자와 자기의 성격을 보아 19세기경의 사찰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된다.

3) 梅山里 중촌 자기산포지(사진 7)

① 시대 : 조선시대

② 유적의 위치 및 현황

매산리 577번지에 보호수가 있고 그 아래로 200m 가량 내려오면 자기 및 토기산포지가 있다.

③ 유물

이 산포지에서는 분청사기편, 토기편, 파수들이 수습되었다. 토기편이나 파수들은 시루와 같은 토기류의 파편으로 보인다(사진 9, 그림 1-③~⑤). 특히 분청사기편들은 상감분청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사진 8).

4) 日山里 자기산포지(사진 10)

① 시대 : 조선시대

② 유적의 위치와 현황

이 산포지는 일산리 모현초등학교 뒷밭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③ 유물

이 산포지에서는 인화분청사기편과 토기편들이 수습되었다(사진 11, 그림 1-⑥~⑦). 분청사기의 문양은 구감문과 국화문이다. 이들의 문양이나 분청제작기법으로 보아 15세기 초기의 것으로 보인다. 유약은 골고루 잘 발랐으며 대체로 진녹색을 띠고 있다. 이러한 유물의 성격으로 보아 조선시대 전기의 주거지역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5) 萬潭里 구석기유적(사진 12)

① 시대 : 구석기시대

② 유적의 위치 및 현황

이 유적은 용인시 모현면 갈담리 과담일대에 형성되어 있다. 유적의 서쪽편에는 경안천이 흐르고 좁은 충적대지가 형성되어 있다. 그 맞은편에는 가파른 날기산이 있다. 1차 범람원성 단구(충적대지)에 면하여 경사지게 형성된 이 유적은 표고 92m의 낮은 언덕 위에 형성되어 있다. 이 유적의 퇴적환경을 조사한 결과 화학침식작용과 풍화작용에 의해 퇴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경사진 면에 퇴적된 토양이 기후변화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극부적인 퇴적과정을 통해 현재 남아 있는 퇴적층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인다.

하천의 범람과정에 의한 퇴적의 흔적은 일시적인 왕성한 하천활동의 결과로 일부 나타날 수 있었으나 그다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유적의 토질은 많은 粗砂가 함유된 화강-편마암계의 丘陵殘積土이며, 적갈색의 重粘土이다. 이러한 토양으로 인해 아마도 이 지역이 도자기를 굽는 적격지로 선택되었는지도 모른다.

현재 드러나 있는 토양에는 최근에도 계속되는 침식활동으로 인하여 굽은 부정형의 사립들과 암편들이 노출되어 있다. 이들은 기반암인 화강편마암과 관입되어 있던 석영맥암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지역은 지금 인삼밭을 만들고 있는데, 경작과정에서 기반암에서 떨어져 나온 굽은 입자를 가진 석영맥암괴들이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지형적 특성상 하천의 蛇行에 의한 지형변화나 포인드 바아(point bar)성의 퇴적 양상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양상은 갈담리 유적 이외에도 용인시의 다른 구석기시대 유적들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이 유적의 일대에는 낮은 언덕들이 많이 발달해 있으며, 그 위에 기반암의 풍화작용으로 인한 고토양층이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언덕 뒤편에 위치하고 있는 야산들이 그다지 높지 않아서 인지 퇴적층의 두께는 그다지 두껍지 않다.

유물은 언덕의 앞부분에 집중되어 발견되었으며 인공흔적이 없는 석영제 자갈돌이 함께 발견되고 있다. 또한 기계적 혹은 화학적 풍화과정에서 떨어져 나온 석영맥암류의 암석도 많다. 오랜 기간 동안의 자연적인 침식활동으로 유적에 많은 변형을 가져왔을 것이며 뿐만 아니라 현재의 밭을 가는 과정에서도 40~50cm 정도 문화층의 상부가 파괴되었다. 노출되어 있는 유물의 수량은 그다지 많지 않으며 격지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짧은 기간 이곳을 머문 구석기시대인들의 활동결과인 것으로 보이지만 문화층이 파괴되

지 않고 많은 유물이 층위에 잘 보존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앞으로의 정밀한 발굴조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을 것이다.

③ 유물

대부분의 석재는 석영계 강자갈들로 사용되었으며 산에서 형성된 육성 석영맥암, 석영암은 석기를 제작하는 데 드물게 사용되었다. 계측은 길이, 폭, 두께의 순으로 기록하였다.

㉠ 몸돌 10.1cm, 9.2cm, 9.9cm(사진 13, 그림 2-1)

이 몸돌은 석영계 강자갈들의 한 자연면을 타격면으로 활용하여 3회에 걸친 박리를 하였으나 자갈들의 절리현상으로 크게 떨어져 나갔다. 그 떨어져 나간 면이 평평하여 그 면을 다시 타격면으로 활용, 현재 육안으로 5회에 걸친 박리를 시도하여 그다지 성공적이지는 않았지만 돌날형 격지를 생산하였다. 타격면은 약간 경사지게 놓고 수직에 가까운 박리를 가하여 1차생산물을 얻었다. 타격면에서 왼쪽편 가장자리에서도 간단한 조정박리가 있었다. 박리된 면에서 보이는 돌날형 격지는 돌날과 같이 폭과 길이의 비가 1:2 이상이 되지 않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돌날 생산기법과 동일한 기술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보인다.

㉡ 몸돌 18.5cm, 17.1cm, 11.2cm(사진 14, 그림 2-2)

잘 마모된 큰 석영계 석재를 활용하여 평평한 자연면을 타격면으로 활용하여 큰 격지를 박리하였다. 수직에 가까운 방사상 박리를 하여 격지를 때어낸 기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 몸돌 9.2cm, 7.8cm, 5.8cm(사진 15, 그림 3-1)

두께 6cm 가량의 두터우며 평평한 규암계 강 자갈들을 석재로 활용하여 1차생산물을 때어내었다. 양쪽의 평평한 면을 타격면으로 활용하여 수직에 가까운 타격으로 측면의 전 끝부분까지 박리하는 기술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자연타격면과 박리된 면과의 각도는 70~90°로 매우 가파른 타격을 가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러한 몸돌은 전 길이에 걸친 두터운 격지를 얻기 위하여 평평한 면에 놓고 손이나 발로 고정시켜 대각선으로 타격하는 기술적인 과정을 거친다.

㉣ 찌개 9.1cm, 8.5cm, 6.7cm(사진 16, 그림 3-2)

침식과정에서 암반에서 떼어진 후 rolling된 큰 육성 석영맥암으로부터 우선 먼저 강한 타격으로 두터운 격지를 때어내었다. 큰 원석에서 떼어진 면 상단에는 박리시 강한 타격에 의해 형성된 혹이 잘 남아 있다. 때에낼 당시 남아 있던 원 자연면의 가장자리를 타격면으로 활용하여 주위를 돌아가며 직각 혹은 둔각으로 수직 혹은 대각선 박리를 가하였다. 타격각도는 대체적으로 90~110° 가량 되어 보인다. 다시 자연타격면의 반대쪽에 형성된 평평한 면을 타격면으로 활용하여 2회에 걸친 강한 타격을 하였다. 이 석기는 이러한 박리과정을 통해 날카로운 날을 가진 뽕족날 찌개이다.

㉔ 쪽개 12.8cm, 8.2cm, 5.9cm(사진 17, 그림 3-3)

이 석기는 석영제 강자갈들을 석재로 사용하여 만든 가로날쪽개이다. 비교적 타원형에 가까운 석재를 활용하여 한쪽 가로면 가장자리에 집중적인 대각선 박리를 가해 날카로운 외날을 만들어 내었다. 석질은 절리가 잘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몇 차례의 타격으로 쉽게 날카로운 가로날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㉕ 쪽개 8.9cm, 9.9cm, 5.1cm(사진 18, 그림 4-1)

불순물이 많이 섞인 석영제 자갈들을 석재로 채택하여 평평한 양면을 타격면으로 활용, 대략 80~110°에 이르는 둔각으로 대각선 박리와 수직 박리를 겹쳐 박리를 가해 두툼하고 둥근다각면을 만들고자 하였다. 이 석기의 둥근면은 다시 타격면으로 활용하여 다음 박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평평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석기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 둥근면을 타격면으로 하여 추가로 박리를 가해 가로날을 만들 수 있는 예비석기이다.

㉖ 쪽개 7.9cm, 6.0cm, 5.5cm(사진 19, 그림 4-2)

이 석기는 그다지 크지 않은 둥근 석영제 자갈들을 석재로 사용하여 새기개 기법처럼 한쪽 끝부분을 각각 반대로 교차박리를 가해 날카로운 끝날을 만든 가로날 쪽개이다.

㉗ 쪽개 7.1cm, 8.8cm, 6.5cm(사진 20, 그림 4-3)

거친 석영제 자갈들을 선택하여 평평한 자연면을 활용, 80~90° 가량의 수직으로 박리를 하였다. 박리하는 과정에서 절리면과 잘 부수어지는 석질로 인하여 하단의 깊은 부분까지 격지가 떼어졌다. 손잡이 부분은 그 동안 발견된 자갈들 석기전통을 가진 유적에서 자주 보이는 꼬리 부분이 남아 있어서 기술-형태학적인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석기는 매우 거친 석재에 거친 타격으로 박리를 가해 잘 만들어지지 않는 않았으나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뾰족날 쪽개를 만드는 모든 과정을 거친 석기이다.

이 유적에서는 몸돌과 쪽개들이 주로 발견되었다. 하지만 격지들은 거의 채집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구석기시대인들이 이 지역에서 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경제활동을 한 지역이지 석기제작소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몸돌들은 아마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석기를 제작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가져다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유적에서는 구석기시대의 석기 이외에도 다량의 백자편, 토기편들이 발견되었다(사진 21, 22, 그림 4-4~7). 자기의 저부를 보면 굽은 주로 대마디굽으로 되어 있고, 유약은 굽에 가까이 갈수록 덜 칠해져 있다. 이 자기들은 태토비집받침을 하여 구운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 이 백자들의 특징은 이 지역에 16세기경의 주거지역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 (李)

6) 葛潭里 갈월부락 구석기시대 유적(사진 23)

① 시대 : 구석기시대

② 유적의 위치 및 유물

용인에서 왕산으로 가는 45번 국도에서 갈월부락으로 들어가는 포장도로가 끝나고, 약 500m정도 들어가면 보이는 밭에서 석영제 석기(사진 24, 그림 33-①) 1점을 수습하였다. 타격흔은 뚜렷하지 않으나 큰 박편으로 떼어졌다가 다시 석핵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9.2cm 4.5cm

7) 草茨里 하초하 통일신라시대 토기 산포지(사진 25)

① 시대 : 통일신라시대

② 유적의 위치 및 현황

45번 국도에서 경성방직(주)을 지나 용인공원묘지로 가는 길의 오른쪽 밭 일대로 경안천으로 합류되는 조그만 개천을 끼고 있다. 125,000m²정도의 범위내에 인화문토기를 비롯한 통일신라시대의 토기로 여겨지는 호의 구연부편 및 동체부편 다수를 수습하였는데, 이 중 특징적인 유물은 다음과 같다.

③ 유물

㉠ 구연부편(사진 26-①, 그림 35-①)

회색의 경질토기로 태토에는 고운 모래 알갱이가 많이 섞여 있고, 표면에는 자연유가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 구단부 아래·위로는 정면할 때 생긴 흠이 파여 있으며, 구단부 바깥쪽도 격여 있다. 현재 남아있는 부분의 가로 4.5, 세로 3.0, 두께 0.6(cm)

㉡ 호 구연부편(사진 26-②, 그림 35-②)

회청색 경질토기 호로 거의 직립에 가까운 구연부를 보이며, 표면에는 청록색의 자연유가 두껍게 묻어 있어 반들반들하지만 토기의 안쪽은 자연유이 많이 탈락되어 있어 거칠다.

현재 남아있는 부분의 가로 5.6, 세로 3.3, 두께 0.6(cm)

㉢ 외반구연용 구연부편(사진 26-③, 그림 35-③)

회청색 경질토기 외반구연용의 구연부편으로 구단부에만 자연유가 남아 있고 경부와 내면

에는 남아 있지 않다. 구단부는 밖으로 말아서 처리하였고, 구단부 아래에는 두 줄의 파상문이 보이는데, 이는 통일신라시대 호의 경부를 장식하는 대표적인 문양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남아있는 부분의 가로 8.5, 세로 4.0, 두께 0.7(cm)

㉔ 외반구연호 구연부편(사진 26-④, 그림 35-④)

회청색의 경질토기 외반구연호의 구연부편이다. 태토에 굵은 모래가 많이 섞여 거칠며, 구단부는 밖으로 둥글게 마무리되어 있다. 현재 남아있는 부분의 가로 4.2, 세로 2.5, 두께 0.7(cm)

㉕ 토기 동체부편(사진 26-⑤, 그림 35-⑤)

회청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으로 폭 2.2cm, 높이 1.2cm가량의 파상문이 1조 둘러져 있다.

현재 남아있는 부분의 가로 5.8, 세로 3.6, 두께 0.6(cm)

㉖ 인화문토기 병 동체부편(사진 26-⑥, 그림 35-⑥)

두 줄의 점렬문을 반복적으로 찍어 새긴 인화문이 남아 있는 병의 동체부편이다. 정선된 태토를 이용하였으며, 표면 안밖은 황색의 경질을 보이나, 벽심은 갈색을 띠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부분의 가로 4.5, 세로 2.2, 두께 0.5(cm)

㉗ 인화문토기 완 구연부편(사진 26-⑦, 그림 35-⑦)

말발굽무늬와 원형문이 연속으로 시문된 인화문토기로 직립구연완의 구연부편이다. 태토는 정선되어 있고, 회청색의 경질토기이며, 두께는 매우 얇은 편이다.

현재 남아있는 부분의 가로 2.0, 세로 3.7, 두께 0.4(cm)

㉘ 호 경부편(사진 26-⑧, 그림 35-⑧)

회청색경질토기 호의 경부편으로 남아 있는 부분에는 다섯줄의 침선문과 한 줄의 파상문이 시문되어 있다. 파상문은 폭 4.0cm, 높이가 0.5cm로 옆으로 길게 시문되어 있다. 토기의 내면은 자연유가 많이 탈락되어 거친 반면, 표면은 회청색으로 반들반들하다.

현재 남아있는 부분의 가로 8.9, 세로 6.5, 두께 0.6(cm)

8) 草茨里 상초하 옹기 요지(사진 28)

① 시대 : 조선시대

② 유적의 위치 및 현황

상초하 옹기요지는 草茨里 하초하 통일신라시대 토기산포지의 북쪽에 있는 계곡의 해발 100m가량의 구릉 북쪽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서는 다량의 옹기 파편들과 요벽 파편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 窯地는 현재 고추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곳으로 窯의 구조가

남아 있지 않다.

③ 유물

3점 모두 갈색 유약이 입혀진 옹기편으로 2점은 대형옹의 구연부편이다. 1점은 소형호의 구연부로 유약이 많이 박탈되어 있다. 대형옹의 구연부편 2점은 모두 구단부가 밖으로 꺾여서 발달된 모습을 하고 있고, 소형호의 구연부는 짧게 외반되어 있다. 대형옹 2점은 오늘날의 간장독과 유사하다.

㉠ 사진 29-①, 그림 36-③ 추정구경 26cm, 현재 높이 5.8cm, 두께 0.5cm

㉡ 사진 29-②, 그림 36-④ 추정구경 15.3cm, 현재 높이 3.6cm, 두께 0.4cm

㉢ 사진 29-③, 그림 36-⑤ 추정구경 15.5cm, 현재 높이 3.6cm, 두께 0.4cm

9) 草茨里

① 지석묘¹⁵⁾

초부리 89-85번지 일대에서 2기의 지석묘가 확인되었는데, 이 곳은 1965년 용범이 발견된 야산의 아래 밭이다. 흙이 많이 퇴적되어 지석묘의 형식이나 성격을 명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개석의 크기는 270cm×250cm×40cm, 470cm×190cm×50cm이다.

② 鎔范¹⁶⁾

1965년 모현면 초부리에서 수습된 유물로 현재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형태가 완벽 한 한 쌍의 용범과 외쪽의 용범 등 모두 3점이며, 滑石으로 제조되었다. 이 유물은 조선시대 孝宗朝의 領相 南九萬의 墓 가까운 산비탈에서 3枚가 포개어진 채 발견되었다. 2매가 한 조를 이루는 것의 크기는 길이가 22.5cm, 넓이 4.3~5.2cm, 두께 2cm, 2.3cm이며, 나머지 1매는 길이 28.1cm, 넓이 5.6~6.1cm, 두께 1.4cm이다.

15) 국립중앙박물관, 1988, 《新岩里》 I,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20책.

16) 용인군지편찬위원회, 1990, 《용인군지》.

이인영 편저, 1986, 《내고장의 얼》, 용인문화원.

국립중앙박물관, 1988, 《新岩里》 I,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20책.

10) 旺山里 통일신라시대 토기산포지

① 시대 : 통일신라시대

② 유적의 위치 및 현황

45번 국도를 따라 가다가 장전평으로 들어가는 오른쪽 길로 들어가 장전평 마을을 지나면 매산저수지 서쪽에 위치한 모산마을 남쪽의 밭에서 수습한 토기편들이다.

③ 유물

㉠ 외반구연호 구연부편(사진 27-(1), 그림 36-(1))

회청색 경질토기로 정선된 태토로 제작되었으며, 구단부는 직선으로 깎은 듯이 단순한 형태로 마무리하였다. 토기의 표면은 짙은 회청색을 띠는 반면, 벽심은 회색을 띠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부분의 가로 2.0cm, 세로 4.0cm, 두께 0.8(cm)

㉡ 호 경부편(사진 27-(2), 그림 36-(2))

회청색경질토기 호의 경부편으로 4조의 침선 파상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그 밑에는 1조의 침선이 횡으로 돌려져 있다. 태토에는 굵은 모래가 많이 섞여 거친 양상을 보인다.

현재 남아있는 부분의 가로 5.2cm, 세로 5.8cm, 두께 0.9(cm)

11) 旺山里¹⁷⁾

지석묘 498번지에 위치한 북방식 지석묘로 지방유형문화재 기념물 제20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일대에는 3기의 지석묘가 각각 3개의 판석으로 대형의 개석을 받치고 있다. 이들이 위치하는 지역은 동으로는 광주산맥이 서남으로 처져 있고, 그 앞 멀지 않은 곳에 경안천이 흐르고 있는 저평한 지대이다. 완전하게 남아 있는 1기의 개석길이는 5.6m, 폭 4.5m, 두께 0.8m이며 전체높이는 2.3m정도이다. 개석 아래의 석실은 당초 4매의 판석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3매만이 남아 있다. (吳)

17) 문화재관리국, 1977, 《문화유적총람》.

용인군지편찬위원회, 1990, 《용인군지》.

경기도, 1993, 《문화재안내분집》.

국립중앙박물관, 1988, 《新岩里》 I,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20책.

2. 蒲谷面

1) 麻城里 영골 자기산포지(사진 30)

① 시대 : 조선시대

② 유적의 위치 및 현황

조성무계장의 제보로 마성리 영골의 산사면에 기와편과 자기편 산포지가 있다고 하여 영골(영곡)을 조사하였다. 이 영골 산포지에서는 조선 후기 건물이 소실되는 과정에서 남겨진 와당편과 백자편들이 다량 산포되어 있었다. 주변지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영골 밭 일대에서는 분청사기편도 발견되었다. 이 주변 밭에서 분청사기 완형이 발견되기도 하였다고 한다. 또한 이 영골에는 壬辰倭亂 당시 금방아와 유기들을 묻어 두었다는 금방아간이 있었다고 전해 오고 있다. 영골의 중턱에는 오래 전부터 연못이 있었는데 이를 금방아간이라고 일컬어 오고 있다.

③ 유물

영골에는 크게 조선시대 전기의 분청사기편과 후기의 백자편이 혼재해 있다. 이 산포지에는 분청사기 접시의 저부가 발견되었다(사진 32, 그림 5 : 5-6). 태토는 연질이며 입자가 고운 회백색 계통이다. 유약은 잘 녹아 전면에 남아 있으며 회백색과 회갈색을 띠고 있다. 저부편의 내면에는 다양한 문양이 있는데 주로 성령문의 넓은 중심문양대가 있고 그 밑의 내저에 동심원문이 있는 것과 인화성령문이 남아 있는 것이 있다. 이 중 한 분청사기의 인화문의 마지막처리가 불량하게 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서 분청사기의 늦은 시기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사진 32-①). 분청사기의 굽들은 非外反이고 0.6~0.7cm로서 낮은 굽이며, 굽은 모래받침과 미립의 모래받침을 받치고 番組한 흔적을 보인다.

일부 분청사기편에는 다양한 문양이 象嵌되어 남아 있다. 주로 국화문, 구갑문 등이 주류를 이루며, 인화성령문 등도 보인다(사진 31, 그림 5 : 1-4). 형태적으로 대접과 접시 등이 발견되었으며 구연부는 내만, 외만, 직립 등 다양하다. 따라서 영골에서 발견되고 있는 분청사기는 조선초기 상감분청으로부터 16세기의 분청 말기의 것들까지 골고루 발견되고 있다.

이 영골에는 분청사기 외에도 백자들 또한 집중 산포되어 있다. 조성무계장의 말에 의하

면 원래 이 지점에 조선시대의 집터가 있었다고 말한다. 또한 이곳에 전형적인 조선시대의 기와편들이 산재해 있다. 자기는 주로 미립 모래반침을 한 대접류와 접시류들이 주를 이룬다. 굽은 주로 대마디굽이고 구운 이후 바닥을 다음은 흔적도 보인다. 이 백자들은 16세기경의 것들로 보여진다(사진 33, 34, 그림 5 : 7-10).

2) 留雲里 지석묘

① 시대 : 청동기시대

② 유적의 위치 및 현황

지석묘가 발견된 유윤리 87-88번 밭 주변에 7성바위가 있었다고 전해 온다. 하지만 발견된 2기를 제외하고는 소실되어 없어지거나 주택 안에 묻혀 있다. 이 유적의 위치가 지리적으로 현재 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일대의 지형적 특성을 밝혀 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 경안천을 따라 유윤리 일대를 조사하였다. 경안천으로부터 70~80m 떨어진 곳(공장들이 군집되어 있는 일대)에 노출된 단면에 대한 조사에서 자갈과 굽은 모래가 있는 층이 발견되었으며 그 위에 최근에 쌓인 50cm 가량의 휴무스층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퇴적 정황으로 보아 유윤리의 지석묘는 강가에서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위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주변 일대에는 1차 범람원성 단구가 유윤리 일대의 야산까지 형성되어 있고, 홍적세 퇴적은 보이지 않는다.

이 유적에서 발견된 2기의 지석묘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호 지석묘(327cm, 264cm, 64cm)(사진 35)

이 지석묘는 龍仁郡誌에 간단히 보고된 지석묘이다(p. 761). 유윤리 88번지 이진호 씨 소유 밭 가장자리에 있다. 남방식 지석묘이며 하부에 석곽이 노출되어 있다(사진 36). 이 마을 이장인 김문환 씨의 말에 의하면 이 지석묘의 남쪽편에 입석이 있었으나 주민들이 다리를 놓는 데 사용했다고 한다. 지석묘는 남북방향으로 놓여 있다.

㉡ 2호 지석묘(225cm, 120cm, 27cm)(사진 37)

이 지석묘는 87번지 집 뜰에 놓여진 것으로서 아직 보고되지 않은 지석묘이다. 현재는 땅에 묻혀 있어서 어떤 형태의 것인지 알 수 없다. 다만 역시 남쪽편에 지석인지 입석인지 알 수 없는 30cm 가량의 돌이 하나 세워져 있다.

3) 유운리 선돌¹⁸⁾

유운리에는 용인군지에 보고된 선돌이 있다. 유운리 전 330-1번지에 위치한다(사진 38). 이 선돌은 마을 경계표시로 세워진 것이며 임진왜란시 이일 장군이 힘자랑으로 세운 것이라는 전설이 있다. 선사시대 선돌로 보는 견해도 있다.¹⁹⁾

1호 : 높이 155cm, 폭 88cm, 두께 75cm

2호 : 높이 174cm, 폭 118cm, 두께 54cm

4) 留雲里 산포지²⁰⁾

유운리에서 김기섭氏에 의해 석검이 발견되었다. 형암으로 만들어진 일단병식 검으로서 열은 황색을 띠고 있다. 몸통의 등날이 자루끝부분에 까지 내려오는 점이, 단면이 마름모형인 점이 덕성리의 것과 유사하다. 다만 자루끝의 폭이 검코에 비해 긴 점이 특이하다.

5) 前垈里 산포지²¹⁾

1968년 李仁寧에 의해 포곡면 전대리 포곡초등학교에 화강암제 돌도끼가 한점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6) 麻城里 고분²²⁾

1972년 12월 청동제 淨瓶 1점, 橙子 4점, 청동제 대야 1점이 출토되었다. (李)

18) 李仁寧 編著, 1986, 내고장의 얼 : 遺物·遺蹟 篇, 용인문화원.

국립중앙박물관, 1988, 《新岩里 I》,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20책.

文化財管理局·文化公報部, 1977, 《文化遺蹟總覽》.

19) 龍仁郡誌編纂委員會, 1990, 《龍仁郡誌》.

20) 李仁寧, 1986, 내고장의 얼 : 遺物·遺蹟 篇, 용인문화원 : 36.

국립중앙박물관, 1988, 《新岩里 I》,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20책 : 83.

21) 李仁寧, 1986, 내고장의 얼 : 遺物·遺蹟 篇, 용인문화원 : 38-39.

文化財管理局·文化公報部, 1977, 《文化遺蹟總覽》 : 270.

22) 文化財管理局·文化公報部, 1977, 《文化遺蹟總覽》 : 269.

7) 金魚里 어매실 수습 적갈색토기

① 시대 : 삼국시대

② 유적의 위치 및 현황

용인읍에서 京安川 동쪽 길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인정교를 지나 우회전하여 2km 정도 직진하면 경안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실개천가의 밭에서 수습한 유물이다.

③ 유물

㉠ 적갈색 호 구연부편(사진 39-①, 그림 37-①)

구연부에서 경부로 이어지는 무문만 남아있는데, 경부는 급격히 꺾여 외반되어 있고 구단부는 밑을 따라 홈이 있다. 정선된 태토를 사용하였으며, 표면에는 검은색의 조그만 반점들이 찍혀 있다. 현재 남아있는 부분의 길이 3.9cm, 높이 1.4cm, 두께 0.9cm

㉡ 대상파수편(사진 39-②, 그림 37-②)

위의 호 구연부편과 같은 태토를 지닌 적갈색의 대상파수부 편이다. 파수의 오른쪽은 토기에 붙었던 것이 그대로 떨어졌으며, 왼쪽은 깨진 상태이다. 파수 표면은 깎아서 전명한 자국이 일부 남아 있고 토기 동체부와 접합된 부분 주위는 손자국이 남아 있다.

현재 남아있는 부분의 길이 6.4cm, 폭 3.8cm, 두께 0.8cm (吳)

3. 水枝邑

이 지역은 한신대학교박물관에서 한국토지개발공사 경지지사로부터 의뢰받아 수지 2지구 택지개발조성계획지의 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1995년도에 지표조사보고서에 소개된 지역이다. 이 보고서에서 보고된 것처럼 개발지구인 관계로 주요 유적분포지역에는 아파트나 상가가 들어서 있던가 혹은 공사를 위하여 거의 파헤쳐져 있어서 위 박물관의 조사의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지역은 논과 비닐하우스로 덮혀 있어서 조사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었다. 수지면에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논에는 최근에 개토한 흔적이 뚜렷하여 그곳에서 유구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본 박물관에서도 지표조사에서 발견하여 발굴되었던 지점을 다시 확인한 외에는 특별한 유적은 찾을 수 없었다. 주변에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자기편들은 지역적으로 일부 수습되었으나 위 보고서에서 언급했듯이 조

선시대의 분묘와 석물들이 구릉지대에 밀집되어 있는 것과 연관해서 특별히 보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 물론 자기편들은 주로 15~19세기에 걸친 조선시대의 지방요지에서 구워 낸 백자대접이나 접시류들이 주종을 이루었다.

한신대학교의 지표조사에서는 新鳳川에 의해 형성된 충적지대에 위치한 정평농장 창고주변에서 연질과 경질의 백제토기편들이 수습되면서 유적이 확인되었다. 확인된 이 산포지에 대한 시굴조사와 발굴조사도 실시되어 주거지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이 유적의 성격은 앞으로의 정식보고서를 통하여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산포지는 용인지역에 많지 않은 백제시대의 주거유적으로서, 자세한 조사과정을 통하여 三國時代의 패권지역이었던 이 지역의 성격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또한 이 시대의 역사적 자료를 검증하는 자료가 될 것이다. (李)

4. 駒城面

1) 麻北里 토기산포지(사진 40)

① 시대 : 삼국시대

② 유적의 위치 및 현황

麻北里 520-9번지 배상직씨대 좌측 야산 일대 : 현재 공사를 위하여 완전히 벌목한 상태인 이 야산의 중턱에서 타날문토기편 수점이 수습되었다.

③ 유물

이 산포지에서 발견된 토기편들은 회색연질토기로서 수지면 정평농장 창고주변에서 발견된 것들과 유사한 삼국시대의 繩蓆文土器片이다(사진 41).

2) 上下里 백자 산포지(사진 42)

① 시대 : 조선시대

② 유적의 위치 및 현황

용인시에서 신갈쪽으로 가다가 고개를 넘으면 우측에 상하리 민재궁으로 진입하는 길이

있다. 그 길로 접어들어 1km 정도 들어가면 홍국생명연수원이 나오는데 진입하기 바로 전 우측 산자락에 백자산포지가 있다.

③ 유물

이 산포지에서는 조선시대 후기의 수키와 2점과 다량의 백자 저부 및 백자편, 토기편 등이 수습되었다. 백자편들을 조사한 결과 17세기경의 것으로 보이는 잘 구어진 백자 대접편 두 점을 제외하고(사진 43, 그림 6 : 1-2), 대부분 조질의 모래받침을 하고 낮은 안다리굽, 삼각형다리굽을 특징으로 하는 조선시대 후기 즉 18~19세기의 대접 및 접시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사진 44, 그림 6 : 3-5). 다각형의 굽을 가진 제기의 저부도 1점 발견되었는데 역시 18~19세기의 것으로 보인다(사진 45, 그림 6 : 6). 또한 자기를 굽는 과정에서 변형 파괴된 용기편들도 보인다(사진 8). 이 산포지에서 조선시대의 전형적인 완형에 가까운 수키와 두 점을 수습하였다(사진 47, 48).

이 산포지는 17~19세기까지 조선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주거지역이었거나 이 시기 중 한 때 산사면을 중심으로 용기요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寶亭里 연원부락 백자 산포지(사진 49)

① 시대 : 조선시대

② 유적의 위치 및 현황

보정리 연원부락에 있는 공동묘지에 진입하면 그 일대에 있는 밭에 백자편들이 산포해 있다.

③ 유물

이 산포지에서는 분청사기편, 백자편, 저부, 토기편 등이 수습되었다. 분청사기편은 경기도 일대에 많이 보이는 인화구갑문들이 주로 보인다(사진 50). 분청사기의 기벽은 두껍지 않으며 진녹색을 띠고 있다. 백자편들은 주로 저부편들이었다. 저부편들을 볼 때 이 자기들은 조질의 굽은 모래 받침을 받치고 구였으며 굽은 주로 삼각형다리굽이 주를 이룬다(사진 51, 52, 그림 7 : 1-4).

이 산포지에서 전형적인 토기편들도 다수 수습되었다(사진 53). 이 산포지는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조선시대사람들의 접거지역이었으며 주변 정황으로 보아 15세기부터 사용된 공동묘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4) 東栢里 토기산포지(사진 54)

① 시대 : 고려시대

② 유적의 위치 및 현황

이 유적은 동백리 어정초등학교 뒤밭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밭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위에는 작은 야산이 있다.

③ 유물

이 산포지에서는 파수 3점(사진 55)과 다수의 토기편(사진 56)들이 수습되었다. 수습된 파수중 우각형 파수의 변형으로 위로 굽어진 ‘ㄴ’자형을 하고 있다. 이 파수는 회색경질토기의 파수로 보인다. 또 하나의 파수는 연질로서 소형토기의 파수로 손의 지문이 뚜렷이 보인다. 이 파수는 그다지 높지 않은 온도도 구워진 토기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형태적인 특성은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계속 발견되는 것들이며, 주변에서 발견된 토기편들은 고려시대의 토기편들이 대부분이어서 고려시대의 산포지로 보여진다.

5) 上下里 387번지²³⁾

지석에 1기만 남아 있다. 하지석은 용인-수원 간 국도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방에 신갈천이 흐른다. 상석은 두 조각으로 갈라져 있다. 상석의 크기는 길이 313cm, 폭 295cm, 두께 100cm로서 동-서 방향을 장축으로 하고 있다. 북방식 지석묘로서 상석이 쓰러지면서 현재의 모습을 하고 있다. 두 개의 지석이 남아 있다.

6) 寶亭里 연원부락²⁴⁾

1981년 7월 16일 용인군 구성면 보정리의 연원부락 산 651번지에서 구성면 상하리 거주

23) 李仁寧 編著, 1986, 내고장의 일 : 遺物·遺蹟 篇, 용인문화원 : 42.

국립중앙박물관, 1988, 《新岩里 I》,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20책 : 75.

文化財管理局·文化公報部, 1977, 《文化遺蹟總覽》 : 274.

24) 李仁寧 編著, 1986, 내고장의 일 : 遺物·遺蹟 篇, 용인문화원 : 32-34.

송영만 씨에 의해 발견되었다. 발견된 석기로는 타제석기와 마제석부 등이 있다. 현재 이 유물의 소재가 분명치 않아 정확한 연대나 석기의 특징을 설명할 수 없다. (李)

5. 龍仁市

1) 驛北洞 古塚(사진 57)

① 시대 : 미상

② 유적의 위치와 현황

이 지점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의 지표조사에서 보고한 유방리 돌방무덤이 있던 곳이다. 이 지점은 유방리가 아니고 역북동이다. 현재 돌방무덤은 찾아볼 수 없었으나 이씨묘(‘왕족묘’라고도 함) 사이에 1기의 고총이 있다. 고총의 윗부분은 도굴된 흔적이 보인다. 고분은 북서 방향으로 길게 놓여 있는데 길이 550cm, 높이 60cm이다.

2) 驛北洞 자기산포지(사진 58)

① 시대 : 조선시대

② 유적의 위치와 현황

이 유적은 역북동 고총과 가까이 있는 역북동 86번지 주변 밭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③ 유물

이 산포지에서는 다량의 백자 저부편이 발견되었다(사진 59-61, 그림 7: 5-10). 이 산포지에서 발견된 자기들은 주로 굵은 모래받침을 하여 구웠다. 굵은 대마디굽, 굵이 높지 않으나 안은 깊은 안다리 굽이 대부분이다. 굵이 높은 접시도 한점 수습되었다(사진 61, 그림 5). 이러한 자기들은 주로 조선시대 후기 즉 18세기 이후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이 지점에 큰 집터가 있었다고 한다.

3) 柳防洞 돌방무덤²⁵⁾

용인시 유방동 구성부락에 구성재라는 한옥이 있는데 이 건물의 뒷산에는 조선후기에 이루어진 전주이씨의 왕족 집단묘가 분포하며 주민들은 이른 왕무덤이라고 부른다. 이들 묘사이에 있는 소로에 접해서 파괴된 무덤 1기가 발견되었다. 무덤의 방향은 정남향이며 봉토의 규모는 지름 7m, 높이는 1~1.5m 정도이다. 길이는 120cm, 폭 70cm 정도의 할석 3매가 ㄱ자 모양으로 노출되어 있고 이 사이에는 길이 30cm 정도의 작은 돌이 박혀 있다. 앞의 역북동 고총에서도 언급했듯이 지점은 동일지점인 듯하나 이번 조사에서 원지점을 확인할 수 없었다. (李)

4) 雲鶴洞 주변 수습 통일신라시대 토기(사진 62)

① 시대 : 통일신라시대

② 유적의 위치 및 현황

304번국도 용인에서 백암쪽으로 가다가 외어둔을 지나 내어둔으로 들어가는 길의 왼쪽 밭일대에서 통일신라시대의 토기편이라고 생각되는 토기편들을 수습하였다.

③ 유물

㉠ 외반구연호 구연부편(사진 62-③, 그림 37-③)

회청색 경질토기로 토기의 구단부에만 자연유가 남아 있어 반들반들하며, 경부에는 2~3개의 불규칙한 홈이 파여있고, 표면 뿐만 아니라 내면에도 많은 물레자국이 남아 있다. 표면 안팎은 회색을 띠나 벽심은 적갈색을 띤다.

현재 남아있는 부분의 길이 5.5cm, 높이 2.9cm, 두께 0.7cm

㉡ 토기 경부편(사진 62-④, 그림 37-④)

적갈색 연질토기로 태토는 정선되어 있으며 토기 안쪽에 물레자국이 보이며, 부분적으로 검은 마연이 남아 있기도 하다. 표면에는 1~1.3cm를 간격으로 하는 파상문이 새겨져 있다.

현재 남아있는 부분의 길이 4.3cm, 높이 2.6cm, 두께 0.8cm

㉢ 직립구연호 구연부로(사진 62-②, 그림 37-⑤)

회색 연질 호의 구연부로 구단부는 거의 직각으로 꺾여 있으나 경부는 직립하였다. 표면

25) 국립중앙박물관, 1988, 《新岩里 I》,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20책 : 79.

은 밝은 회색이지만, 기벽의 안쪽은 회청색을 띠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부분의 길이 3.3cm, 높이 4.5cm, 두께 0.6cm

㊸ 토기 동체부편(사진 62-①, 그림 37-⑥)

회청색의 경질토기 동체부편으로 표면에 <그림 37-⑥>과 같은 침선문과 파상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안쪽에는 물레자국이 남아 있다.

현재 남아있는 부분의 길이 3.0cm, 높이 6.8cm, 두께 0.9cm

5) 雲鶴洞 돌방무덤²⁶⁾

용인읍 운학동 190번지일대인 해발 346m 국사봉 서남쪽 경사면에 위치한다. 무덤은 오래 전에 도륙되어 천정석이 일부 파괴되었지만 현 상태에서 원형을 추정해 보면 주향은 서남향이며, 벽은 60~70cm정도의 활석으로 둥그렇게 내경시켜 쌓아 올린 궁륭상의 횡혈식 석실 분으로 보인다. 천정은 길이 2m, 두께 30cm정도의 넓은 자연석을 약간 다듬어서 이용하였다. 묘실의 길이는 150cm이상, 폭은 140cm정도이며, 천정에서 바닥까지의 높이는 150cm이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이 무덤은 30~40년 전부터 이미 도굴된 채 고려장터라고 전해진다고 한다.

6) 麻坪洞 積石塚²⁷⁾

용인읍 마평동 574번지에 위치하며, 가까운 하천변의 들을 이용해 방형의 봉분을 쌓은 것인데, 이는 보존 상태가 양호한 서남쪽의 모서리가 직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알 수 있다. 주변의 인가로 인하여 많이 훼손되고 있으며, 길이는 25~30m, 폭 10~15m, 높이 3m정도이다. (吳)

6. 器興邑

용인시에서 가장 개발이 많이 진행된 곳이 기흥읍이다. 그동안 이곳에서 특별히 보고된

26) 국립중앙박물관, 1988, 《新岩里》 I,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20책.

27) 이인영 편저, 1986, 《내고장의 일》, 용인문화원.

국립중앙박물관, 1988, 《新岩里》 I,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20책.

유적도 없었기 때문에 보다 세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이미 정착된 주거지역인데 다다 공장지대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특별한 산포지를 찾을 수 없었다. 역시 이 지역은 조선시대에도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던 곳이어서 좁은 밭이나 야산에는 조선시대 백자편들이 자주 발견되었다. 하지만 보고할 만한 특별한 유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발견된 유적으로는 고매리가 있다.²⁸⁾ 1980년 4월 27일 기흥읍 고매리 81번지 거주 금종환이 논갈이를 하던 중 한 점의 돌도끼를 수습하였다. 晡川里 지석묘도 1기가 매장되어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²⁹⁾ (李)

7. 遠三面

1) 高塘里 삼국시대 토기 산포지(사진 63)

① 시대 : 삼국시대

② 유적의 위치 및 현황

용인에서 원삼면으로 넘어가는 304번 국도변에 위치한다. 지도상에는 비포장도로로 표시되어 있지만, 현재는 포장된 상태이다. 곱등고개를 지나 안골 마을 뒤쪽의 해발 170m 정도의 야산에서 수습하였다. 토기가 집중분포하는 곳은 1994년에 쓴 윤씨묘 앞의 고추밭이다. 비가 온 후에 조사를 실시하여 물길을 따라 많은 양의 토기편을 수습할 수 있었으나, 대부분은 타날문토기의 동체부편이었기 때문에 전체 토기의 형태를 복원할 수 없는 것이 많았다.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③ 유물

㉠ 동체부편(사진 64-①, 그림 38-①)

회색의 동체부편으로 태토는 비교적 정선되어 있고, 소성도는 매우 높다. 토기 표면에는 2mm 크기의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고, 안쪽에는 성형시 생긴 물레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현재 남아있는 부분의 가로 7.4cm, 세로 3.7m, 두께 0.8cm

28) 李仁寧 編著, 1986, 《내고장의 얼》, 용인문화원 : 38.

29) 文化財管理局·文化公報部, 1977, 《文化遺蹟總覽》 : 277.

㉠ 동체부편(사진 64-②, 그림 38-②)

회청색경질토기 호류의 동체부편으로 표면에는 유사 승문이 일부 남아 있으며, 자연유도 묻어 있다. 토기 안팎에는 물레자국이 뚜렷하다. 태토는 점토질로 굵은 사립이 곳곳에 섞여 있고, 소성도는 높다. 현재 남아있는 부분의 가로 6.5cm, 세로 6.1cm, 두께 0.6cm

㉡ 저부편(사진 64-③, 그림 38-③)

적갈색 연질의 평저토기편으로 태토에 굵은 모래가 많이 섞여 있어 무문토기 태토와 유사하다. 표면은 연한 황색을 띠나 안쪽은 짙은 적색을 띠고 있다.

추정 저경 13.0cm, 현재 높이 5.6cm, 두께 0.8cm

㉢ 동체부편(사진 65-①, 그림 38-④)

회청색 경질의 격자문토기편으로 격자의 문양이 매우 깊이 시문되어 있으며, 토기의 두께도 다른 것에 비해 두꺼워 대형토기의 파편임을 추정할 수 있다. 격자의 크기는 0.5cm 가량 된다.

현재 남아있는 부분의 가로 8.2cm, 세로 7.2m, 두께 1.5cm

㉣ 동체부편(사진 65-②, 그림 38-⑤)

회청색 경질 격자문토기편으로 위의 것과는 달리 문양이 얇게 시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표면이 많이 닳아 있는 상태이다. 태토는 정선되어 있고 안쪽에는 물레자국이 남아 있다.

현재 남아있는 부분의 가로 9.1cm, 세로 7.0m, 두께 1.0cm

㉤ 동체부편(사진 65-③, 그림 38-⑥)

적갈색 연질토기로 승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굵은 모래가 많이 섞여 거친 양상을 보인다. 표면은 연한 적색을 띠나 벽심은 회흑색을 띤다. 매우 작을 편이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문양의 시문양상과 태토로 보아 장란형토기편인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남아있는 부분의 가로 3.8cm, 세로 4.5m, 두께 0.6cm

㉥ 동체부편(사진 65-④, 그림 38-⑦)

회색 연질토기로 표면에는 승문이 타날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검은 색의 반점이 있다. 퍼면은 회색이나, 벽심은 적갈색을 이다. 역시 장란형토기의 동체부편으로 생각된다.

현재 남아있는 부분의 가로 4.0cm, 세로 4.5m, 두께 0.5~0.7cm

㉦ 동체부편(사진 65-⑤, 그림 38-⑧)

적갈색 연질토기편으로 승문이 타날되어 있고, 태토에 굵은 모래가 많이 섞여 있다. 기벽이 매우 얇고, 불을 맞은 흔적도 있으며, 이로 미루어 장란형토기의 파편으로 생각된다.

현재 남아있는 부분의 가로 3.0cm, 세로 2.9m, 두께 0.4cm

㉧ 호 구연부편(사진 65-⑥, 그림 38-⑨)

회흑색 연질토기 호의 구연부편으로 경부가 매우 짧으며, 구단부가 거의 직각에 가깝게

외반되어 있다. 태토는 비교적 정선되어 있고, 표면은 흑색에 가까우나, 벽심은 연한 회색을 띠고 있다. 추정 구경 14.1cm, 높이 2.3m, 두께 0.3cm

2) 沙岩里 지석묘(사진 66)

원삼면 사암리 안곡부락의 어린이 놀이터 옆에 위치한다. 화강암제로 되어 있으며, 상석에는 많지는 않지만 性穴이 보인다. 규모는 길이 3.8m, 폭 3.0m, 두께 0.6m 정도이다. 주변에 지석묘 상석으로 볼 수 있는 돌들이 몇 기 더 있었지만, 발 사이에 있거나, 흙에 덮여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었다.

3) 沙岩里 모래실 통일신라시대 토기 산포지(사진 67)

① 시대 : 통일신라시대

② 유적의 위치 및 현황

좌향에서 고당으로 가는 392번국도를 타고 샘골마을을 지나 우회전하여 700m정도 들어가면 계곡 사이에 있는 밭에서 통일신라시대의 대표적인 토기인 인화문토기와 대부완 등을 수습하였다.

③ 유물

㉠ 병 구연부편(사진 68-①, 그림 39-①)

회청색 경질 토기로 표면에는 자연유가 많이 남아 있지만, 내부는 전혀 남아 있지 않다. 반구병의 구연에서 경부로 이어지는 부분에 흠이 파여 있으며, 구단부는 깨져있어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다. 현재 남아있는 부분의 가로 6.3cm, 세로 2.2m, 두께 0.5~.6cm

㉡ 호 경부편(사진 68-②, 그림 39-②)

회청색 경질토기 외반구연호의 경부로 추정된다. 표면에는 간격을 달리하여 3조의 침선이 횡으로 돌아가며, 내부에는 물레자국이 남아 있다. 태토는 정선되어 있으나 군데군데 굵은 사립이 섞여 있다. 현재 남아있는 부분의 가로 3.2cm, 세로 4.4m, 두께 0.9cm

㉢ 인화문토기 동체부편(사진 68-③, 그림 39-③)

말굽형 인화문이 시문된 소형토기편으로, 태토는 정선되어 있고, 소성도도 높은 편이다. 너무 작은 파편이어서 형태를 추정하기 어려우나 완류의 동체부편으로 생각된다.

현재 남아있는 부분의 가로 4.3cm, 세로 2.5m, 두께 0.4cm

㊤ 굽다리편(사진 68-④, 그림 39-④)

회청색 경질의 굽다리편으로 태토는 정선되어 있고, 소성도도 매우 높다. 표면은 짙은 회청색을 띠나 벽심은 자색을 띤다. 굽의 높이는 0.7cm가량으로 매우 낮으로, 굽바닥에는 물레자국이 동심원상으로 남아있다. 형태상 대부분류의 굽다리로 추정된다.

추정 저경 4.9cm, 현재 높이 1.2m, 두께 0.4~0.7cm

㊦ 굽다리편(사진 68-⑤, 그림 39-⑤)

소형 대부분류의 굽다리편으로 굽의 높이는 0.7cm가량된다. 태토는 정선되어 있으며, 소성도는 높은 편이고, 표면은 짙은 회청색을 띤다. 굽바닥에는 성형시 생긴 물레자국이 동심원상으로 남아 있다. 추정 저경 6.4cm, 현재 높이 1.3m, 두께 0.4cm

4) 沙岩里 입석군³⁰⁾

원삼면 사암리 내동부락 입구에 위치한다. 원통형의 화강암을 쪼개어 놓은 듯한 모습이며 높이 2m, 폭 1m, 두께 0.3~0.4m 가량의 세 개의 돌이 나란히 서 있는데 正東을 향하여 거의 같은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다.

5) 孟里 행군이 삼국시대 토기 산포지(사진 70)

① 시대 : 삼국시대

② 유적의 위치 및 현황

좌향에서 백암으로 가는 17번 국도의 왼쪽 밭에서 수습하였다. 좌전 마을을 지나 행군이 마을 못미처의 고추밭일대이다.

③ 유물

① 외반구연호 구연부편(사진 71-①, 그림 39-⑥)

회청색 경질토기 외반구연호의 구연부 및 경부편으로 경부는 자연스럽게 외반되어 있으며, 구단부 또한 꺾임 없이 둥근 형태이다. 구연부 안쪽에는 성형시에 생긴 흠이 파여 있으며, 토기의 내·외면 모두에 물레자국이 남아 있다.

30) 용인군지편찬위원회, 1990, 《용인군지》

국립중앙박물관, 1988, 《新岩里》I,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20책

현재 남아있는 부분의 가로 4.7cm, 세로 3.4m, 두께 0.5cm

㉠ 호 구연부편(사진 71-②, 그림 39-⑦)

회색 연질토기 직립구연호의 구연부이다. 구단부는 등구스름하며 짧게 직립한 구연부는 어깨와 둔각을 이루며 완만히 연결되고 있다.태토에는 사립이 많이 섞여서 거친 편이며, 토기 안쪽은 박락이 심하여 거칠게 되어 있다. 추정 구경 11.1m, 높이 3.1m, 두께 0.6cm

㉡ 타날문토기 동체부편(사진 71-③~⑦, 그림 39-⑧~⑫)

맹리 행군이에서는 많은 타날문토기 동체부편을 수습할 수 있었다. 시문된 것은 대부분이 격자문이었으며, 승문과 승석문도 포함되어 있다. 토기의 질은 대부분 회색 연질토기이지만, 회청색 경질토기와 적갈색 연질토기도 많은 양은 아니지만 수습할 수 있었다. 도면 7-⑧은 한강유역 백제토기의 주요기종의 하나인 장란형토기 동체부편으로 추정된다.

6) 孟里

① 지석묘³¹⁾

원삼면 맹리 235번지에 위치한 남방식 지석묘로 문화재자료 68호 지정되어 있다.개석에는 27개의 性穴이 있는데, 性穴의 크기는 지름이 3~17cm, 길이는 1~7cm 정도이다. 개석의 크기는 길이 3.0m, 폭 2.8m, 두께 0.6m이다.

② 행군이토성³²⁾

원삼면 맹리 행군부락에 위치하는 이 성은 태봉산의 경사면이 평지와 맞닿는 지점에 축조된 장방형 토성으로 남-북길이 420m, 동-서길이 180m이며, 성벽의 높이는 1.5~3.0m가량이다. 성의 내부는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서남쪽 모서리는 용인-백암간 17번 국도에서 맹리로 진입하는 소로에 의해 끊어진 상태이다.남사면 아곡리 처인성의 복원당시 잔존하던 형태와 많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어 이 성의 축조시기는 백제시대일 것으로 보고 있다.

7) 木新里 신촌마을 구석기시대 유적(사진 72)

① 시대 : 구석기시대

31) 이인영편저, 1986, 《내고장의 얼》, 용인문화원

국립중앙박물관, 1988, 《新岩里》 I,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20책

32) 용인군지편찬위원회, 1990, 《용인군지》

국립중앙박물관, 1988, 《新岩里》 I,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20책

② 유적의 위치 및 현황

백암에서 392번 지방도로를 타고 두창리, 죽능리를 지나면 후동 마을 쪽으로 들어오면 만나게 되는 신촌 마을에 위치한다. 이 지역은 목신천에 의해 형성된 충적대지로 현재는 담배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③ 유물

㉠ 석영제 석기(사진 73, 그림 33-②)

블록한 측면에 작은 박편 흔적을 남기고 있어 의도적인 가공으로 볼 수 있다. 그럴 경우 양면에 간단한 잔손질로 날을 세운 것으로 볼 수 있다. 6.6cm 7.7cm

㉡ 석영제 박편(사진 74, 그림 33-③)

이 박편 위에서 다시 두어개의 소형 박편을 떼어낸 듯하며, 한 쪽의 날은 전형적인 굽개날로 우둘투둘한 양상을 보인다. 9.1cm 9.0cm

8) 木新里·杜倉里·竹陵里 신촌마을 수습 토기편

㉠ 외반구연호 구연부편(사진 75-①, 그림 40-①)

木新里 신촌마을에서 수습한 통일신라시대의 단경호 구연부편으로 회청색 경질이며, 안쪽에 물레자국이 있고 물레자국과 직교하도록 그은 선들이 남아 있다. 구연부는 짧게 외반하고 있으며, 구단부는 둥글게 말려 있다. 현재 남아있는 부분의 가로 4.6cm, 높이 2.3m, 두께 0.6cm

㉡ 유경호 구연부편(사진 75-②, 그림 40-②)

杜倉里 황토재 부근에서 수습한 삼국시대의 유경호 구연부 및 경부편으로 회청색의 경질 토기이다. 토기의 내·외면에 물레자국이 남아 있으며, 구단부에는 한 줄의 홈이 있다. 태토는 정선되어 있고, 소성도도 매우 높은 편이나, 표면은 회청색을 띠고 벽심은 자색을 띤다.

추정구경 10.0cm, 현재 높이 3.4cm, 두께 0.6cm

㉢ 내만구연호 구연부편(사진 75-③, 그림 40-③)

竹陵里 느리재에서 수습한 회청색 경질 토기로 구연부는 약간 내만되어 있으며, 구단부는 둥글게 처리되어 있다. 정선된 태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도도 높은 편인데, 표면은 매우 짙은 회청색을 띤다. 추정구경 13.2cm, 현재 높이 3.8cm, 두께 0.4cm

9) 佐恒里 통일신라시대 토기산포지

① 시대 : 통일신라시대

② 유적의 위치 및 현황

내사면에서 원삼면으로 가는 17번 국도를 따라 佐贊고개를 지나 처음 도착하게되는 좌향의 마을 주변에서 토기를 수습할 수 있었는데, 통일신라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속하는 것들이었다. 이 중 통일신라시대에 속하는 토기편들은 다음과 같다.

③ 유물

㉠ 외반구연호 구연부편(사진 77-①, 그림 40-③)

회청색 경질토기 단경호의 구연부이다. 구단부의 안쪽은 오목하게 들어가 있으며 바깥쪽은 급하게 꺾여 있다. 토기 내외면은 질은 회청색을 띠나 벽심은 자색을 띠고 있다.

추정구경 17.4cm, 현재 높이 2.0cm, 두께 0.6cm

㉡ 굽다리편(사진 77-②, 그림 40-④)

대부완류의 굽다리편으로 태토는 정선되어 있으며, 토기질은 연질이다. 토기 표면은 연한 회색을 띠나, 벽심은 흰색에 가까운 밝은 회색을 띠고 있다. 토기편 안쪽에는 성형시 생긴 물레자국이 뚜렷이 남아 있다. 추정저경 5.8cm, 현재 높이 1.8cm, 두께 0.4~0.6cm

㉢ 외반구연호 구연부편(사진 77-③, 그림 40-⑤)

회청색 경질토기 호 구연부편으로 구단부는 등구스름하게 처리되어 있으며, 토기 내·외면에 물레자국이 남아 있다. 기벽이 매우 얇고, 구경도 9.4cm 정도인 소형 호의 구연부이다.

추정구경 9.4cm, 현재 높이 2.1cm, 두께 0.3cm

10) 佐恒里

① 고려고분군³³⁾

좌향리 산 30-1번지에 위치한 이 유적은 1994년 명지대학교에 의해 조사되었다. 남북 폭 20~50m내외, 동서 길이 110m의 구릉 능선과 동안 경사면에만 위치하고 있는데 무덤은 매우 산만하게 군데군데 흩어져 분포하고 있다. 유구의 장축방향도 일정치 않으나 크게 서-동

33) 명지대학교박물관, 1994, 《용인 좌향리 고려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

향과 북-남향으로 나누어지고 제 9·10호 석곽묘의 중첩상으로 보다 서-동향의 유구가 남-북향의 유구보다 선행 유구임을 알 수 있다. 유물은 토기, 자기류와 금석기가 주류이다. 청자, 백자, 녹청자가 동반 출토되며 목관내에는 동경, 가위, 동곳 등의 금속류가 매납되었다. 동경은 철제가위와 결합되어 출토되었다. 유적의 편년은 자기의 기형과 번조상태 등에서 11세기 중반부로 보인다.

② 태봉산 토성지³⁴⁾

지도에는 태봉산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주위에서는 태미산, 퇴비산으로 부르고 있으며 토성의 길이는 150cm정도이다. 산 9부 능선에 테를 두른 형태의 테피식이나 축성방식은 바깥부분을 절토하여 급경사면을 이루게 하였다. 이곳은 원삼면 서북쪽의 분지이며, 맹리의 행군이 토성과 직선거리 200~300미터의 거리를 두고 있어 군사적으로 이 토성과 큰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1) 杜倉里

① 선돌(사진 79)

두창저수지 남쪽의 마을 옆에 있는 밭두렁에 화감암제의 선돌 1기가 있다. 높이는 1.85m, 폭 0.7m, 두께 0.4m이다.

② 수습 石鏃³⁵⁾

원삼면 두창리 황토재에서 수습한 것으로 활석제의 유연형 화살촉으로 습베가 있으나, 현재는 결손된 상태이다. 폭 3.8cm, 길이 8.0cm (吳)

8. 白岩面

1) 湧泉里 통일신라시대 토기 산포지(사진 82)

① 시대 : 통일신라시대

34) 용인군지편찬위원회, 1990, 《용인군지》

35) 용인군지편찬위원회, 1990, 《용인군지》

이인영 편저, 1986, 《내고장의 연》, 용인문화원

② 유적의 위치 및 현황

백암에서 근삼리로 가는 지방도로를 타고 가다가 용인문화동산으로 가는 길로 우회전하여 가면 길 양쪽은 옥수수밭, 고추밭 등 많은 밭들이 있는데, 작골 마을 입구의 측사앞 옥수수 밭에서 통일신라시대 토기편 여러 점을 수습할 수 있었다.

③ 유물

㉠ 병 구연부편(사진 83-①, 그림 41-①)

회청색 경질토기로 태토는 정선되어 있으며, 표면에 일부 자연유가 남아 있기도 하나, 박락이 심하여 표면이 거칠다. 작은 편이기는 하지만 구단부가 남아있는데, 이를 옆에서 보면 ‘ㄷ’자로 세 번 꺾여 있다. 통일신라시대의 전형적인 반구명의 구연부이다.

현재 남아있는 부분의 가로 3.0cm, 높이 2.3cm, 두께 0.4cm

㉡ 외반구연호 구연부편(사진 83-②, 그림 41-②)

회청색 경질토기 호류의 구연부편으로 구연부는 짧게 외반되어 있고, 동체부는 짧은 목에서 급하게 꺾여서 연결된다. 태토는 정선되어 있고, 소성도는 높다. 토기 내외면 모두 질은 회청색이며 벽심은 회청색을 띠고 있다. 고단부위에 마무리 손질자국이 있고, 토기편 안쪽에는 물레자국이 뚜렷하다. 추정구경 17.4cm, 현재 높이 3.0cm, 두께 0.7cm

㉢ 호 구연부편(사진 83-③, 그림 41-③)

회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이나 경질에 가깝다. 구단부 일부만 남아 있는데, 구단부는 밖으로 말아서 정면하여 단면 삼각형을 이룬다. 태토는 정선되어 있다.

현재 남아있는 부분의 가로 3.6cm, 높이 1.6cm, 두께 0.6cm

㉣ 인화문토기편(사진 83-④, 그림 41-④)

통일신라시대 토기의 대표적인 특징인 인화문이 새겨진 완의 저부이다. 촘촘한 점렬문이 세로로 반복되는 양상을 보인다. 회청색 경질토기로 전체적인 기형으로 보아 완이나 대부완의 동체부로 보인다. 현재 남아있는 부분의 가로 4.8cm, 세로 1.6cm, 두께 0.5cm

㉤ 굽다리편(사진 83-⑤, 그림 41-⑤)

회청색 경질토기 굽다리편으로 대부완류의 굽다리로 생각된다. 굽은 짧게 직립하고 있으며 굽바닥에는 마무리 손질자국이 동심원상으로 남아 있다.

추정 저경 6.8cm, 현재 높이 1.9cm, 두께 0.4cm

2) 湧泉里 수습 고려백자(사진 84, 그림 41-⑥)

① 시대 : 고려시대

② 유적의 위치 및 유물

통일신라시대의 인화문토기를 수습한 작골 부근에서 수습한 11세기 중엽의 고려백자이다. 태토에는 불순물이 약간 섞여 있어 거칠은 편이고, 유약도 매끄럽게 시유되지 않아 표면이 거칠다. 굽바닥과 사발 안쪽 바닥에는 내화토 반침 자국이 4개씩 남아 있다. 그릇 안쪽 바닥의 內底圓은 굽보다 훨씬 넓게 둘러져 있다.

저경 5.8cm, 굽높이 0.9cm, 현재 높이 3.0cm, 두께 0.6cm

3) 近倉里 새터말 통일신라시대 토기 산포지(사진 85)

① 시대 : 통일신라시대

② 유적의 위치 및 현황

백암에서 용인으로 가는 302번 지방도로를 타고 가면 오른쪽에는 넓은 논이 왼쪽에는 九峰山이 펼쳐지는데, 통일신라시대의 토기편을 수습한 곳은 구봉산의 맨 아래자락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해발 160m 정도 된다.

③ 유물

㉠ 외반구연호 구연부편(사진 86-①, 그림 41-⑦)

회청색 경질토기로 토기 내·외면 모두에 자연유가 남아 있어 반들반들한 상태이다. 구연부는 자연스럽게 외반되었고, 구단부도 둥구스름하게 처리되었다. 구단부와 경부사이의 한 번 꺾여서 둔각을 이루고 있다. 토기편 안팎에 물레자국이 뚜렷하다.

추정구경 13.2cm, 현재높이 2.5cm, 두께 0.4cm

㉡ 외반구연완 구연부편(사진 86-②, 그림 41-⑧)

회색 경질토기로 완류의 구연부 및 동체부이다. 짧게 외반된 구연부는 둥글게 처리되어 있으며, 구단부 안쪽이 모퉁하게 들어가 있다. 토기 내·외면에 물레자국이 남아 있다. 태토는 정선되어 있으며 소성도도 높은 편이고, 두께는 0.4cm로 얇고 일정한 편이다.

추정구경 13.4cm, 현재높이 3.4cm, 두께 0.4cm

㉔ 외반구연호 구연부편(사진 86-③, 그림 41-⑨)

회청색 경질토기 호의 구연부로 구연부와 경부를 구분하는 부분이 토기의 안쪽을 칼로 깎은 듯이 매우 각지게 되어 있으며, 물레자국 또한 선명하다. 구단부는 둥글게 마무리되어 있으며, 토기편 안팎에 자연유가 많이 남아 있어 반들거린다.

추정구경 19.4cm, 현재높이 1.9cm, 두께 0.5cm

㉕ 타날문토기 동체부편(사진 86-④~⑦, 그림 41-⑩~⑬)

이상의 토기 이외에도 다량의 토기 동체부편을 수습할 수 있었는데, 대부분이 회색 연질의 토기고 격자문이나 승석문이 타날되어 있으나, 격자문이 대부분이며 격자의 크기는 0.2~0.7cm가량으로 다양하다. 태토는 점토질로 굵은 모래가 섞인 것도 다수이다. 두께 또한 0.6~1.4cm로 다양하다.

4) 近三里 영곡 수습 토기

① 시대 : 통일신라시대

② 유적의 위치 및 현황

백암에서 근삼리로 가는 지방도로를 타고 가다가 우회전하여 만나게 되는 영곡 마을 뒷편의 야산에서 수습하였다. 近倉里 새터말 유적과는 같은 능선의 반대 부분에 해당된다.

③ 유물

㉖ 외반구연호 구연부편(사진 86-①, 그림 42-①)

회청색 경질토기의 외반구연호 구연부 및 경부편이다. 토기편 바깥쪽에는 마무리 손질자국이 여러개 있는데, 경부의 바깥쪽에는 불규칙한 돌대 한 줄이 돌아가고 있으며, 내부에는 한 줄의 홈이 파여 있다. 표면은 짙은 회청색을 띠며, 벽심은 짙은 붉은 색을 띠고 있다.

추정구경 18.8cm, 현재높이 3.0cm, 두께 0.7cm

㉗ 병 저부편(사진 86-②, 그림 42-②)

회청색 경질토기로 안쪽에는 성형시 생긴 0.3cm 정도의 홈이 바닥으로부터 0.8cm간격으로 돌아가고 있어 매우 울퉁불퉁하며, 표면은 물레자국과 함께 불규칙적인 침선이 보인다. 태토는 점토질로 사립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표면은 거칠지만, 소성도는 높아서 매우 단단하다.

추정저경 19.8cm, 현재높이 4.4cm, 두께 0.8cm

㉘ 외반구연호 구연부편(사진 86-③, 그림 42-③)

회백색 연질토기 옹의 구연부이다. 표면은 회색이 많은나 벽심으로 갈수록 밝은 백색을

나타낸다. 구단부에는 한 줄의 홈이 있으며, 물레자국도 보인다. 두께나 구연부 곡률로 보아 대형옹의 구연부로 추정된다.

현재 남아있는 부분의 가로 4.3cm, 세로 2.7cm, 두께 0.8cm

5) 白岩里 쓰레산 건물지(사진 92)

① 시대 : 조선시대

② 유적의 위치 및 현황

백암에서 안성으로 가는 17번 국도의 왼쪽에 있는 쓰레산의 기슭에 있다. 쓰레산 자락에는 많은 밭들이 있으며, 조사 당시에는 경작을 위해 땅을 뒤집어 놓은 상태였다. 해발 130m 정도에서 뒤집어짐 흙들사이에서 많은 양의 기와 편(사진 93)을 수습할 수 있었다. 기와는 대부분 격자문이나 어골문이 새겨져 있지 않으면 무문이었다. 문자가 있는 기와는 발견할 수 없었으나 토기의 문양으로 보아 조선시대의 건물지가 있던 곳으로 추정된다.

6) 石川里 황새울 수습 석기(사진 77, 그림 40-⑧)

백암에서 근삼리를 지나는 지방도로를 계속 따라가다 우회전하여 석천리로 들어가면 양쪽에는 높은 산이 있는 계곡을 따라 그리 크지 않은 논과 밭이 있는데, 이 중 황새울 마을을 지나 포장도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석기 1점을 발견하였다. 이 석기는 형태상 수저모양을 하고 있는데, 날 부분을 비롯한 곳곳에 타렬흔이 남아 있어서 인공물인 것은 확실하나, 시대 및 용도는 알 수 없다.

7) 近三里³⁶⁾

외사면 근삼리 장개부락 뒤 야산에 위치한 남방식 지석묘로 七星岩으로 불리는데, 이로 미루어 원래는 일곱 개의 바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두 개만이 남아 있다. 두 개 중 큰 것의 크기는 길이 3.34m, 폭 2.54m, 두께 1.2m이며, 작은 것은 길이 3.0m, 폭

36) 용인군지편찬위원회, 1990, 《용인군지》

이인영 편저, 1986, 《내고장의 일》, 용인문화원

국립중앙박물관, 1988, 《新岩里》 I,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20책

1.8m, 두께 0.8m이다.

8) 高安里³⁷⁾

외사면 고안리 산 37번지에 있는 분청사기 도요지로 문화재자료 65호로 지정되어 있다. 가마퇴적은 남북방향으로 되어 있으며, 폭 15m, 길이 30m정도의 구릉을 이루고 있다. 퇴적층에서는鉢類와碗類가 가장 많고,壺, 甁 등의 기종도 보인다. (吳)

9. 陽智面

1) 大垔里 무량 토기 산포지(사진 88)

① 시대 :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② 유적의 위치 및 현황

용인읍에서 광주군으로 가는 329번 지방도로를 타고 가다가 大垔貯水池를 지나자 마자 있는 오른쪽 계곡의 실개천을 따라 양쪽으로 삼국시대 토기와 통일신라시대 토기가 산포되어 있다. 삼국시대 토기는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왼쪽 밭에서, 통일신라시대 토기는 오른쪽 밭에서 수습하였다.

③ 유물

㉠ 외반구연옹 구연부편(사진 89-①, 그림 42-④)

회색 연질토기 외반구연옹의 구연부편으로 구단부는 동그랗게 바깥쪽으로 말려있다. 토기의 내·외면에 물레자국이 남아 있다. 삼국시대 토기로 추정된다.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의 가로 1.9cm, 높이 3.0cm, 두께 0.6cm

㉡ 호 구연부편(사진 89-②, 그림 42-⑤)

회청색 경질토기의 구연부이다. 구단부는 둥글게 말려 있으며, 아랫쪽은 들려서 홈이 파여 있다. 경부는 거의 직립에 가까울 정도로 완만한 곡선을 이룬다. 물레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37) 용인군지편찬위원회, 1993, 《용인군지》

경기도, 1993, 《문화재안내문집》

으며, 토기 안쪽에는 규칙적이지 않은 침선이 돌아가기도 한다. 삼국시대 토기로 추정된다.

추정구경 10.0cm, 현재높이 3.4cm, 두께 0.5cm

㉞ 광구호 구연부편(사진 89-③, 그림 42-⑥)

회청색 경질 광구호의 구연부 및 경부이다. 태토는 매우 정선되어 있으며, 소성도는 높은 편이다. 구단부는 밖으로 심하게 외반되어 있고, 아래쪽이 들리고 구단부 바로 윗쪽에 흠이 있는 형태이다. 구연부에서 경부로는 급격하게 꺾이며 경부는 완만한 경사를 이룬다. 토기의 내·외면은 짙은 회청색이지만 기벽의 안쪽은 적갈색을 띤다. 물레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으며, 경부에서 동체부로 이어지는 부분에는 두 줄의 침선이 돌아간다. 삼국시대 토기로 추정된다.

추정구경 24.8cm, 현재높이 5.6cm, 두께 0.7cm

㉟ 외반구연완 구연부편(사진 89-④, 그림 42-⑦)

회색 연질토기 외반구연완의 구연부로 전형적인 통일신라시대의 완의 형태에 속하는 것이다. 점토질 태토에 고운 사립이 약간 섞여 있으며, 소성도는 낮다.

추정구경 10.4cm, 현재높이 2.6cm, 두께 0.6cm

㊱ 호 구연부편(사진 89-⑤, 그림 42-⑧)

직립구연호의 구연부로 구단부는 별다른 처리없이 둥글게 마무리되어 있으며, 짧은 목은 거의 직각을 이루며 동체부와 연결되고 있다. 태토는 매우 정선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회색을 띤다. 소성도는 높다. 추정구경 17.0cm, 현재높이 2.5cm, 두께 0.5cm

㊲ 병 구연부(사진 91, 그림 43-③)

통일신라시대의 전형적인 반구병의 구연부 및 경부편으로 표면에는 녹색의 자연유가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 구단부 아래는 약간 들려 있으며, 구연부는 네 줄의 침선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돌아간다. 추정구경 4.2cm, 현재높이 3.4cm, 두께 0.5~0.8cm

2) 大垓里 사기점 조선백자 요지³⁸⁾(사진 94)

① 시대 : 조선시대

② 유적의 위치 및 현황

이 요지는 일제시대부터 알려져 온 유적으로 지도상에는 표시되지 않은 아시아나 컨트리

38) 정양모, 1991, 《한국의 도자기》, 문예출판사

後藤茂樹 編著, 1956, 《世界陶磁全集》14, 李朝篇, 河出書房

클럽 입구의 바로 맞은편 발인 사기점에 위치한다. 주변에는 백자편은 물론 도검이와 요벽, 갑발, 내화토 받침등이 산재하여 한눈에 요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태로는 요의 구조를 파악할 수 없었다.

③ 유물

대대리에서는 여러 점의 백자편을 수습하였는데, 대부분이 대접이다. 태토는 잘 정선되어 치밀질로 되어 있으나, 유는 고르지 못하며, 탁한 청회색을 띠는 것도 있다. 굽바닥과 그릇 안쪽 바닥에는 내화토 받침자국이 남아 있고, 일부는 받침이 붙은 채 발견되기도 한다. 內底圓은 모두 굽지름보다 크게 돌려져 있다. 백자편과 함께 도검도 여러점 수습되었는데, 대체로 직경 9~10cm, 두께 1.5cm안팎이다. 대체로 16세기경의 백자로 추정된다. 보고된 각각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 대접 저부편(사진 95-②, 그림 43-⑤)

저경 6.2cm, 굽높이 0.9cm, 두께 0.7cm

㉡ 대접 완형(사진 96-①, 그림 43-⑥)

구경 13.1cm, 저경 4.6cm, 굽높이 0.6cm, 두께 0.5cm

㉢ 대접 저부편(사진 96-②, 그림 43-⑦)

저경 5.6cm, 굽높이 1.0cm, 두께 0.5cm

3) 定水里 수습 회색연질토기

① 시대 : 삼국시대

② 유적의 위치 및 현황

정수리 양달마을 뒷편의 고추밭에서 회색연질토기 2점을 수습하였다.

③ 유물

㉠ 직립구연완 구연부편(사진 90-①, 그림 43-①)

회색 연질의 완으로 태토에 작은 모래가 섞여 있으며, 기벽이 매우 얇다. 표면에는 성형시 생긴 손질자국이 횡으로 돌려져 있다.

추정구경 9.9cm, 현재높이 3.3cm, 두께 0.2cm

㉡ 저부편(사진 90-②, 그림 43-②)

회색 연질 평저 토기의 저부편이다. 바닥 바로 위쪽에는 한 줄의 홈이 있다. 표면이 흑회

색인데 비해 벽심은 적갈색을 띠며 태토에는 굵은 모래가 섞여 있다.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의 가로 3.6cm, 높이 3.1cm, 두께 0.5cm

4) 定水里 출토 石斧³⁹⁾

頁岩製의 石斧로 1975년에 내사면 정수리에서 수습되었다. 길이 16.3cm, 너비 3.6cm

5) 朱北里 지석묘⁴⁰⁾

내사면 주북리 825번지에 위치하며 이 일대를 속칭 숲원리라고도 하는데, 인근에는 경안천의 지류인 주북천이 흐르고 있다. 북방식 지석묘로 경기사적 제6호, 문화재자료 49호로 지정되어 있다. 지석의 높이는 1m정도이며, 개석은 길이 2.93m, 폭 2.62m, 두께 0.45m이고, 석실은 장변 82cm, 단변 63cm이며, 표토에서의 높이는 85~63cm이다.

6) 植金里 석실분⁴¹⁾

내사면 식금리 산 100번지에 위치한 횡구식 석실분이다. 식금리는 해발 200~300m정도되는 산으로 사면이 둘러싸인 작은 분지로, 일대에 10여기의 무덤이 분포한다고 한다. 석실의 규모는 길이 180cm, 폭 90cm의 평면 장방형이며 높이는 약 90cm이다. 석실의 벽은 길이 40~50cm, 두께 10cm정도의 활석으로 약간 내경시켜 4~5단을 쌓아 올리고, 그 위에 3~4매의 큰 판석으로 천정을 올렸다. (吳)

39) 용인군지편찬위원회, 1990, 《용인군지》

이인영 편저, 1986, 《내고장의 얼》, 용인문화원

40) 문화재관리국, 1977, 《문화유적총람》

용인군지편찬위원회, 1990, 《용인군지》

국립중앙박물관, 1988, 《新岩里》 I,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20책

41) 국립중앙박물관, 1988, 《新岩里》 I,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20책

10. 二東面

1) 西里 상덕도요지(사진 111)

① 시대 : 조선시대

② 유적의 위치와 현황

상덕도요지는 西里 상덕저수지 북서쪽 산사면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이 도요지는 얼마 전 무덤을 쓰는 과정에서 파괴되면서 드러난 것으로 보이며, 다량의 백자편, 저부 등이 발견되었다.

③ 유물

이 도요에서 발견된 자기들은 주로 대접과 접시류가 주를 이루며(사진 113-115, 그림 8 : 2-7) 호의 뚜껑도 1점 보인다(사진 112, 그림 8 : 1). 자기의 굽은 대마디굽, 안다리굽, 삼각형굽이 주를 이룬다. 일부 자기편에는 저부부분에 유약처리가 불량한 것도 발견되며, 유약처리가 잘못되어 기공이 생겨 형성되는 붉은 반점들이 보인다. 이 도요지에서는 태토비짐받침은 보이지 않으며 주로 굽은 모래받침을 사용하여 자기를 구웠다.

이러한 유물로 보아 조선시대 말기 즉 18~19세기경에 사용되었던 도요지로 보인다.

2) 西 3里 자기 산포지(사진 116)

① 시대 : 고려시대

② 유적의 위치와 현황

이 산포지는 서 3리(상덕골) 남서쪽 산에 면한 밭 일대에 형성되어 있다. 이 산포지 가까이에는 비닐하우스가 있다.

③ 유물

이 산포지에서는 흙의 저부 및 구연부(사진 117-119, 그림 9 : 1-3), 고려백자 저부(사진 120-122, 그림 4-9), 갑발편, 와편 등이 발견되고 있다. 합과 고려백자들은 서리일대에서 밭

견 되고 있는 고려백자 요지와 성격을 같이하는 유물들이다. 특히 이 유물들은 호암미술관에서 발굴한 바 있는 서리 고려백자요지의 최상층의 유물들과 같은 성격의 것들이다. 특히 이 산포지에서 주목되는 것은 변형 해무리굽이 발견되었다는 점이다(사진 122, 그림 9:9). 이 해무리굽의 백자는 특별한 목적으로 구워지는데 보통 다른 막고려백자를 굽는 맨 위쪽에 놓고 구워 내화토나 받침자국이 나지 않도록 구워진다고 한다. 이 백자의 굽에는 내화토를 3지점에 가볍게 바른 흔적이 보이며 백자의 굽기, 유약처리 등도 상당히 좋다. 특히 이 산포지에서 발견되고 있는 갑발은 고려백자를 굽던 서리 고려백자와 같은 성격의 것이다(사진 125).

이 산포지 일대에서는 다량의 와편이 발견되었는데 주로 고려시대의 전형적인 어골문, 격자문과 마차바퀴처럼 생긴 원형문이 남아 있다(사진 124-126).

이 서리 3리 일대는 고려시대 사람들의 주거지역이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발견된 갑발로 보아 도요지가 있었을 가능성도 높다.

3) 西里 사기막골 백자도요지(사진 127)

① 시대 : 조선시대

② 유적의 위치와 현황

이 요지는 龍仁:西里高麗白磁窯報告書에 간략히 기록되어 있으나⁴²⁾ 아직 유물의 성격을 자세히 보고된 바 없다.

이 요지는 현재 황소고집이라는 식당이정표가 있는 작은 길로 1.5km 가량 들어가면 서리 310번지 김영일 이장택이 나오는데, 그 집 안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집 뒤쪽에 2기의 窯가 있었으나 1기는 집이 들어서면서 파괴되었고 다른 1기는 그대로 남아 있다.

③ 유물

이 요지의 주변에서는 주로 祭器와 형태적으로 유사한 도지미 및 백자 저부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 유물은 형태는 제기류와 유사하지만 조선시대 후기 대략 19~20세기경의 도요지에서 자주 발견되는 도지미이다(사진 128, 129, 그림 10:1-4).

자기편들 중에는 분청사기편들이 있는데 귀알문이 주을 이룬다(사진 130, 그림 10:5-7). 분청사기편들은 녹갈색을 띠고 있으며 태토는 잘 정선된 것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42) 李種宣·金載悅·朴淳發, 1987, 《龍仁:西里高麗白磁窯 發掘調査報告書 I》, 湖巖美術館:21.

백자편들은 자기 받침과 시기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백자는 19세기경의 전형적인 민요에서 구웠던 조질 모래받침을 주로 사용하여 구웠다(사진 134). 굽은 그다지 높지 않은 삼각형안다리굽이 주를 이루며 대접들이 주로 발견되었다. 유약은 대체로 잘 칠해졌으나 기공이 많이 보이며 불의 상태와 태토의 질에 따라 표면색깔이 약간씩 달라졌는데 회백색이나 약간 녹색을 띤 백색이 나타난다(사진 131-136, 그림 10 : 8-10). 흑유병의 구연 부분도 1점 수습되었다(사진 137, 그림 10 : 11).

결론적으로 이 도요지는 수습된 자기의 질로 보아 조선시대 후기 즉 19~20세기경의 민요로 보이며 일부 발견되는 분청사기편들은 이 도요지로부터 1.5km 떨어져 있는 분청사기 도요지에서 흘러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4) 西里 사기막골 분청사기 도요지(사진 138)

① 시대 : 조선시대

② 유적의 위치와 현황

이 요지 역시 龍仁西里高麗白磁窯報告書에 간략히 기록되어 있으나⁴³⁾ 아직 유물의 성격을 자세히 보고한 바 없어 이번 조사보고서에 새로 발견된 유적으로 넣기로 하였다.

백자도요지가 있는 서리 310번지 집에서 왼쪽편으로 나있는 비포장길이 있다. 그 길을 따라 1.2km 정도 올라가면 최근에 만들어진 사슴농장이 있다. 이 사슴농장과 인접해 있던 지점에 분청사기 도요지가 있었다. 하지만 이 사슴농장과 그 앞에 나 있는 길을 만드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파괴되었다. 유물은 사슴농장의 오른쪽에 나 있는 길과 사면에 집중 분포되어 있었다.

③ 유물

이 도요지의 주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양을 가진 분청사기편과 원통형 도지미(사진 144) 등이 수습되었다.

이 유적을 조사한 바 있는 호암미술관 김재열 실장은 이 도요지에 많은 상감분청이 보였다고 한다. 기형은 주로 접시와 대접류들이다(사진 139-142, 그림 11 : 1-9).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주로 귀알문, 인화문, 상감동심원문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굽은 낮은 평저 안다리굽이며, 분청사기를 굽는 방식은 두 가지로 보이는데 도지미에 올려놓고 굽는 방법과 굽 바깥

43) 李種宣·金載悅·朴淳發, 1987, 《龍仁西里高麗白磁窯 發掘調査報告書 I》, 湖巖美術館.

쪽 가까이의 기벽에 작은 태토비짐을 붙친 후 겹쳐 굽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고려시대 말기에 자주 사용되던 방법으로서 조선 초기에도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분청은 주로 진 녹색, 녹갈색을 띠고 있으며 귀알문, 인화문 등의 문양이 남아 있는데(사진 143, 그림 11-⑩-⑯), 영골산포지에서 처럼 분청사기 쇠퇴기에 보이는 갈색빛의 조질 상감분청도 보인다(사진 143-①, 그림 11-⑩).

이 분청사기 도요지는 고려시대 말기의 기술적인 전통을 유지한 전형적인 분청사기 도요지로서 15~16세기에 걸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서 일부 보이는 백자편은 백자도요지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계통의 것으로 보이므로 백자도요지의 것이 부분적으로 혼재된 것으로 보인다(사진 145, 그림 11 : ⑰-⑱).

5) 西里 상반곡 고려백자 도요지(사진 146)

① 시대 : 고려시대

② 유적의 위치와 현황

이 도요지 역시 龍仁西里高麗白磁窯報告書에 간략히 기록되어 있으나⁴⁴⁾ 아직 유물과 유적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지 않아 역시 새로운 유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이 도요지는 원래 이곳 주민들이 ‘사기덤치’라고 불렀던 곳이다. 이 요지는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와 사기막골을 지나 내려오다가 우측의 하반부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 그 길로 접어들어 상반부락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우측 산 가장자리에 새로 짓는 별장이 보이는데, 이 별장의 아래쪽 산사면에 도요지가 위치하고 있다. 이 도요지는 기존에 보고한 것보다 큰 규모의 것으로서 3,000평에 달하는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이 도요지에는 크게 4지역의 갑발 집중 분포지역이 있다(사진 148-150). 이 지점은 원래 숲으로 덮혀 있었던 곳이어서 초기 발견 당시 그 크기를 상정할 수 없었으나 최근 개간하는 과정에서 나무들이 베어졌고 최근에 있었던 포크레인 작업과정에서 유적이 파괴되었으며 결국 그 과정에서 요지가 더 확실하게 노출된 것이다(사진 149).

④ 유물

이 도요지에는 많은 양의 갑발이 노출되어 있다. 그 갑발 안에는 서리 고려백자요지의 최상층에서 발견되는 자기편들과 같은 계통의 백자편들이 겹쳐 발견되고 있다. 원래 고려시대

44) 李種宣·金載悅·朴淳發, 1987, 《龍仁西里高麗白磁窯發掘調査報告書Ⅰ》, 湖巖美術館 : 21.

에 1갑발 1자기의 원칙이 이미 이 시기에는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다(사진 151-155).

자기들은 주로 대접, 접시류, 합, 합 뚜껑 등이 주를 이룬다(사진 156-168, 그림 12, 13, 14). 색은 주로 약간의 청자빛을 띠고 있으나 엄격히 말해서 연녹색을 띠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연녹색 이외에 회녹색계통의 것들도 일부 보인다.

자기의 안쪽에는 11세기 중엽에 사라지는 내화토 받침의 흔적이 자주 보인다. 내화토 받침은 매우 불량하게 처리되어 있다. 이것은 서리 중덕골에서 발굴된 고려백자 도요지와 마찬가지로 11세기 중엽 지방백자요로 정착되면서 지방수요를 위하여 다량의 자기를 굽는 도요지로 전환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 유적에서 발견되는 고려백자의 깨어진 면을 보면 청자와 달리 고령토 계통의 흙으로 구운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도요지에서 특징적인 것은 큰 기형의 합과 대접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큰 합의 기벽부와 합 위에 얹는 뚜껑편이 발견되었다(사진 164, 그림 13-②). 특히 한 대접의 기벽에는 ‘崔’字로 보이는 명문이 새겨져 있었다(사진 162, 그림 12-⑩). 이것은 당시 최씨 도공이 많았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중요한 자료로 보여진다.

굽은 주로 평저 안다리굽이며 변형 해무리굽을 가진 자기들도 다량 수습되었다(사진 158, 159-②, 160-③, 그림 12-②-③, ⑤, ⑧). 이 백자는 내화토를 부분적으로 혹은 전 굽에 발라 갑발 안에 넣거나 갑발을 뒤집어 평평한 바닥면 위에 올려놓고 겹쳐 구웠다(사진 151, 152).

이 도요지 주변에서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어골문의 기와편들이 함께 수습되었다(사진 171).

결론적으로 이 상반도요지는 11세기 중엽까지 존재했던 고려백자 도요지 중 하나이다. 이 도요지는 그 규모나 유물의 성격으로 보아 호암미술관에서 발굴한 바 있는 고려백자 도요지와 같은 시기의 주요 요지 중 하나였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요지는 계속 파괴되고 있고 주민들에 의하면 골프장이 들어선다는 말도 떠돌고 있어 중요한 유적인 만큼 적당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 西里 하반곡 산포지(사진 169)

① 시대 : 고려시대-조선시대

② 유적의 위치와 현황

이 산포지는 하반곡에 진입하는 초입의 오른쪽 야산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이 야산은 공동묘지로 사용되고 있다.

③ 유물

그 일대의 야산을 조사한 결과 고려시대 토기편, 갑발편, 합편(사진 171)과 조선시대의 인화문분청사기편, 백자편, 토기편(사진 172, 173) 등이 발견되었다. 결국 이 산포지는 고려시대 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7) 西里 하반 삼막골 조선시대 토기산포지(사진 174)

① 시대 : 조선시대

② 유적의 위치와 현황

이 유적은 서리 하반곡 석실분을 찾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는데 길을 내는 과정에서 야산의 자락이 깎여 단면이 드러나 있다. 이 단면상에 길이 1.2m, 높이 80cm의 숯가마와 유사한 유구가 발견되었다. 단면상에 토기편과 함께 숯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사진 175, 176).

③ 유물

이 유구의 주변에는 복원이 가능한 조선시대의 3점의 시루 저부가 발견되었다(사진 177-179). 한 시루는 대상파수가 달린 연질토기이다(사진 180, 그림 15-①). 나머지 2점은 회색 경질토기로서 용인의 여러 지점에서 발견되는 전형적인 토기편들과 같은 것이다(사진 181, 182, 그림 15-②-③). 그 밖에 이 유적 주변에는 같은 시기의 토기편, 시루편들이 수습되었다(사진 183, 그림 15-④). 이러한 유구는 그리 흔하지 않은 것으로서 앞으로 이에 대한 정밀 조사에서 그 성격을 규명해 볼 가치가 있는 지점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산포지의 주변에서는 고려시대의 갑발, 대형 대접편, 기와편 등도 널리 산재되어 있다(사진 184-186, 그림 15-⑤).

8) 泉里 구수동 구석기시대 유적(사진 187)

① 시대 : 구석기시대

② 유적의 위치와 현황

이 유적은 해발 306m의 함봉산 동편 끝자락에 위치한 용인시 용인읍 천4리 구수마을에 형성되어 있는 구석기 유적이다. 이 유적의 앞에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소하천이 있

고 이 소하천은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진위천으로 흘러들어가 합류한다. 결국 이 유적은 이 두강을 끼고 있는 언덕에 형성되어 있다. 이 언덕은 현재 일화공장의 뒤편에 형성되어 있는데 현 일화공장 자리는 이 하천들에 의해 형성된 충적대지였으며 그 지역에 선사시대 유적이 있을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공장 건립으로 인하여 거의 모두 파괴되었다. 다행히도 충적대지로부터 떨어져 있는 언덕에 이 구석기시대 유적이 형성되어 있어서 파괴되는 위기를 모면했다. 이 유적의 반대편에는 그다지 높지 않은 언덕이 있고 하천활동으로 인한 충적대지가 활발하게 발달하여 있다.

이 유적의 토양은 용인지역에 보편적으로 보이는 적갈색의 丘陵殘積土로서 이는 화학 풍화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비로 인하여 깊게 파여 있는 이랑에 일부 노출된 토양의 단면 상태는 粗砂 함량이 많은 사양토이다.

이 유적에 다량의 자기편과 토기편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의 집터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경작지로도 사용되고 있어서 객토를 하거나 휴무스층이 4기층과 뒤섞였던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4기층의 전형적인 토양색인 적갈색의 선명도는 현저하게 떨어진다.

2,000평에 달하는 넓은 곳에 형성되어 있는 이 유적 역시 그 동안 한반도 전역에 분포하는 짚개전통의 유적들처럼 짚개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③ 유물

이 유적에서는 주로 석영재 자갈들을 석재로 사용하였다. 발견된 유물은 주로 짚개이며 격지에 잔손질이 가해진 격지석기들도 발견되었다. 이 유적에서 몸돌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3점의 격지가 발견되었다(사진 188).

㉠ 짚개-몸돌 9.4cm, 12.1cm, 8.3cm(사진 189, 그림 16-①)

이 석기는 마모정도가 불량한 육성 자갈들에 가까운 석재를 활용하여 짚개를 만드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이 석기는 한쪽 넓은 자연면을 타격면으로 하여 3가장자리를 돌아가며 박리하였다. 원래 석질 자체가 잘 부수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도 더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버려진 듯 하다. 하지만 단순히 자연면을 타격면으로 하여 전 주위를 돌아가며 박리하고 특히 좁은 측면을 박리한 것으로 보아 측면 몸돌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한 이 석기는 짚개나 다원구형 석기를 만들때 처음 이루어지는 기술적인 성격을 밝히는 데도 중요한 석기이다.

㉡ 짚개 7.1cm, 8.4cm, 5.2cm(사진 190, 그림 16-②)

이 석기는 백석영 자갈들을 석재로 선택하여 평면한 양면을 타격면으로 이용하여 전 부분을 돌아가며 양면에서 박리를 가하여 만든 뾰족날 짚개이다. 대각선 박리와 수직박리를 겸

하여 타격하였으며 타격 각도는 60~110도로 다양하다. 손잡이 부분은 두터우며 뾰족한 끝 부분으로 갈수록 좁아진다.

㉞ 짝개 10.2cm, 12.0cm, 7.0cm(사진 191, 그림 16-③)

이 석기는 사암 강자갈들을 석재로 사용하여 한편의 평평한 자연면을 타격면으로 해서 크고 작은 박리를 가해 만든 뾰족날짜개이다. 박리는 주로 수직에 가까운 박리를 가하였다. 박리는 두지점에 집중되었는데 가운데 볼록한 부분을 남기기 위한 목적을 가진 박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기술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 석기는 완성된 상태는 아니라고 보여진다.

㉟ 짝개 11.9cm, 6.4cm, 5.8cm(사진 192, 그림 17-①)

이 석기는 석영계 자갈들을 석재로 사용하였는데, 박리하는 과정에서 절리면을 따라 크게 떨어진 원석을 석기제작에 이용한 가로날짜개이다. 이 석재의 가로날부분에 몇 차례에 걸친 간단한 박리로 날을 조성하였다. 이 날 부분 이외의 여러부분에 박리 흔적이 보이나 석기를 만드는 목적과는 거리가 먼 박리이다. 하지만 날을 위로하였을 때 오른쪽 가장자리 중앙에 1회에 걸친 큰 박리가 있는데 손잡이 조정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㊱ 짝개-대패 10.0cm, 6.8cm, 5.2cm(사진 193, 그림 17-②)

이 석기는 입자가 고운 석영계 자갈들을 석재로 사용하여 장축의 두 가장자리를 박리하여 다목적용으로 만든 짝개-대패용 석기이다. 우선 이 석기는 우리나라 짝개의 손잡이 부분을 만들때 자주 사용하는 둔각의 박리각도를 이용한 손질이 자연면을 타격면으로 하여 전 가장자리를 돌며 이루어졌다. 아마도 그 과정에서 중간조음 가로로 반파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원석의 반파된 가장자리는 날카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조정으로 날을 만들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 아마도 이를 이용한 듯하다. 따라서 그 반파된 절리면을 다시 타격면으로 하여 원석을 뒤집어 놓고 수직으로 타격하여 대패날을 만들었고 그 반대쪽은 손잡이부분에서 둔각으로 박리하여 생긴 박리된 면을 타격면으로 하여 절리된 부분으로 수직박리를 하였다. 이 석기는 원개 둥근 형태의 짝개나 다원구형 석기를 만들고자 하였으나 불순물로 인하여 반파되면서 다른 형태의 석기를 만든 좋은 예이다. 대패날 부분은 세형몸들의 원시형인 측면몸들을 연상하게 하여 앞으로 연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㊲ 짝개 6.1cm, 6.2cm, 6.2cm(사진 194, 그림 17-③)

이 석기는 마모 정도가 불량한 백석영의 강자갈들을 이용하여 원추형에 가까운 뾰족날짜개이다. 먼저 손잡이 부분에 해당하는 아래쪽의 두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깊은 방사상 박리를 하여 거의 사각에 가까운 낮은 피라미드형을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두 부분과 자연면을 타격면으로 이용하여 다시 그 반대로 크고 작은 깊은 타격을 시도하여 뾰족한 끝 날을 만들었다. 이 석기는 기술-형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㉔ 굽개 4.1cm, 3.7cm, 2.6cm(사진 195, 그림 17-④)

이 석기는 육성으로 다듬어진 석영제자갈들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가지고 그 한쪽 가장 자리에 2번에 걸쳐 박리를 하였고 그 반대날은 1회에 걸친 큰 잔손질을 베푼 굽개이다. 두 날은 직선이며 평행하다.

9) 泉里 구수동 자기산포지(사진 187)

① 시대 : 조선시대

② 유적의 위치와 현황

이 유적은 천리 구수동 구석기유적과 같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으나 구석기유적보다는 더 넓은 지역에 유물이 산포되어 있다.

③ 유물

이 산포지에는 구석기시대의 유물과 함께 다수의 조선시대 백자 저부, 토기류들이 수습되었다. 이 산포지에서 나온 여러 자기편들은 이 지역의 생활 자기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다. 주로 발견된 유물로는 백자 대접편, 접시편, 단지편 등이다. 또한 이 산포지에서 잘 만들어진 단지의 구연부편을 비롯한 상감분청사기 편들도 수습되었다(사진 196, 그림 18-①).

발견된 백자(사진 197-201, 그림 18-②-⑪, ⑭)는 주로 굽이 높은 대마디굽과 안다리굽을 가진 것으로서 굽은 모래받침을 하여 구운 것이 대종을 이룬다. 또한 굽이 높은 대접들도 많이 보인다. 이들중 일부는 외반되어 있는 것도 있다. 유약은 대체로 잘 시유되어 있으며 약한 청백색을 띠고 있다.

이외에도 조선시대의 늦은 시기에 발견되는 흑유자기와(사진 202-①, ②, 그림 18-⑫, ⑬) 순백색의 대형 접시(사진 203, 그림 18-⑮)가 수습되었는데, 이 중 대형 접시는 이번 지표조사에서 처음 발견된 것으로서 약간 위반된 잘 다듬은 굽과 정선된 태토, 잘 만들어진 기형으로 보아 主窯에서 구운 것으로 보여진다. 이 접시와 함께 굽이 잘 다듬어져 있는 좋은 백자들도 수점 수습되었다.

이 산포지의 또 하나의 특징은 다량의 토기류들이 발견되었다는 점이다(사진 204-205, 그림 19-⑯-㉔). 이들은 주로 항아리와 시루편들이다. 이러한 유물은 이 산포지가 주거유적이었다는 점을 반증해 준다.

10) 노곡 백자도요지 I(사진 206)

① 시대 : 조선시대

② 유적의 위치와 현황

노곡도요지는 용인시에서 천리로 내려가는 길에 아미원이라는 음식점을 지나 우측으로 두 계 이병도 선생의 생가 쪽으로 들어가서 그 길을 따라 1.5km 올라가면 은어어장이 나온다. 이 은어어장에 100여 미터 못 가서 최근 만든 묘들이 산재해 있는데 그 앞 밭 일대에 유물이 산포되어 있다(사진 207). 이 도요지는 아마도 무덤을 쓰기 위해 포크레인으로 길을 내는 과정에서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사진 208).

③ 유물

이 도요지에서 발견된 자기의 굽은 주로 안다리굽이며 태토비집받침으로 여러겹으로 겹쳐서 구웠다(사진 209-222, 그림 20-①-⑭). 또한 모래받침을 하여 구운 자기편들도 보인다(사진 220). 도지미도 상당수 발견되었는데 주로 원형의 도지미를 주로 사용하였다(사진 253). 유약은 하단으로 갈수록 거칠게 처리되어있거나 미처 바르지 않고 구운 것이 많이 보인다.

자기에는 자주 도요지의 벽에서 떨어져 생긴 찌꺼기들이 붙어서 발견되는 예가 많았는데 이는 당시 요지 안쪽의 보수 상태가 부실하여 생긴 현상으로 보인다(사진 224).

노곡도요지 주변에는 조선시대의 백자편 이외에도 수점의 분청사기편도 수습되었다(사진 225). 또한 고려청자 초기에 나타나는 녹청자계통의 편들도 수습되었다(사진 226, 그림 21-①).

또한 다량의 토기편들도 수습되었는데 주로 향아리와 시루의 구연부 및 저부편이 발견되었다(사진 227, 그림 21-②-⑥).

이 도요지는 자기의 성격으로 보아 16~17세기경의 것으로 보이며 녹청자편이나 분청사기편은 그 수량이 많지 않아 정확한 성격을 규정하기 어렵다. 다만 이 도요지의 주변에는 지금도 많은 묘들이 모여 있어 묘를 만드는 과정에 파괴된 고분에서 노출된 것일 가능성도 높다.

11) 노곡 백자 도요지 II(사진 228)

① 시대 : 조선시대

② 유적의 위치 및 현황

이 도요지는 노곡도요지 I에서 내려와 좌측으로 나있는 산길로 1km여 들어가면 오른편에 넓게 평지가 만들어져 있다. 아마도 그 과정에서 이 도요지가 파괴된 듯하다. 그 도요지의 앞에는 작은 계곡이 흐른다.

③ 유물

이 도요지에서는 산만하게 흩어져 발견된 백자편들이 주를 이루며 성격은 노곡도요지 I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굽은 안다리굽이며 진흙비짐받침, 조립 모래받침을 이용하여 자기를 구웠던 흔적을 볼 수 있다(사진 230, 그림 22-①-②).

이 지점에 도요지가 있었다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가마벽의 파편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사진 229). 가마 안쪽 면에는 백토를 바른 흔적이 보인다. 이 백토는 자기를 구울때 열손실을 막기위하여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 도요지와 자기의 성격으로 보아 이 요지 역시 16~17세기에 노곡도요지 I과 같은 시점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2) 西里 중덕골 고려백자요지⁴⁵⁾

1960년대에 鄭良謨(國立博物館 館長)에 의해 처음 발견된 이 요지는 호암미술관에 의해 1984년에 발굴하여 1987년 1차로 보고한 고려백자 요지이다.

13) 西里 하반곡 석실분⁴⁶⁾

보고서에 의하면 용인읍 서리 하반에는 횡구식 석실분 2기가 있다. 석실분의 외형은 봉분의 높이 230cm, 직경 5m 정도이다. 입구부분을 제외한 삼벽이 30cm×10cm 크기의 활석으로 2-3단 쌓여 있다. 단벽인 북벽은 수직으로 축조되었으나 장벽인 동서벽은 내향만곡하여 정적폭과 바닥폭이 20cm차이가 있다. 천정마무리는 판석 수매를 이용하였으나 북단과 남단에 각각 1매씩 남아있을 뿐이다. 석실의 규모는 140cm×75cm×65cm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45) 李種宣·金載悅·朴淳發, 1987, 《龍仁西里高麗白磁窯 發掘調查報告書 I》, 湖巖美術館.

46) 李秉模·沈光注·許美經, 1986, 《京畿道百濟文化遺蹟》, 漢陽大學校, 京畿道: 126-128.

국립중앙박물관, 1988, 《新岩里 I》,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20책: 80

이들 석실분을 찾을 수 없었다. 한 기는 길을 내는 과정에서 파괴된 것으로 보이며 다른 한 기는 숲이 우거져 보이지 않아 찾을 수 없었다. 다만 길가에 위치한 산사면을 별목하여 놓은 지점에는 개석으로 보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李)

15) 德成里 구석기시대 유적(사진 97)

① 시대 : 구석기시대

② 유적의 위치 및 현황

용인에서 송전으로 가는 45번 국도를 따라가다 왼쪽에 있는 현대종합물산(주)의 뒤쪽의 넓은 밭 일대이다. 이 지역은 振威川에 의해 형성된 단구면에서 여러 점의 석기를 수습할 수 있었다.

③ 유물

㉠ 석영제 석핵(사진 98, 그림 34-①)

위 아래 반반한 면을 이용하여 주위를 돌아가며 두 개의 박편을 떼어내고 있다.

11.6cm 10.2cm

㉡ 규암제 석핵(사진 99, 그림 34-②)

주위를 돌아가며 위 아래로 쳐서 박편을 떼어낸 전형적인 석핵이다.

10.1cm 8.9cm

㉢ 석영제 석핵(사진 100, 그림 34-③)

소재를 바닥에 놓고 가격함으로써 양극기법(bipolar)의 효과가 났던 것으로 보인다. 석기의 한 면은 그대로 윗면에 남아있는데, 여기에는 바스러진 흔적이 남아 있어 석핵으로서 기능이 끝난 뒤 망치돌로 쓰였을 것으로 보인다.

8.8cm 7.2cm

16) 德成里 조선백자산포지(사진 109, 110, 그림 44-⑨)

① 시대 : 조선시대

② 유적의 위치 및 유물

덕성리 구석기시대 유적의 서쪽에 위치하며 45번 국도 상의 덕성교 오른쪽의 밭일대에서

분청사기 대접의 굽편과 갑발편을 수습하였다. 태토에는 불순물이 섞여 있어 거칠며, 유도 치밀하지 못하고 곳곳에 흠집이 있다. 굽다리는 거의 파손되었으나, 직립에 가까운 형태를 하고 있다. 그릇 안쪽에는 내저원은 없으나, 태토는 받침자국이 남아 있다. 추정저경은 7.2cm, 굽높이 0.8m, 두께 0.7cm 가량 된다. 이와 함께 수습된 갑발의 크기는 지름 20.0cm, 두께 1.2cm 가량 된다.

17) 德成里 一段有柄式 磨製石劍⁴⁷⁾

이동면 덕성리 뒷산에 수습한 유물로, 1965년 산사태로 유실된 흙더미속에서 발견하였다고 하며, 길이는 20cm정도로 칼끝은 파손되었다. 몸통의 등날은 자루까지 이어지며 단면은 몸통과 자루 모두 마름모형이다. 석질은 요석으로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18) 泉里 삼국시대 토기산포지(사진 101, 102, 그림 43-④)

① 시대 : 삼국시대

② 유적의 위치 및 유물

泉里 원천마을 뒤편의 골짜기의 맨 끝 부분에 위치하는 밭에서 수습한 회백색 연질 토기 병의 구연부 및 경부편이다. 태토는 매우 정선되어 있다. 이 토기를 수습한 주변은 모두 검은 비닐로 덮여 있어서 회색연질토기의 동체부편 몇 점외에는 수습할 수 없었으나, 삼국시대의 토기편이 산재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추정구경 7.1cm, 현재높이 3.6cm, 두께 0.7cm

19) 墨里 적동 통일신라시대 토기산포지(사진 103)

① 시대 : 통일신라시대

47) 용인군지편찬위원회, 1994, 《용인군지》

문화재관리국, 1977, 《문화유적총람》

이인영 편저, 1986, 《내고장의 얼》, 용인문화원

② 유적의 위치 및 현황

용인에서 송전으로 가는 45번 국도를 따라 가다가 좌회전하여 龍德貯水池로 가는 길을 가다보면 적동 마을이 나온다. 적동마을에서 옆티쪽을 가는길로 좌회전하여 올라가면 라이프 아파트 뒷편에 골짜기가 있는데, 골짜기의 왼편 산자락 일대에서 통일신라시대에 해당되는 토기편들을 다수 수습하였다.

③ 유물

㉠ 외반구연호 구연부편(사진 104-①, 그림 44-①)

단경호의 구연부로 녹색의 자연유가 남아 있어 표면이 반들반들하다. 경부는 자연스럽게 외반되어 구연부와 이어지고 있으며, 구단부는 둥글게 마무리되어 있다. 점토질 태토에는 고운 모래가 약간 섞여 있으나, 소성도는 매우 높다.

추정구경 12.8cm, 현재높이 2.7cm, 두께 0.6cm

㉡ 동체부편(사진 104-②, 그림 44-②)

회청색 경질토기로 태토에는 굵은 모래가 섞여 있으며, 겉면에는 한 줄의 들대가 붙어 있고, 안쪽 면은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는 동체부편이다. 대체로 삼국시대말 통일신라시대의 토기편으로 보인다. 현재 남아있는 부분의 가로 7.8cm, 세로 5.0cm, 두께 0.7cm

㉢ 동체부편(사진 104-③, 그림 44-③)

회청색 경질토기로 겉면에는 녹색의 자연유가 일부 탈락되기는 하였으나 잘 남아 있다. 태토는 정선되어 있으나, 기벽 안쪽에 기포가 생긴 것들이 눈에 띄며, 토기편 내부에는 물레질 자국이 뚜렷하다. 현재 남아있는 부분의 가로 7.6cm, 세로 4.9cm, 두께 0.5~1.0cm

㉣ 파상문토기 경부편(사진 105-①, 그림 44-④)

회청색 경질토기 장경호의 경부편으로 표면에는 두 줄의 파상문이 한 줄의 침선을 사이에 두고 시문되어 있다. 태토는 매우 정선되어 있으며, 내면에는 물레자국이 남아 있다. 벽심은 회청색의 표면과는 달리 적갈색을 띤다.

현재 남아있는 부분의 가로 9.2cm, 세로 5.8cm, 두께 0.8cm

㉤ 병 구연부편(사진 104-②, 그림 44-⑤)

통일신라시대 토기중 대표적인 기형 중의 하나인 반구병의 구연부편으로 구단부를 제외하고는 적갈색의 자연유가 잘 남아 있다. 구단부에는 세 줄의 침선이 돌아가며 구단부 아래에는 성형시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기포가 부풀어 올라 있다.

추정구경 13.5cm, 현재 높이 3.9cm, 두께 0.8cm

20) 墨里 적동 조선백자 요지(사진 106)

① 시대 : 조선시대

② 유적의 위치 및 현황

목리 적동 백자요지는 목리 통일신라시대 토기 산포지 바로 맞은 편의 옥수수밭일대로 이 요지 역시 현재로서는 그 구조를 추정할 수 없으나, 주변에 산포된 백자, 도검이, 요벽 등을 통해서 백자 요지임을 알 수 있다.

③ 유물

적동에서는 많은 양의 15~16세기 경의 백자편들과 도검 등이 수습되었는데, 대부분은 대접류이다. 대부분 태토는 치밀질로 되어 있으며, 유도 치밀하고 매끄럽게 시유되어 있으나, 일부 불순물이 섞여 표면이 거친 것들도 있다. 굽 바닥과 대접 안쪽 바닥에는 내화토 받침 자국이 남아 있고, 내저원은 굽지름보다 약간 크게 돌려져 있다. 많은 양의 도검도 함께 출토되었는데, 대부분 지름 9~10cm, 두께는 4~5cm가량된다. 보고된 대접류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 대접 구연부(사진 107-②, 그림 44-⑥)

구경 13.8cm, 두께 0.4cm

㉡ 대접 저부(사진 108-①, 그림 44-⑦)

저경 6.3cm, 굽높이 0.8cm, 두께 0.6cm

㉢ 대접 저부(사진 108-②, 그림 44-⑧)

저경 6.5cm, 굽높이 0.9cm, 두께 0.6cm (吳)

11. 南四面

1) 完庄里 자기산포지(사진 231)

① 시대 : 조선시대

② 유적의 위치 및 현황

이 유적은 하반곡에서 남사면쪽으로 계속 넘어오다 보면 완장리에 접어들게 되는데 그 초입에 그린산업이 있다. 이 산포지는 그린산업 뒷밭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아마도 작은 언덕에 산재해 있던 조선시대의 분묘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산포지는 최근 들어 이곳에 泗川金公의 墓와 潘南朴氏 墓群을 만들때 이 고총들이 파괴되면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③ 유물

이 유적에서는 주로 백자편들이 발견되었고 분청사기편과 토기편이 수습되었다.

토기편들 속에 1점의 통일신라시대의 甁의 구연부편이 발견되었다. 목 부분에는 선조문이 시문되어 있는 회색경질토기이다(사진 237-①, 그림 23-⑳).

백자편은 대접, 접시, 종지류가 수습되었다(사진 232-235, 그림 23-①-⑧). 굽은 17세기 후반부터 두드러지게 보이는 안굽이 주를 이루며 대마디굽은 보이지 않는다. 굽에는 조질 모래받침을 한 흔적이 뚜렷하다. 대접의 굽은 대체로 낮다. 그러면서도 굽의 높이가 1.5cm에 이르는 높은 굽을 가진 자기도 수습되었다(사진 235, 그림 23-⑦-⑧).

분청사기편도 2점 수습되었는데, 주 문양은 인화성령문이다(사진 236, 그림 23-⑨). 토기편은 평저의 시루종류가 주종을 이룬다(사진 237-②~⑦, 238, 239, 그림 23-⑩-⑰).

이 산포지는 주로 수습된 백자나 분청사기의 성격으로 보아 대략 16세기에서 18세기경의 유적으로 추정된다.

2) 衛谷里 자기산포지(사진 240)

① 시대 : 조선시대

② 유적의 위치 및 현황

이 산포지는 처인성 맞은편 개릉동 뒤 야산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앞으로 완장천이 흐른다.

③ 유물

이 산포지에서 발견된 자기들은 대접, 제기, 종지 등이며, 토기류 등도 수습되었다(사진 241, 242, 그림 22-③-⑧). 주로 굽은 모래받침을 하여 구웠으며 안다리굽, 삼각형다리굽, 대

마디굽이 주를 이룬다(사진 241, 그림 22-③-④). 한 제기편은 외반된 다각형의 굽으로 되어 있고 굽은모래받침을 하여 구웠다. 유약은 전 부분에 잘 시유되어 있다(사진 241-①, 그림 22-②). 이러한 자기들은 주로 조선시대 후기 즉 18세기경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3) 鳳舞里 도장골 구석기시대 유적(사진 243)

① 시대 : 구석기시대

② 유적의 위치 및 현황

이 유적은 용인시 남사면 봉무리 도장골 일대에 형성된 구석기 유적이다. 유적의 앞에는 진위천으로 흘러들어가 합류하는 소하천이 흐르고 그 하천의 우측 도로변에 형성된 언덕에서 석기들이 발견되었다(사진 245). 이 언덕은 하천에 바로 면하고 있어서 충적대지가 없이 바로 소하천에 접해 경사지게 형성되어 있다. 하천의 좌측 즉 유적의 반대편에는 야산이 있고 그 아래에는 하천의 범람으로 인한 충적대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가파른 산사면이 이 충적대지에 바로 면해 있다.

도로를 내는 과정에서 강에 면해있던 구릉 자락은 잘려 나갔는데 그 한편에 화강-편마암계의 기반암이 노출되어 있다(사진 244). 이 유적의 토양은 용인지역에 보편적으로 보이는 적갈색의 丘陵殘積土로서 이는 화학침식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일부 노출된 토양의 단면 상태는 粗砂 함량이 많은 사양토이다.

이 유적에는 역시 낮은 언덕이 이 유적을 따라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 유적에서부터 강줄기를 따라 100여 미터 내려가는 지점에 농협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 뒤에 최근 건축하기 위하여 단면을 깎아 놓은 지점이 있다(사진 246). 이 지점에는 도장동 유적에서 보이는 동일한 토질 구성을 보이고 있다. 이 지점에 공사를 위해 깎아놓은 단면에는 4기의 고토양 퇴적층이 있다. 언덕의 위부분에는 80cm가량 퇴적된 퇴적층의 성격은 화학침식작용으로 부수어진 粗砂가 많은 육성층이고 기반암반과 면한 지점에 소량의 소형 자갈돌들이 노출되고 있다. 또한 경사진 면에 퇴적된 토양의 특징은 기후변화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국부적인 퇴적과정을 통해 층위를 형성한 퇴적양상을 보인 사면 붕적토이다. 하천의 범람과정에 의한 퇴적의 흔적은 그다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퇴적층과 맞닿아 있는 풍화대의 상층에는 황색을 띠고 있으며 부식토와 함께 섞여 있어 화학풍화과정의 한 단면을 알 수 있다.

이 기반암을 피복하고 있는 퇴적층은 하천활동의 미비함과 풍부한 화학풍화작용을 일으킬 만큼 큰 산이 주변에 없어서 인지 30-80cm정도의 얇은 퇴적층이 형성되어 있다. 이 단면을 통

하여 현재 형성되어 있는 언덕과 계곡의 형태는 기반암의 형태와 일치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이 유적의 지질학적 특성은 앞에서 설명한 다른 구석기시대 유적과 비교하여 그다지 다르지 않다고 보여진다.

이 유적의 넓은 단구성 구릉에는 寺址가 있어서 상부의 퇴적이 상당수 파괴되었다. 현재 유물이 수습된 언덕에는 아직 적갈색의 원지층이 남아있다. 이 지점에서 2점의 찌개가 수습되었다. 이 단구성 언덕의 사이에는 오랫동안 진행되어온 화학침식작용에 의해 계곡들이 생겼고 그 아래에는 소형의 扇狀地가 형성되어 있다.

③ 유물

대부분의 석재는 석영계 강자갈돌로 사용되었으며 산에서 형성된 육성 석영맥암, 석영암은 석기를 제작하는데 사용되지 않았다. 한점의 석재는 하천에서 수습되어 옮겨 온 것으로서 첫째, 원형에 가까우며 둘째, 평편한 타격면을 가지고 있다. 이 석재는 기술적으로 찌개, 다원구형 석기와 몸돌을 만들기 위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하천에서 분리 수습되어 현 유적의 위치로 옮겨온 것이다.

㉠ 몸돌 9.2cm, 11.1cm, 7.1cm(사진 247, 그림 24-①)

이 몸돌은 화강암계통의 석재를 활용하여 자연면을 타격면으로 이용하여 거의 수직에 가까운 박리를 가하여 격지를 떼어내었다. 이 몸돌의 뾰족한 끝에 격지를 박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듯한 양극 현상이 일부 보인다. 하지만 이것이 사용과정에서 생긴 것인지는 동일 석기에 대한 발견과 관찰을 통해서 보다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 몸돌 8.3cm, 9.9cm, 9.0cm(사진 248, 그림 24-②)

원형에 가까운 석재를 선택하여 평평한 원석의 한쪽 면을 타격면으로 활용하여 수직으로 1회 타격하여 격지를 떼어내었다. 타격면과 박리면의 각도는 $80^{\circ}\sim 110^{\circ}$ 이다. 하지만 이 몸돌은 재질이 좋지 않아 오랫동안 박리에 사용되지는 않았다. 이 몸돌은 박리하는 과정이 어떠한가에 따라 다원구형 석기나 찌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형태를 갖고 있다.

㉢ 찌개-몸돌 9.9cm, 8.3cm, 7.7cm(사진 249, 그림 24-③)

원형의 석영계 자갈돌을 선택하여 한편의 약간 대각선으로 기운 자연면을 타격면으로 활용하여 수직으로 3회 박리하여 비교적 날카로운 날을 만들었다. 다시 이미 박리된 면(facet)을 타격면으로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기운 타격면을 측면에 다시 만들어 그 면을 다시 타격면으로 이용하여 3회 박리를 통하여 수점의 돌날격지를 떼어내려 하였다. 아직 이유적이 정식으로 발굴되지 않아 이것이 격지를 박리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이었는지 아니면 석기를 제작하기 위한 버리는 석재인지는 아직 결정할 수 없다. 이러한 박리기술과정을 돌날을

떼어내기 위한 예비몸돌과 맥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이와같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다분히 석기제작에 의한 면과 돌날형 격지를 떼어내기 위한 기술적인 흔적을 동시에 찾을 수 있어서 주목된다.

㉔ 짝개 11.1cm, 9.2cm, 5.5cm(사진 250, 그림 25-①)

두께 5.5cm의 비교적 평평한 규암을 석재로 활용하여 석기를 제작하였다. 박리 방법은 거의 60°~90°에 가까운 강한 타격에 의해 양면에서 박리를 시도하여 여러 작업날을 만들었다.

이 유적에서 발견된 구석기시대의 유물은 2점의 몸돌, 2점의 짝개이다. 주변에서 보이는 유적의 파괴정도로 보았을 때 유물의 발견량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은 아마도 이 지점이 용인지역에 산포되어 있는 다른 구석기시대 유적처럼 臨時住居遺蹟(living floor)의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또한 석기를 제작하는 가운데 산출되는 격지들이 드물게 발견되고 있다. 이것이 이 유적이 석기제작소가 아니었다는 증거인지는 발굴결과에서 밝혀야 할 것이다.

4) 鳳舞里 도장골 청동기시대 유적(사진 251)

① 시대 : 청동기시대

② 유적의 위치 및 현황

1점의 석부가 이 구석기시점과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밭에서 발견되었다. 하지만 다른 공반된 유물이 없어서 신석기시대 후기의 것인지 청동기시대의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다.

③ 유물

① 마제석부(사진 252, 그림 25-②)

이 석부는 화강암 계통의 석재를 활용하여 한편의 전면과 한 측면의 전면이 마연되어있으며 그 반대편은 날의 일부분만 마연되어있는 함인형 석부이다. 석부는 반파되어 있다. 석부의 날에는 사용한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있다.

5) 鳳舞里 도장골 사지(사진 253)

① 시대 : 조선시대

② 유적의 위치 및 현황

봉무리 도장골 구석기시대의 유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단구성 구릉지 바로 옆에

사지가 있었다고 한다.

③ 유물

상당수의 조선시대 와당편과 자기편(대접, 접시 등)이 주로 산포되어있다. 그밖에 초기청자편, 분청사기편 그리고 토기류들도 몇점씩 수습되었다.

이 산포지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은 초기청자 구연부편이 수습된 것이다(사진 254-(1), 그림 26-①). 이 청자의 편은 월주요계통의 것으로서 기벽이 얇고 정선된 태토를 사용하였다. 기벽은 황갈색에 가깝다. 김재열에 의하면 이러한 청자는 해부리굽이 나오는 청자보다 이른 시기의 것으로서 용인 서리의 최하층에서 발견되는 것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 청자편은 대략 9세기 중엽의 초기 청자로 보인다. 이러한 초기청자보다 거친 청자편도 함께 발견되어 용인지역에 가장 이른 시기의 청자의 제작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으며 그러한 청자는 점차 고려백자로 변형되는 양상을 갖게 되는 것이다(사진 255-(2), 그림 26-②). 이러한 발전과정은 서리 중덕골 고려백자요지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나 봉부리 사지에서 초기청자와 같은 계통의 청자편이 발견되어 주목된다.

이 산포지에서는 분청사기들도 보이는데 주로 인화문분청사기와 귀얄문을 남긴 분청사기편이 주로 수습되었다(사진 255-256, 그림 26-③).

이 산포지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자기는 백자들로서 접시, 대접, 종지류이다(사진 257-260, 그림 26-④-⑩). 자기는 굵은 모래받침과 가는 모래받침에 받쳐 구웠다. 굵은 안다리굽, 대마디굽, 삼각형굽이 대부분이다. 유약의 처리는 불량한 편이고 기공이 많은 것들이 주로 발견된다. 하지만 백자중 外反의 안다리굽을 가지고 있으며 아주 정선된 태토에 잘 구워진 백자 접시도 발견된다(사진 260, 그림 26-⑩). 5,000평이 넘는 이 산포지 전역에 개간하는 과정에서 잘게 부수어진 와당편들도 산재해 있다(사진 262). 토기의 저부와 파수도 1점씩 수습되었다(사진 261, 그림 26-⑪-⑫).

그러므로 이 지점에는 고려시대의 아주이른 시기 즉 9세기경부터 사람들이 살았을 것으로 보이며, 분청사기로 보아 조선시대 초기 즉 15~16세기경에도 이곳에 사람들이 거주했었다. 사지는 발견되는 기와편과 자기편으로 보아 아마도 조선시대 말기의 것으로 보인다.

6) 鳳舞里 기와집말 자기산포지(사진 263)

① 시대 : 조선시대

② 유적의 위치 및 현황

이 유적은 봉무리 도장골 구석기유적에서 구릉을 따라 내려가다보면 기와집말이 나오는데 그 일대에 자기들이 산포되어 있다.

③ 유물

이 산포지에서는 조선후기 지방가마에서 자주 발견되는 흑유자기편(사진 264, 그림 27-①)과 굽안이 깊은 대접저부편, 모래받침을 한 종지편들이 수습되었다(사진 265-268, 그림 27-②-⑦). 굽은 안다리굽, 삼각형다리굽이며 내반, 외반, 직립 등 모든 형태가 다 발견된다. 유약을 대체로 잘 시유되어있으나 간혹 바닥과 굽에 시유되지 않은 것도 있다. 색은 역시 약간 청색빛을 띤 백색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자기들은 조선시대 후기 것으로 보인다.

7) 鳳舞里 농협창고 뒤 자기산포지(사진 269)

① 시대 : 조선시대

② 유적의 위치와 현황

이 산포지는 기와집말로부터 계속더 내려가다보면 봉무3리 농협창고가 나오는데 그 뒷 야산 일대에 위치한다.

③ 유물

이 산포지에서는 분청사기편, 백자편이 상당수 발견되고 있다. 발견된 자기편 중에서 조선시대 초기의 상감분청사기 1점이 수습되었다(사진 270, 그림 27-⑧). 이 분청의 안쪽에는 연판문, 약화된 당초문, 고려청자에서 많이 나오는 여의두문 등이 남아있다.

이 산포지에서 발견된 자기들은 주로 굽은 모래받침과 태토비집받침을 이용하여 구웠다. 굽은 대마디굽, 안다리 굽이다(사진 271, 그림 27-⑨-⑪). 이 자기들은 조선시대 중기에 해당하는 것들로 보인다.

8) 奎宮里 통일신라시대 토기도요지(사진 272)

① 시대 : 통일신라시대

② 유적의 위치 및 현황

요지로 추정되는 이 유적은 전궁리 26번지 뒤 언덕에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점은 삼애목장의 한쪽 끝에 위치하고 있으며 목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상당수 파괴된 것으로 보인다. 유물이 산포되어 있는 부분은 주위보다 약간 표고가 높은 지점이어서 일부 유구가 살아 있을 가능성도 있다.

③ 유물

통일신라시대의 토기편(사진 273-278, 그림 28-①-⑬), 토기도지미(사진 278-③, ⑥, 그림 28-⑭)과 함께 유약이 묻은 소도 덩어리들이 발견되고 있다(사진 281).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토기편들이 수습되었다. 흑청색경질 또는 회청색경질의 토기로는 盤口形口緣壺의 구연부, 병의 저부, 대부호의 저부 등이 있다. 이들 경질토기편에는 녹색의 자연유가 묻어 있다. 연질토기에서는 회색계통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대부완의 저부, 동이의 구연부, 대상 파수, 그밖에 격자문이 시문된 동체편들이 있다. 발견된 토기편들을 보면 우선 그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이 요지에서는 인화문토기편이 발견되지 않아서 정확한 연대추정을 할 수 없다.

9) 倉里 자기산포지(사진 280)

① 시대 : 조선시대

② 유적의 위치 및 현황

이 산포지는 창3리 화곡 노인정의 앞 밭에 위치하고 있다.

③ 유물

이 산포지에서는 백자병(사진 281, 그림 29-①)과 백자저부편(사진 282, 그림 29-②)이 발견되었다. 백자병의 구연부분은 외반되어 있어 독특하다. 이들 백자는 순백색으로 정선된 태토를 사용하여 만들었다. 백자의 형태와 제작수법으로 보아 초기백자일 가능성이 높다.

10) 元峇里 사기막골 도요지(사진 283)

① 시대 : 조선시대

② 유적의 위치 및 현황

이 유적은 원암리 2번지의 주인이 살고 있는 별장으로부터 150여 미터 정도 계곡으로 들어가 위치하고 있다. 이 지점은 행정구역상 원암리 1번지가 된다. 길이 16미터 가량되는 비교적 크고 잘 보존되어있는 백자 도요지이다(사진 284).

③ 유물

이 도요지에서 발견된 백자는 주로 대접과 접시류이다(사진 285-296, 그림 30-32). 자기들은 보통 조질 모래받침을 받쳐 구운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겹쳐져 발견되는 것들이 자주 보인다. 자기편들은 접시 혹은 대접 혹은 잔 등 각 기형에 맞도록 겹쳐서 구웠다(사진 285-287). 이 도요지에서 특별한 것은 도지미가 모두 경사져 있다는 점이다(사진 287, 297). 이 요지는 등요였으므로 도지미를 경사지게 만들어 그 위에 구울 자기를 올려놓아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기법은 11세기경 고려시대의 청자나 고려백자를 구울때 사용되었던 방법이었으나 이때에도 사용되었다.

조선시대 말기에 각 골짜기에 형성된 많은 도요지로 인하여 사기막골이라는 지명도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 도요지 역시 당시 자기의 수요가 급증하며 막사발류가 대량으로 만들어질때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자기의 제작 방법이나 형태를 보았을때 19~20세기 초에 걸쳐 사용되었던 도요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량의 자기가 채집된 지점보다 아래 층위에서 발견되었던 철화백자편이 한점 발견되었다. 이 철화백자에는 잘 그려진 죽엽문이 남아 있었다(사진 296, 그림 32-⑥). 이러한 기법은 주를 이루는 자기편들 보다 이른 시기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다 정밀한 조사를 통하여 이 도요지의 성격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도요지의 바로 앞에 별장이 지어지면서 파괴될 위험성이 높아 어떠한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할 중요한 유적 중의 하나로 보인다.

11) 倉里(창말부락)⁴⁸⁾

부락의 동쪽에 흐르는 完庄川을 지나 계곡입구에 선돌1기(검바위라 불림)가 있다. 현재 약간 기울어져 있다. 높이 250cm, 최대폭 75cm, 두께 27cm이다.

48) 李仁寧, 1986, 《내고장의 얼》, 용인문화원 : 49

국립중앙박물관, 1988, 《新岩里 I》,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20책 : 77

12) 倉里 산포지⁴⁹⁾

1969년 9월에 남사면 창리에서 국립박물관에 의해 마제석검이 발견되었다. 재질은 유문암 계통이며 형식은 이단병식이다. 양날을 예리하게 갈았는데 이가 많이 빠져 툭날처럼 되어 있다. 몸통의 단면은 납작한 볼록렌즈모양이다.

13) 鳳舞里 산포지⁵⁰⁾

남사면 봉부리 외기부락에서 1969년 7월 독무덤으로 추정되는 토기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李)

49) 李仁寧, 1986, 《내고장의 일》, 용인문화원 : 35

文化財管理局·文化公報部, 1977, 《文化遺蹟總覽》 : 277

국립중앙박물관, 1988, 《新岩里 I》,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20책 : 82-83

50) 文化財管理局·文化公報部, 1977, 《文化遺蹟總覽》 : 277

국립중앙박물관, 1988, 《新岩里 I》,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20책 : 83

V. 맺음말

매장문화재를 중심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결과를 통하여 용인은 구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 말기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시대에 걸쳐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진 중요한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최근에 더욱 발전하는 용인의 저변에 우리의 문화유적들이 파괴되어지는 불행한 일이 함께 일어나고 있고 유적파괴 정도는 매우 심각하다. 이 글을 맺으면서 이번 조사의 몇가지 의의를 정리하고 용인의 문화유산을 살릴 수 있는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은 아무래도 구석기시대 유적의 발견일 것이다. 용인 전역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총 5지점이 발견되었다. 이 유적의 지질학적인 특성은 대부분 동일한 사정으로 보인다. 이 유적의 지질학적 층위는 주변정황으로 보아 단구성 퇴적에 의한 지층형성과정은 미흡하며 모두 하천에 면해 있는 언덕의 사면의 기반암이 침식풍화작용을 겪으면서 층위가 형성된 사면붕적퇴적으로 보인다. 유물의 성격은 한반도에서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는 짝개중심의 자갈돌 석기전통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 봉무리 도장골의 구석기시대 유적과 인접한 곳에서 합인형 석부가 발견되었다. 이것은 용인이 그동안 발견된 지석묘를 동반한 청동기시대의 주요 거주지역이었다는 것을 검증해 주는 자료이다. 하지만 용인의 전 지역에 청동기시대의 유물들이 수습된 산포지들이 분포되어는 있으나 주로 우연한 기회에 유물이 수습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중요한 유적으로 발견된 예가 없었다. 그동안 이루어진 후천적인 지형변화로 인하여 매몰된 청동기시대의 유적이 앞으로 진행되는 공사 과정에서 많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 이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용인에서 통일신라시대의 토기요지가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통일신라시대의 토기요지는 사당동에서 발견된 바 있다. 이 유적은 한우물, 이성산성 등 중부지방에 형성되어 있는 통일신라시대의 주요 발견지들과 함께 비교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지역에서 상당량의 토기들을 발견되고 있지만 토기요지의 발견은 거의 없었다. 그러한 면에서 이 주변지역에 토기를 보급하는 토기요지들이 더 발견될 수 있다는 단서가 되어진다. 특히 토기요지가 있다는 점은 용인의 어느 지점에 통일신라시대의 주요 거점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한 지점에 불과한 요지이기는 하나 그 역사적인 의미는 매우 크다 하겠다.

네 번째로 중요한 발견은 서리 증곡동 고려백자 도요지의 최하층에서 발견되는 9세기경 월주요의 청자와 비견할 수 있는 것이 봉무리 도장골 사지 산포지에서 수습되었다는 점이다. 이 청자 구연부는 얇은 기벽과 정선된 태도로 빚어져 초기 청자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서리에는 증곡의 도요지 이외에 상반곡의 3,000평에 달하는 대형 고려백자도요지, 서리3리 일대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도요지까지 합하면 여러 기의 도요지가 산포하고 있다. 앞으로 상반곡 고려백자 도요지에 대한 자세한 발굴조사를 통하여 초기청자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끝으로 의미있는 것은 용인의 여러 지역에 도요지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金種九선생님과 도예가 馬順官氏에 의해 발견된 도요지만 해도 각각 20여 지점이 넘는다고 한다. 이번 지표조사에서도 조선시대 도요지만 8지점이 조사되었다. 이 도요지들이 서로 중복되는 것이라 하여도 상당한 지역에 도요지들이 산재해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용인은 주변에 중앙과 지방에 자기들을 공급하는 곳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의 도자기사의 시작은 9세기경의 초기청자로 부터라고 할 수 있으며 고려백자, 분청사기, 백자, 청화백자, 철화백자등 19세기말까지 모든 도자기를 망라하여 용인과 주변지역에 자기를 공급한 도자기사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언급했듯이 용인은 발전하는 개발도시이기 이전에 풍부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품고 있는 문화도시이다. 앞으로 21세기를 맞이하는 용인으로서는 곧 개발도시에서 정착도시로 전환되었을 때 주민과 후세들에게 용인의 역사와 문화를 알려주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처하게 될 것이다. 미래를 대비하는 의미에서라도 값진 용인의 문화유산을 개발에 앞서 보존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지금도 공장 건축이나 골프장 허가가 나는 순간 또 하나의 유적이 파괴되어질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멈추라는 의미는 아니며 현재 발견되어 있는 유적들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조사하여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유적들 중에서 발굴 및 시굴조사를 견해야 할 유적들은 구석기유적 4지점, 유운리 지석묘, 전궁리 통일신라시대 토기도요지, 서리상반곡고려백자요지, 도곡도요지, 원암리사기막골도요지 등이다. 현재 이 유적들은 모두 파괴될 위험에 처해 있다. 따라서 이 유적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당장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경기도나 용인시에서 할 수 있는 문화재 지정을 하여 파괴되는 것 만큼은 막아야 할 것이다.

용인이 문화도시로 성장하려면 이러한 중요한 유적들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하여 용인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용인을 위하여 오래 전부터 수고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용인문화원 등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李)

도면 · 사진

여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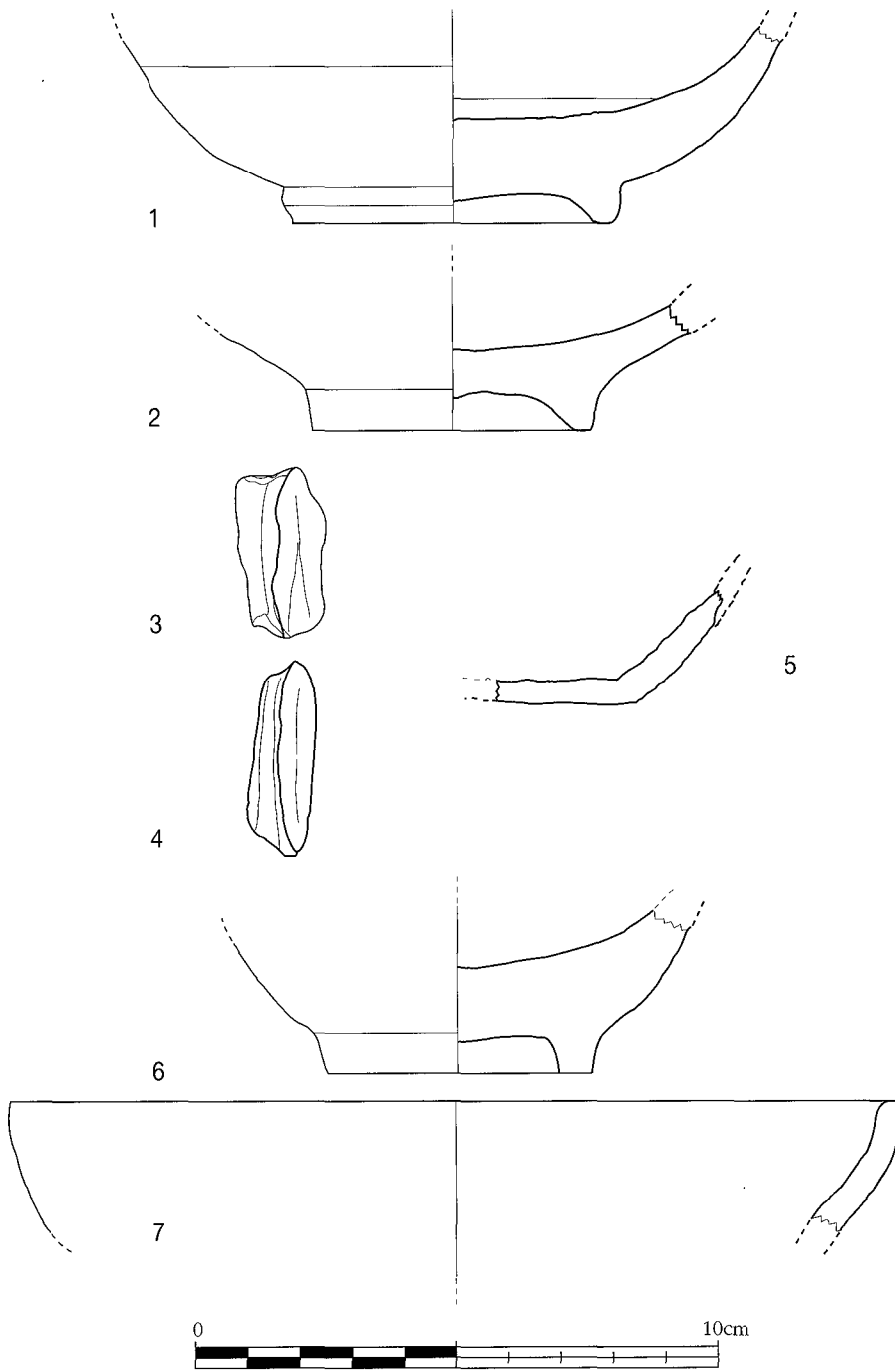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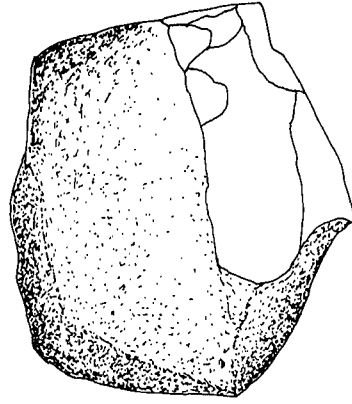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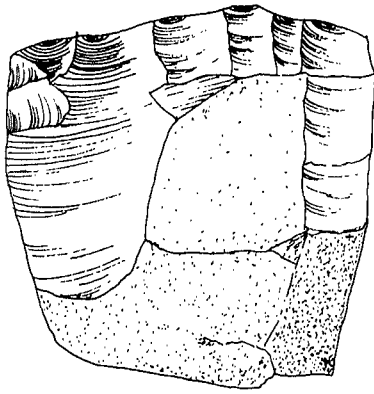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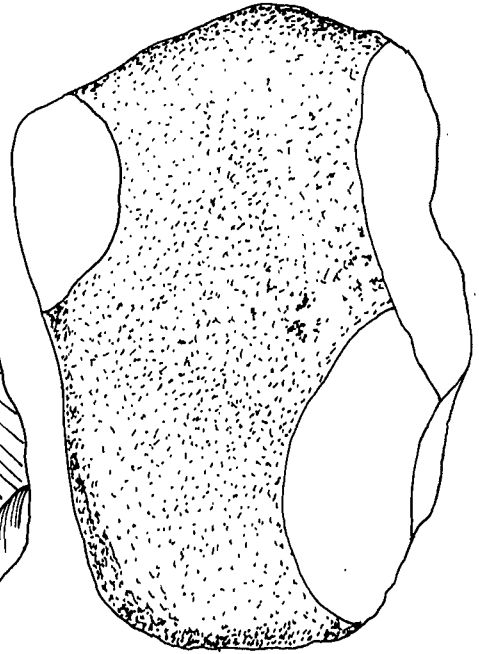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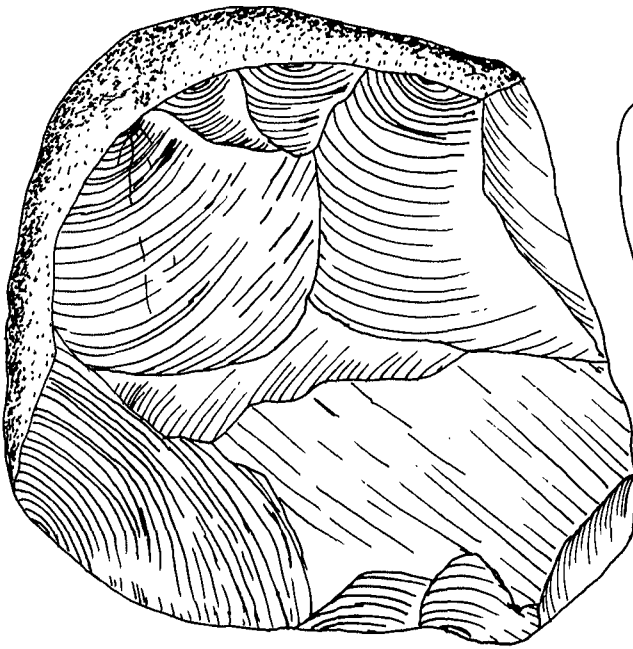


그림 1. 모현면 신원리 건물지 백자 각종(1, 2) ; 매산리 중촌 자기산포지(3-5) ; 일산리 자기산포지 백자 각종(6, 7)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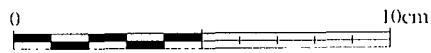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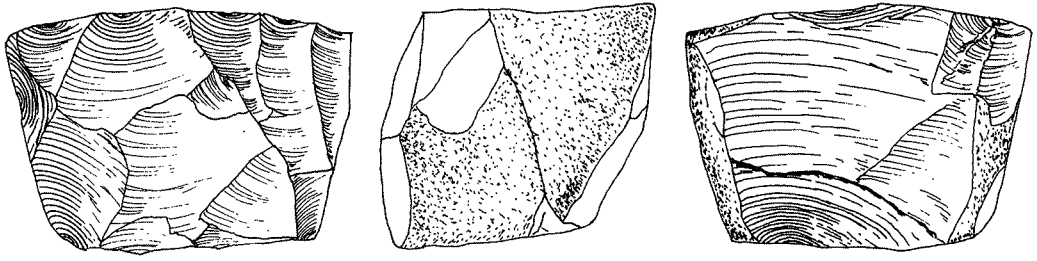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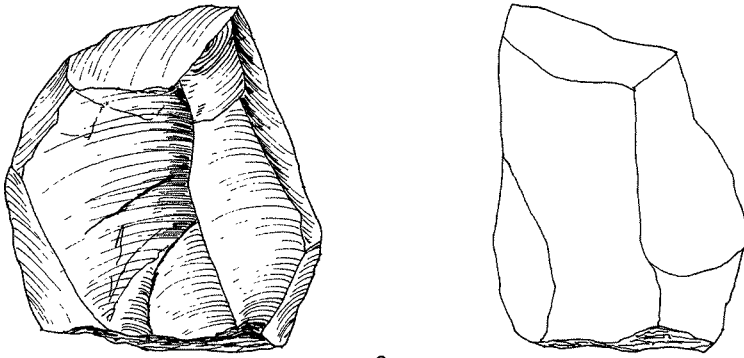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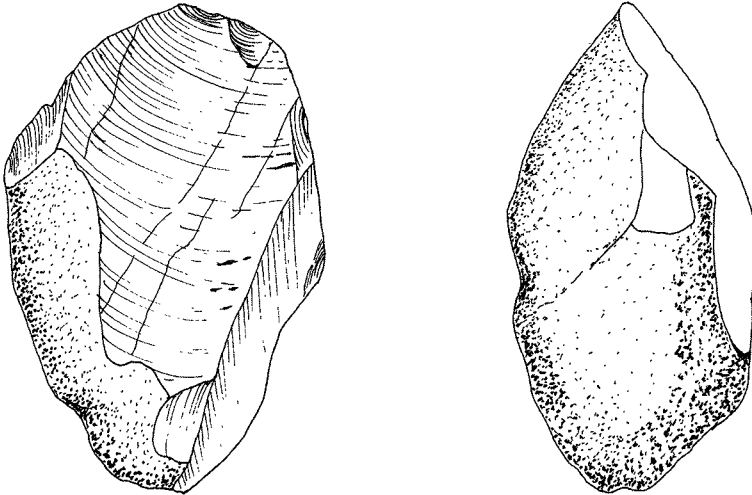
그림 2. 모현면 간담리 구석기시대 유적 석기



1



2



3



그림 3. 모현면 갈담리 구석기시대 수습 석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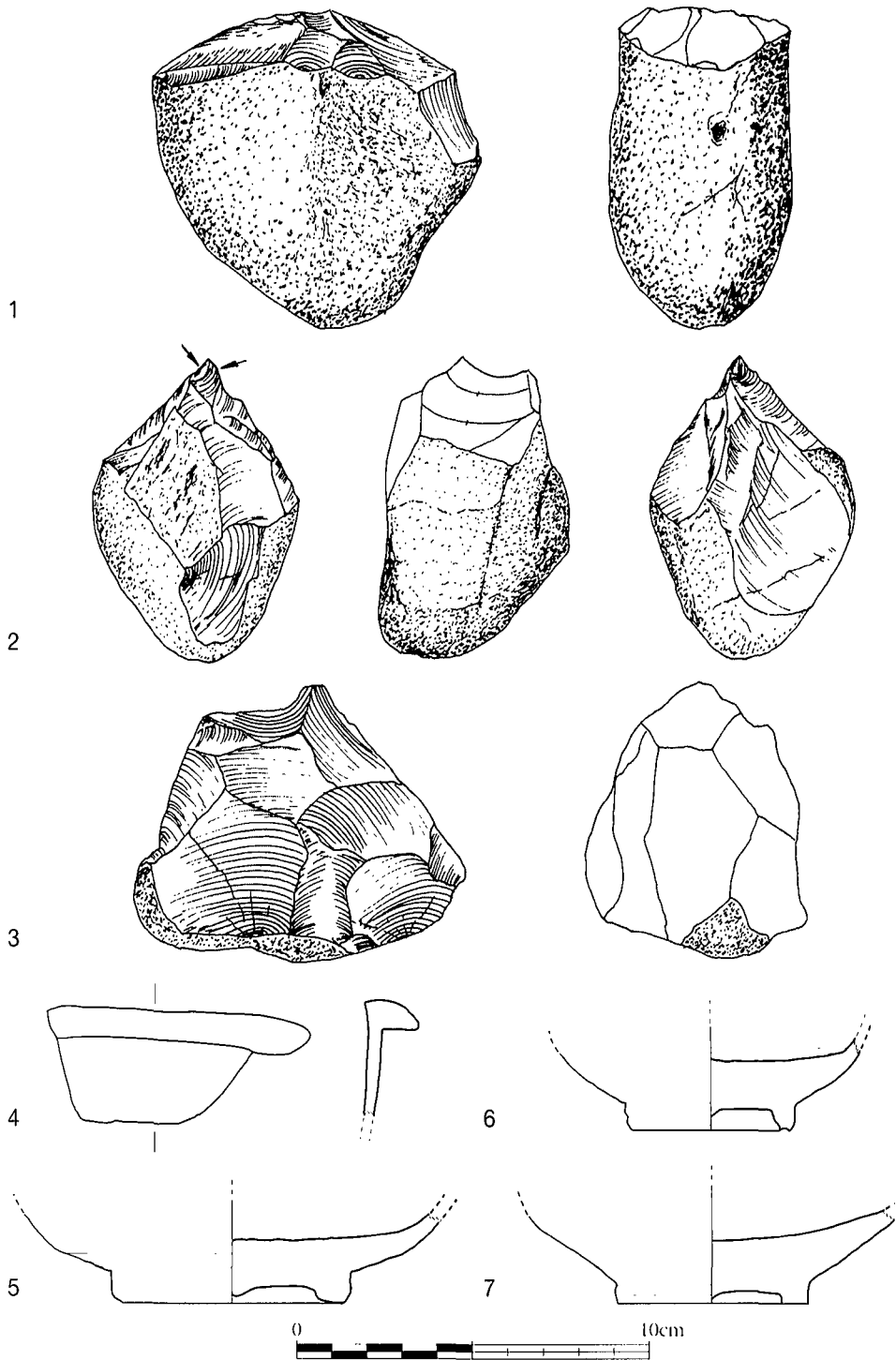


그림 4. 모현면 갈담리 구석기시대 석기(1-3) ; 주변 수습 토기편 및 자기편(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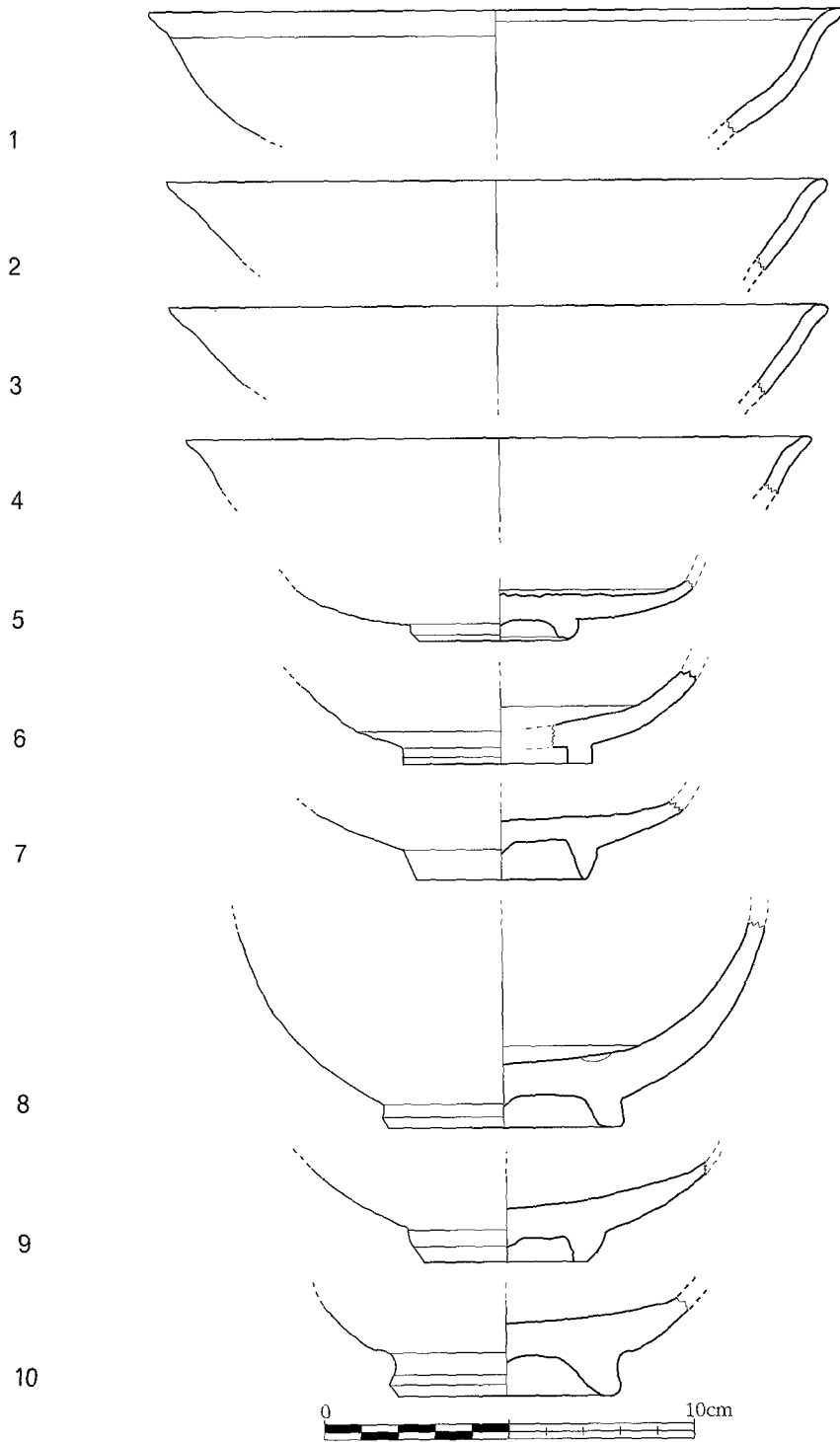


그림 5. 포곡면 마성리 영골 자기산포지 수습 백자 각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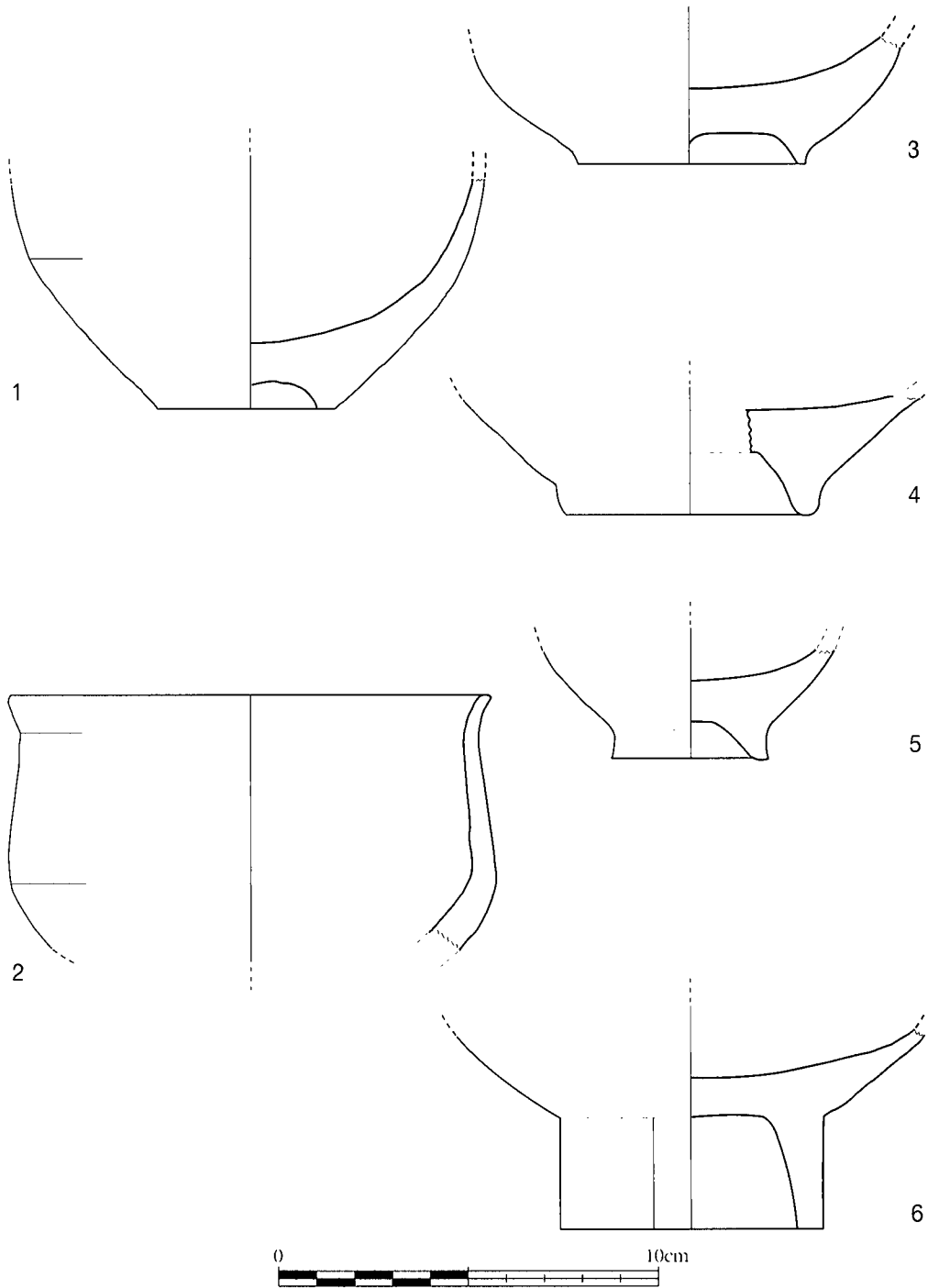


그림 6. 구성면 상하리 백자산포지 수습 백자 각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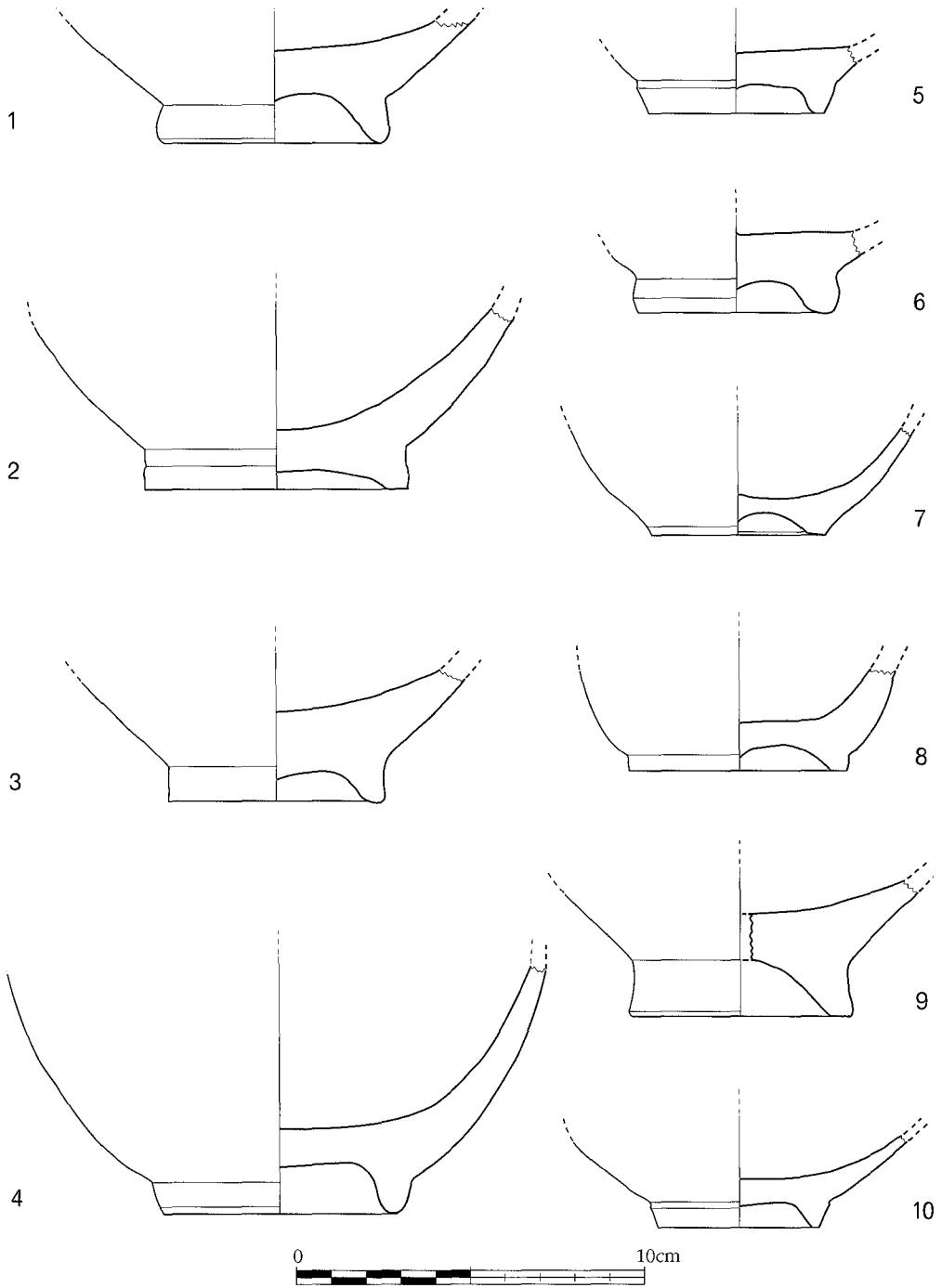


그림 7. 구성면 보정리 연원부락 백자산포지 수습 자기편(1-4) ;
 용인읍 역북리 자기산포지 수습 자기편(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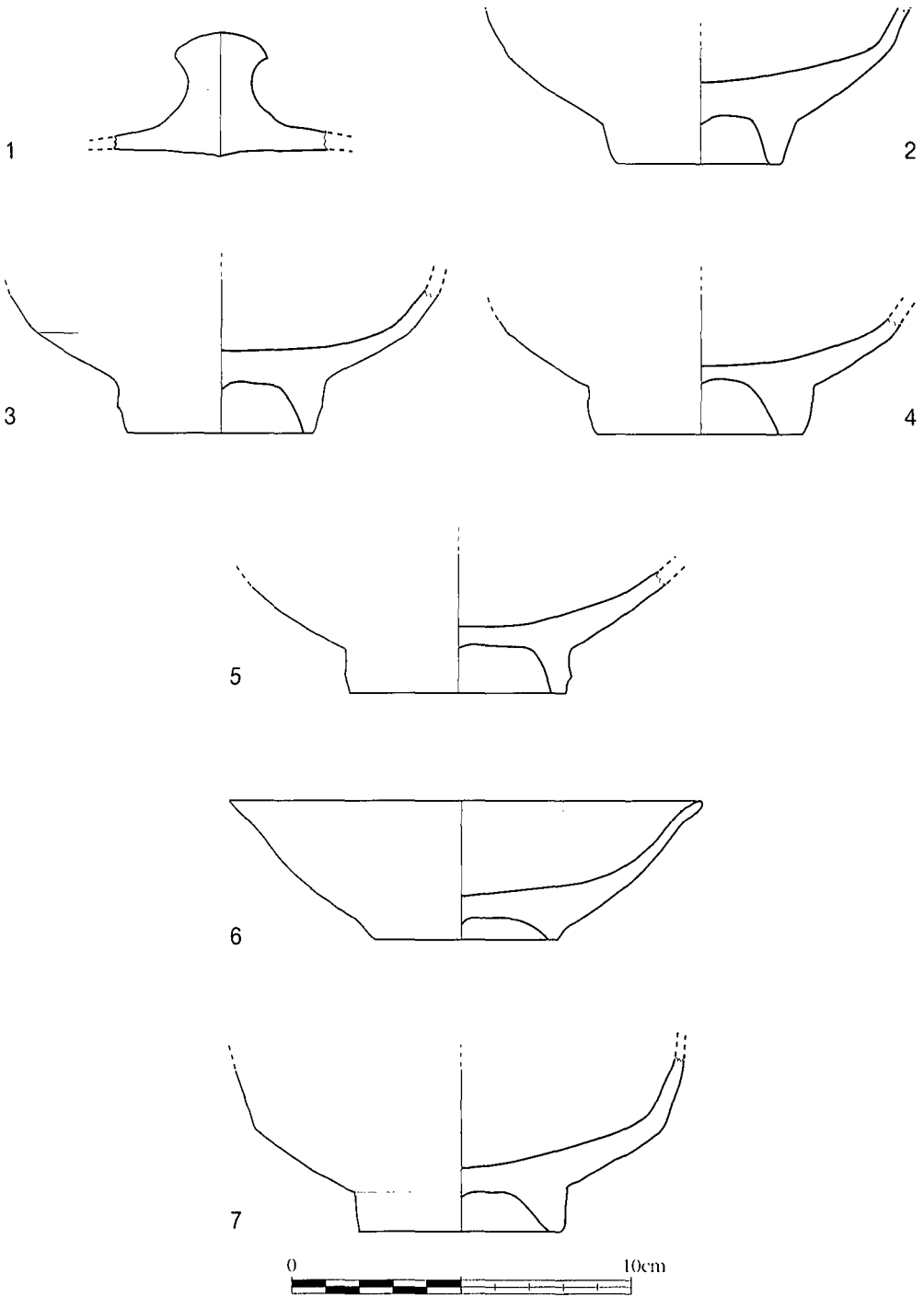


그림 8. 이동면 서리 상덕도요지 수습 백자 각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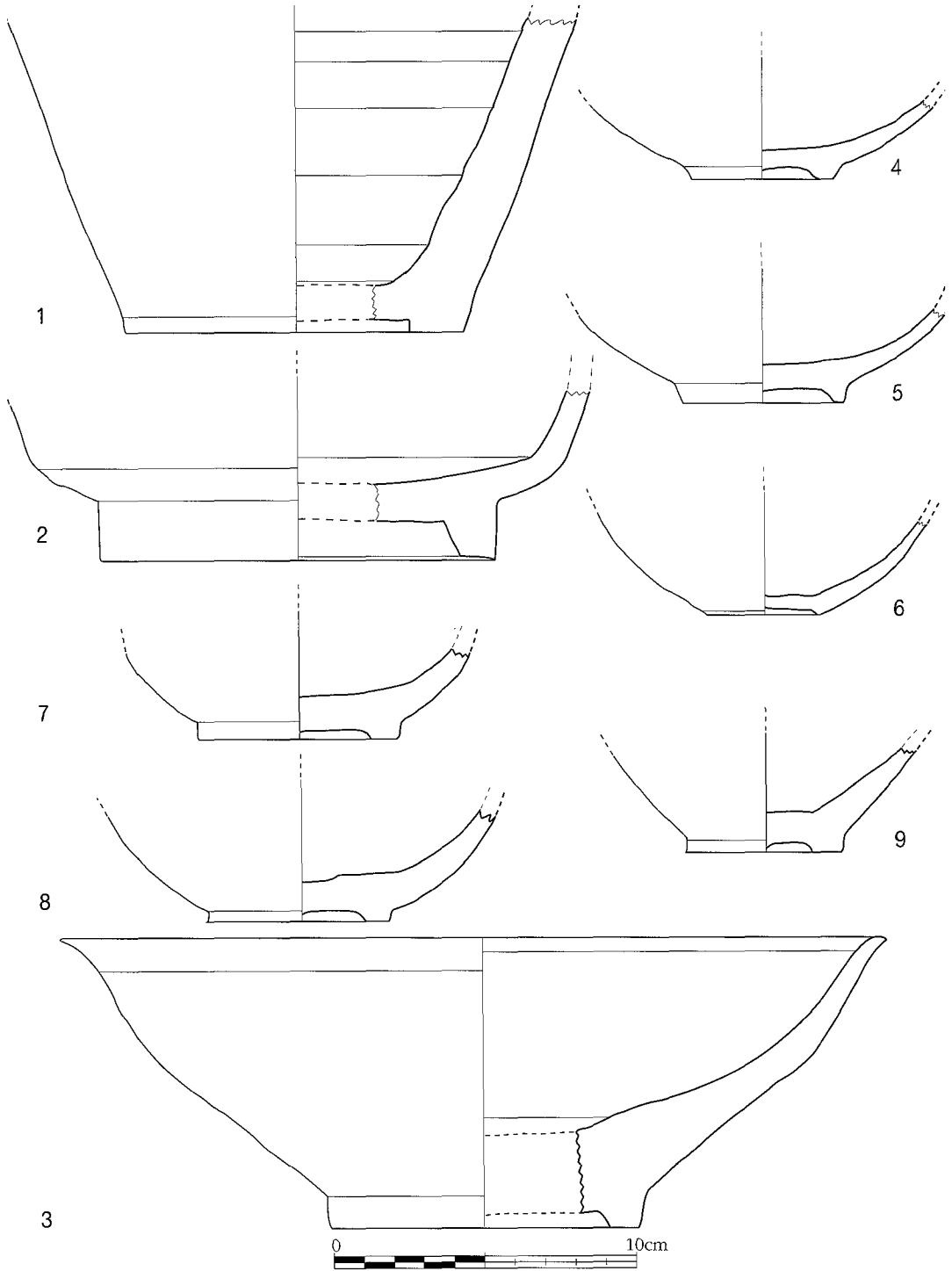


그림 9. 이동면 서3리 자기산포지 수습 고려백자 각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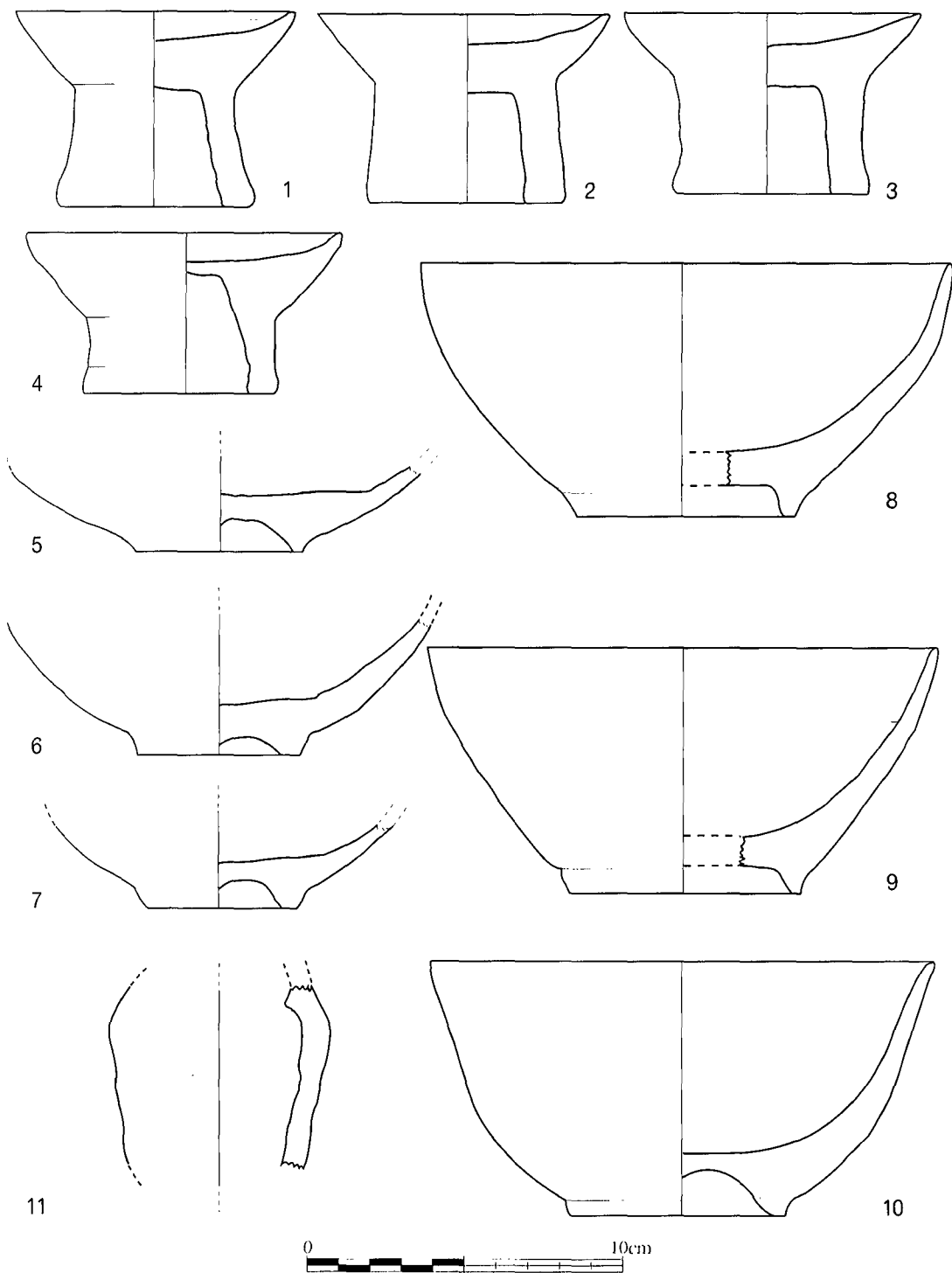


그림 10. 이동면 서리 사기막골 백자도요지 수습 도자기(1-4) 및 자기 각종(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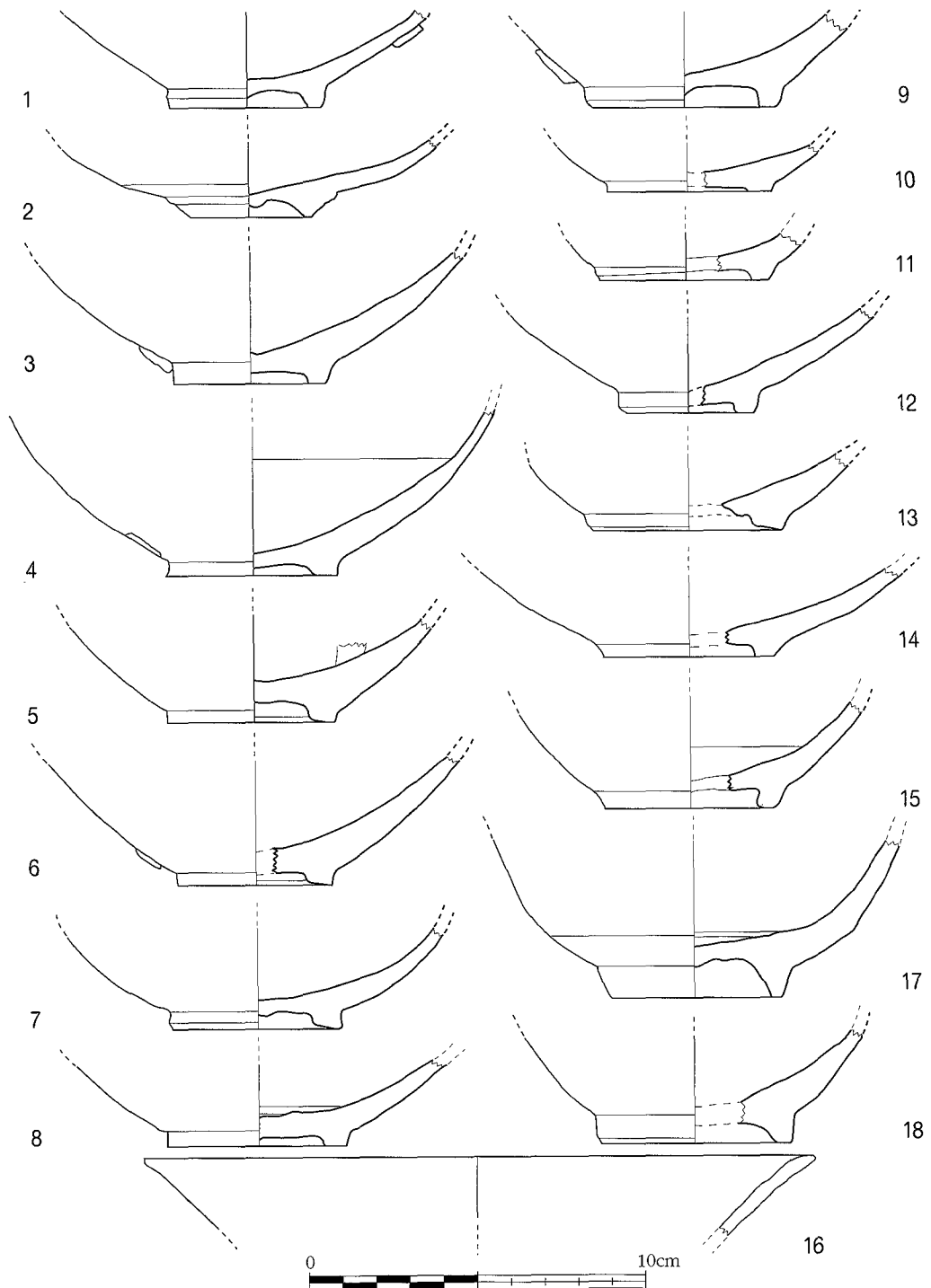


그림 11. 이동면 서리 사기막골 분청사기도요지 수습 자기 각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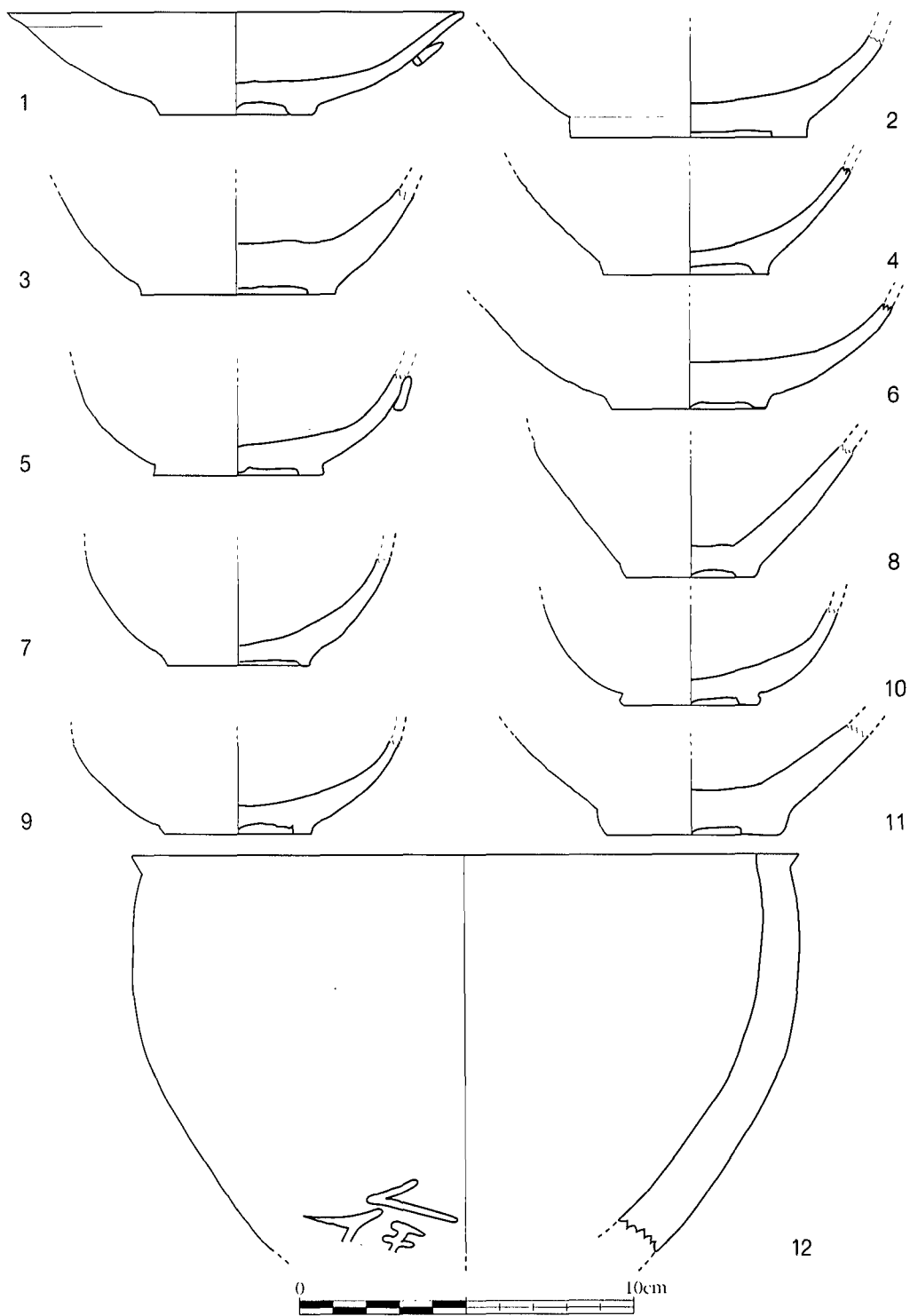


그림 12. 이동면 서리 상반곡 고려백자도요지 수습 자기 각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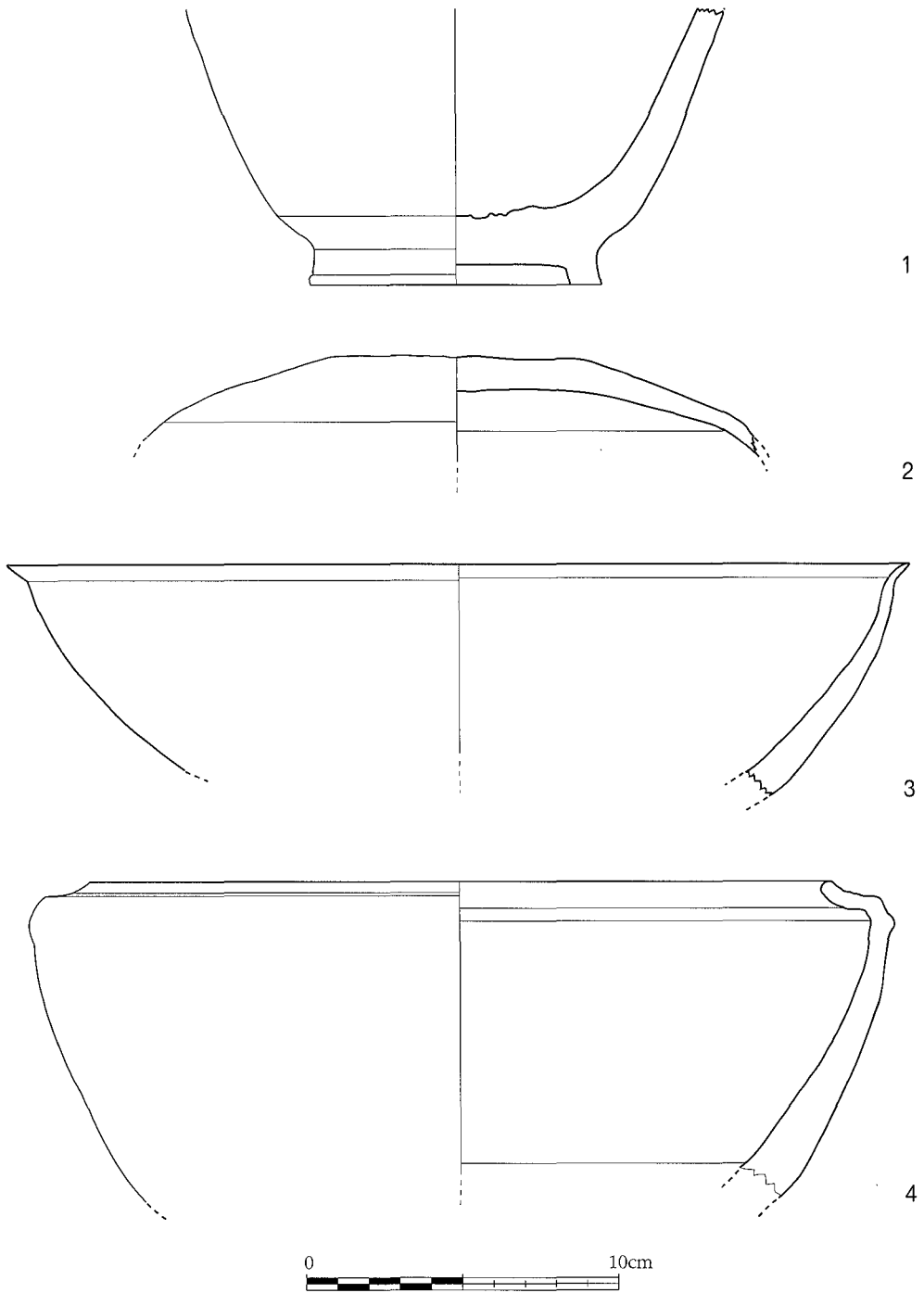


그림 13. 이동면 서리 상반곡 고려백자도요지 수습 자기 각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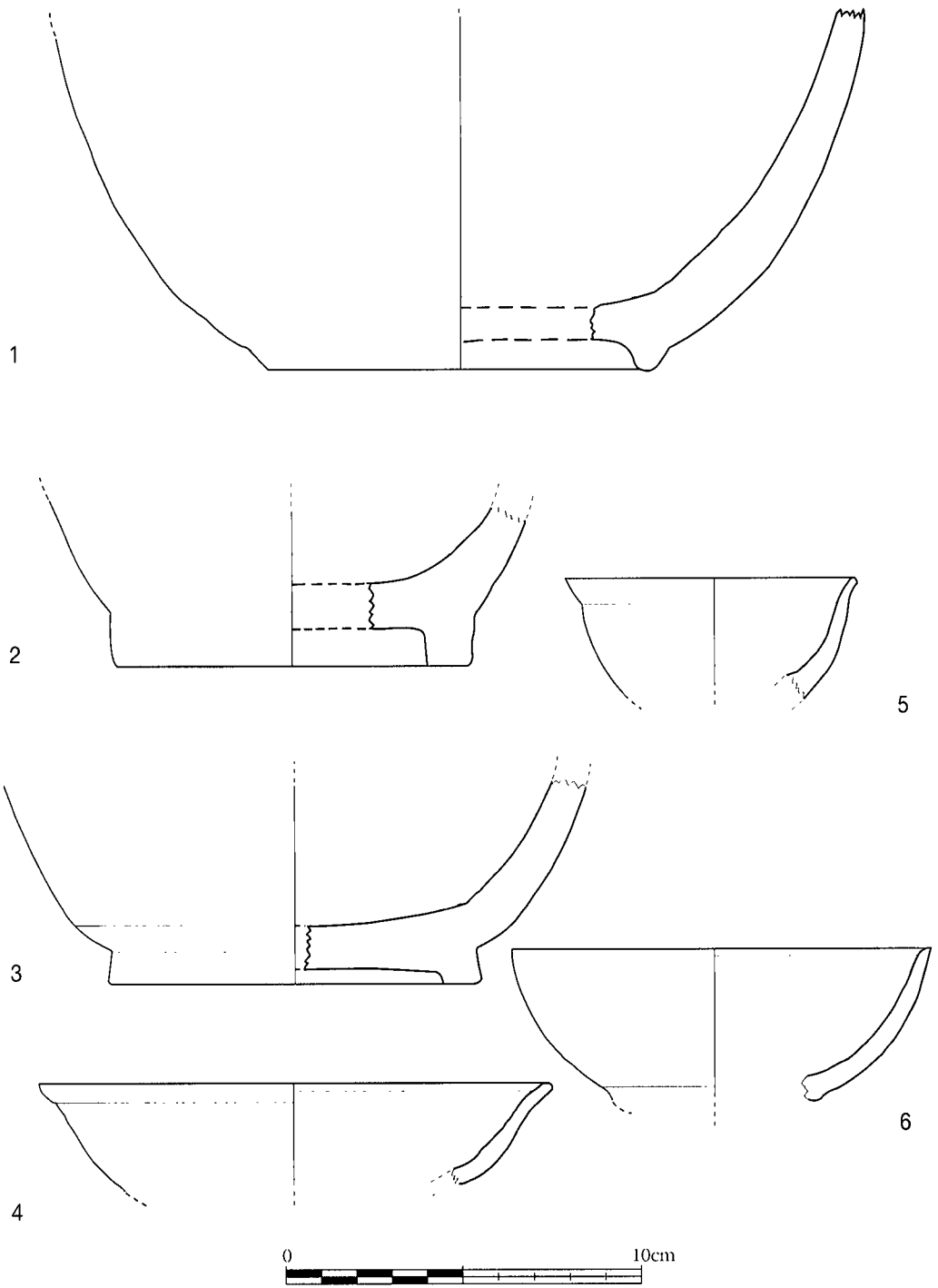


그림 14. 이동면 서리 상반곡 고려백자도요지 수습 자기 각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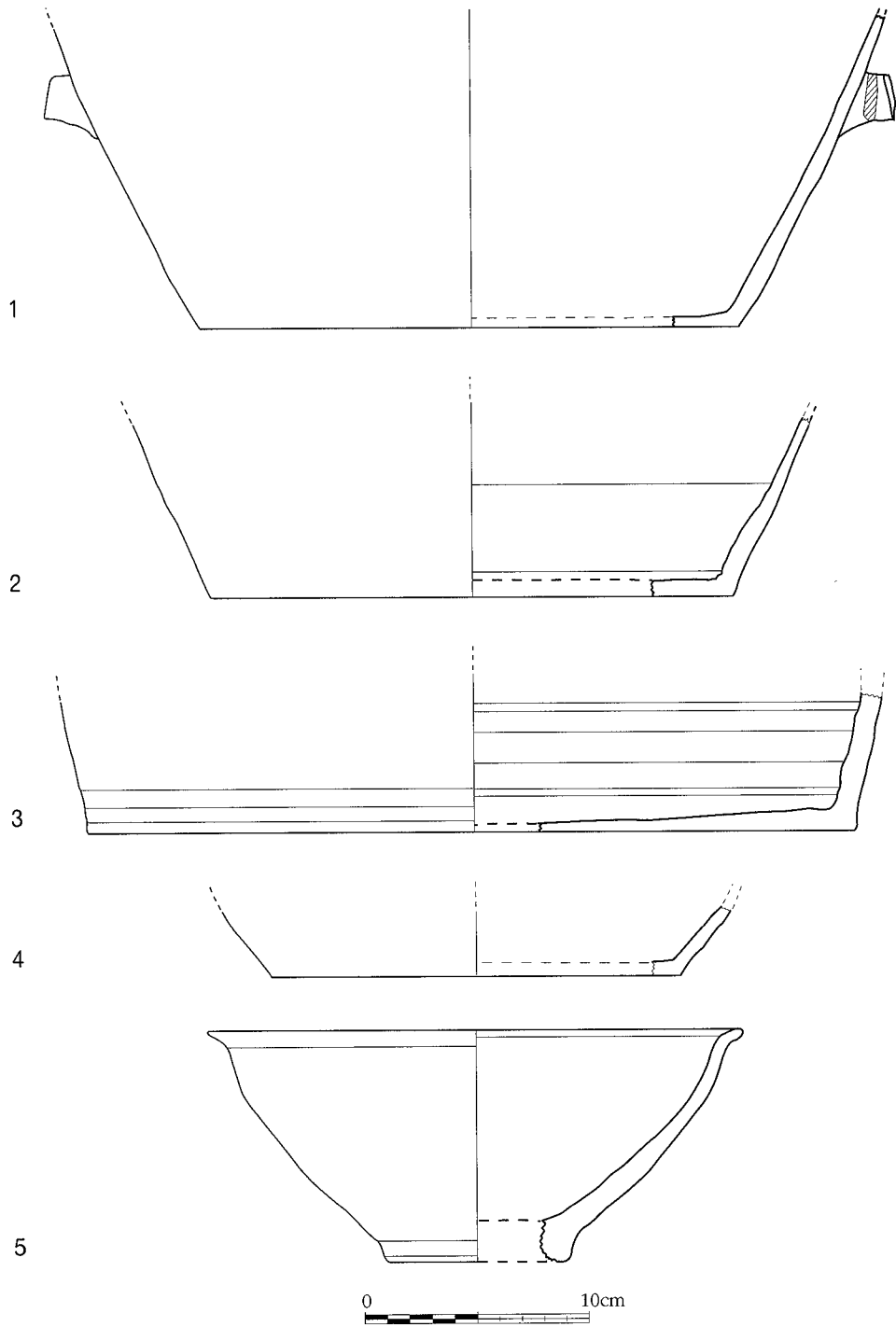


그림 15. 이동면 서리 하반 삼막골 조선시대 토기산포지 수습 토기(1-4) 및 고려백자 대접(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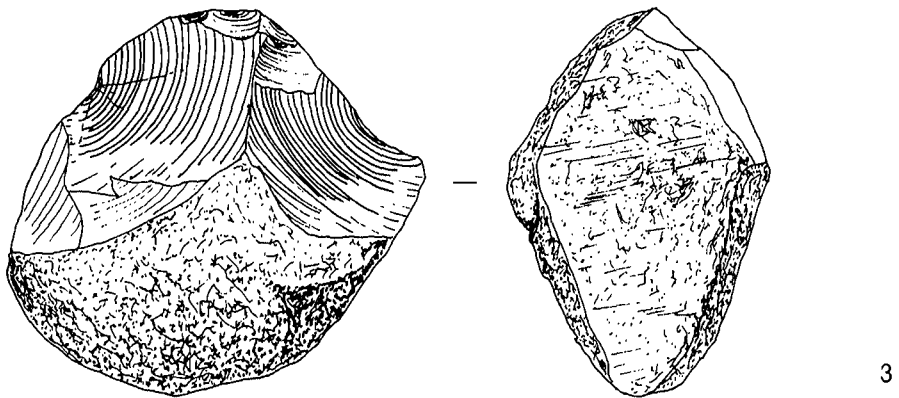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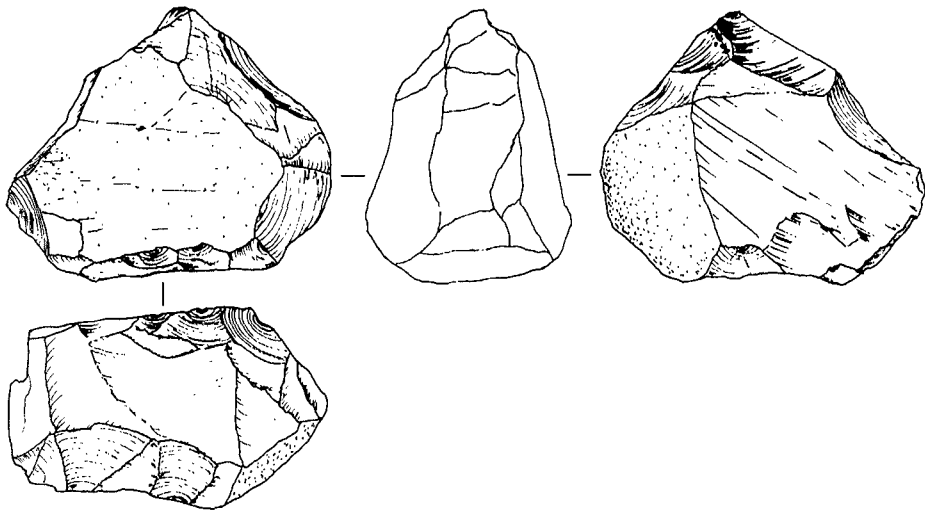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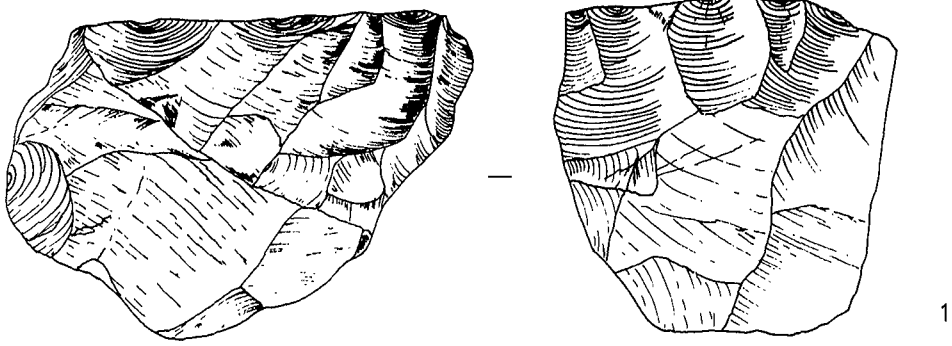


그림 16. 이동면 천리 구수동 구석기시대 석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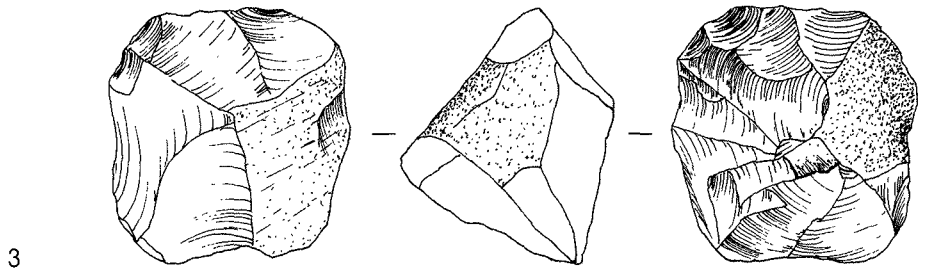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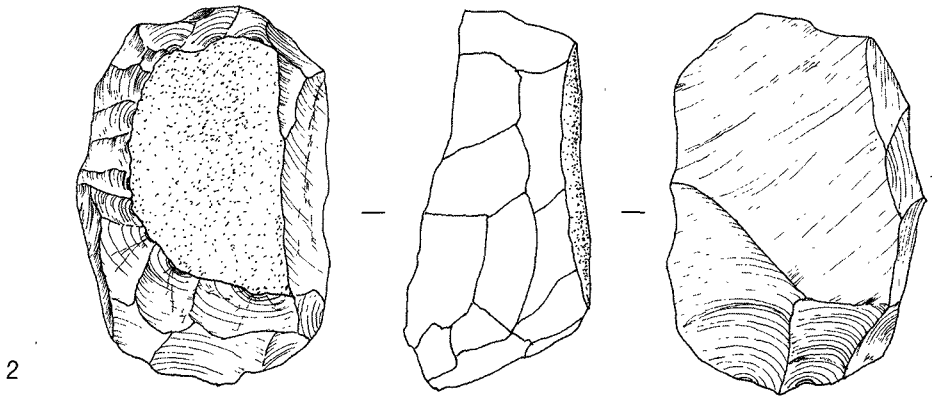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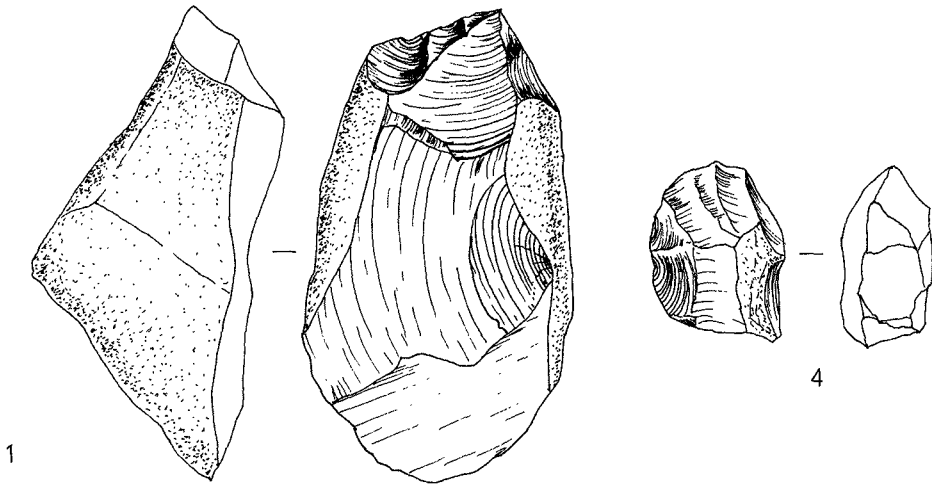


그림 17. 이동면 천리 구수동 구석기시대 석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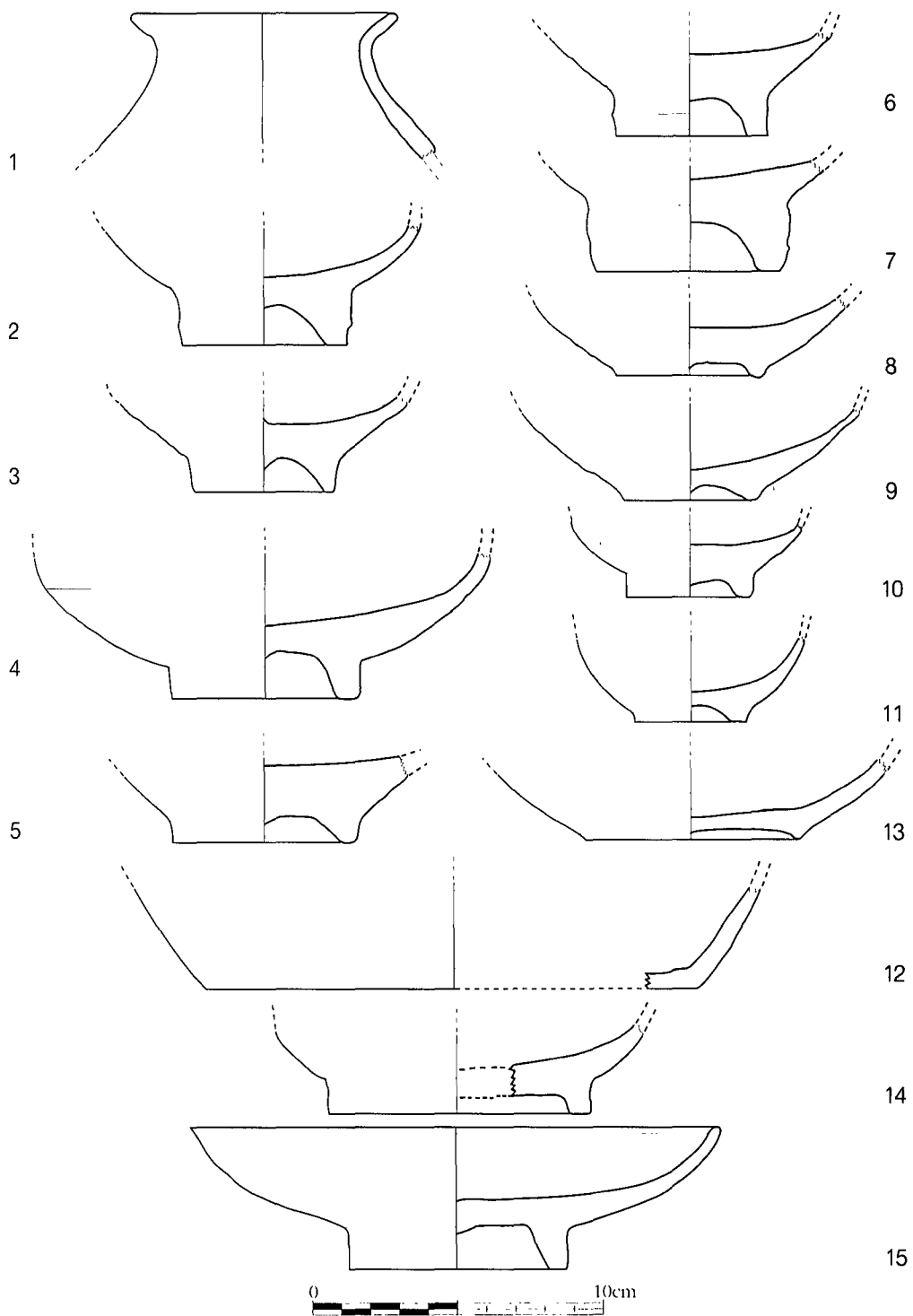


그림 18. 이동면 천리 구수동 자기산포지 수습 자기 각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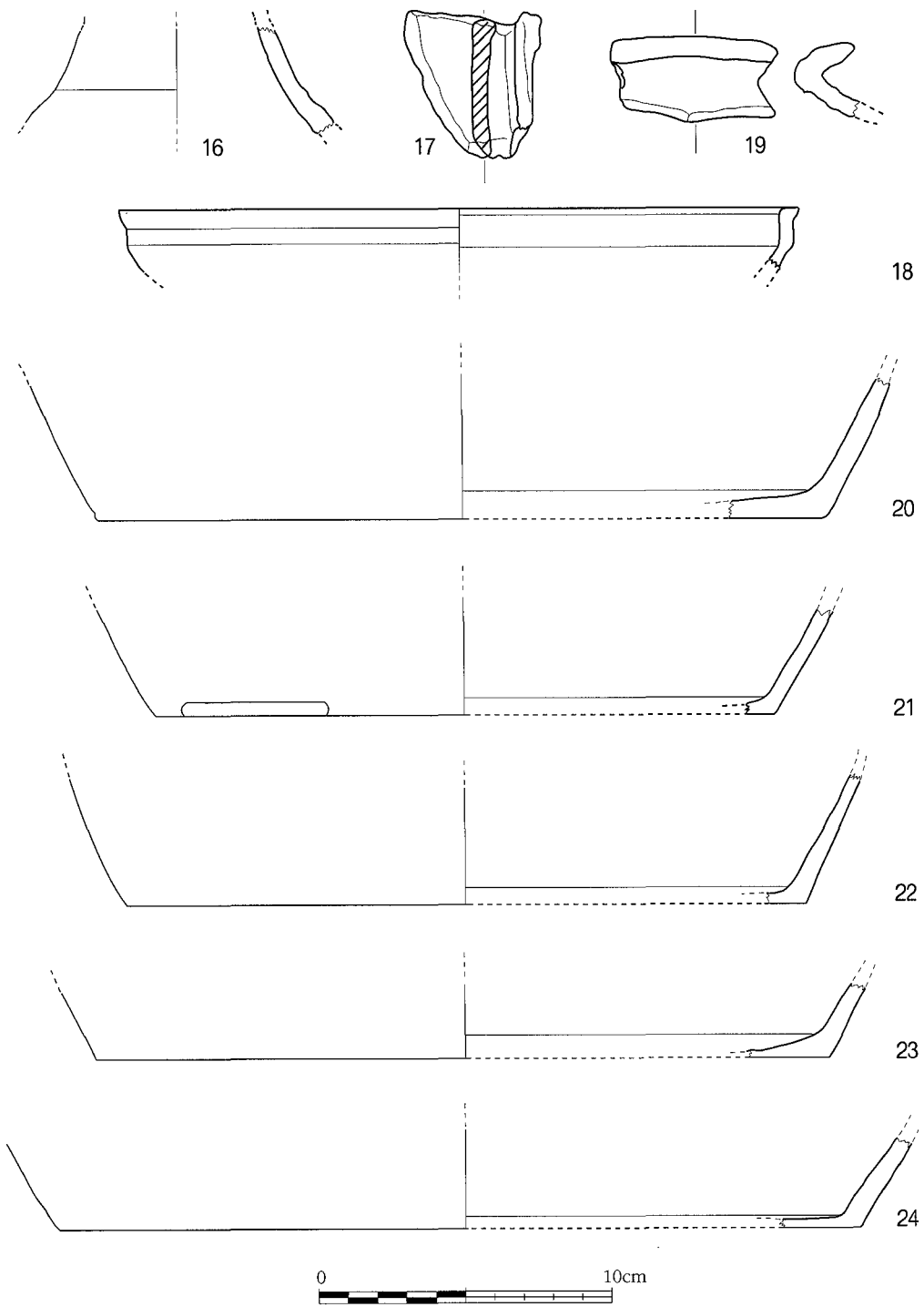


그림 19. 이동면 천리 구수동 자기산포지 수습 토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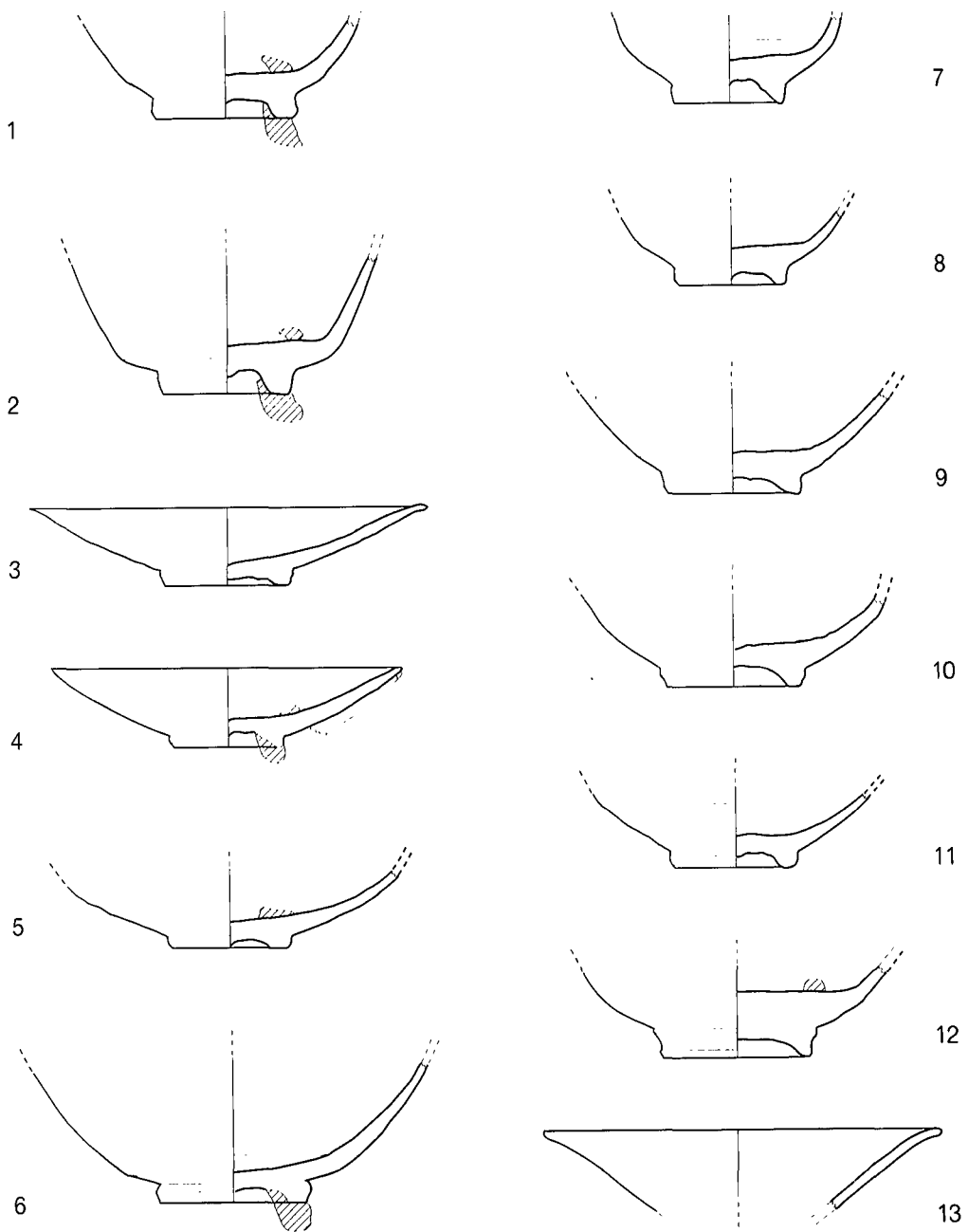


그림 20. 이동면 노곡백자도요지 I 수습 자기 각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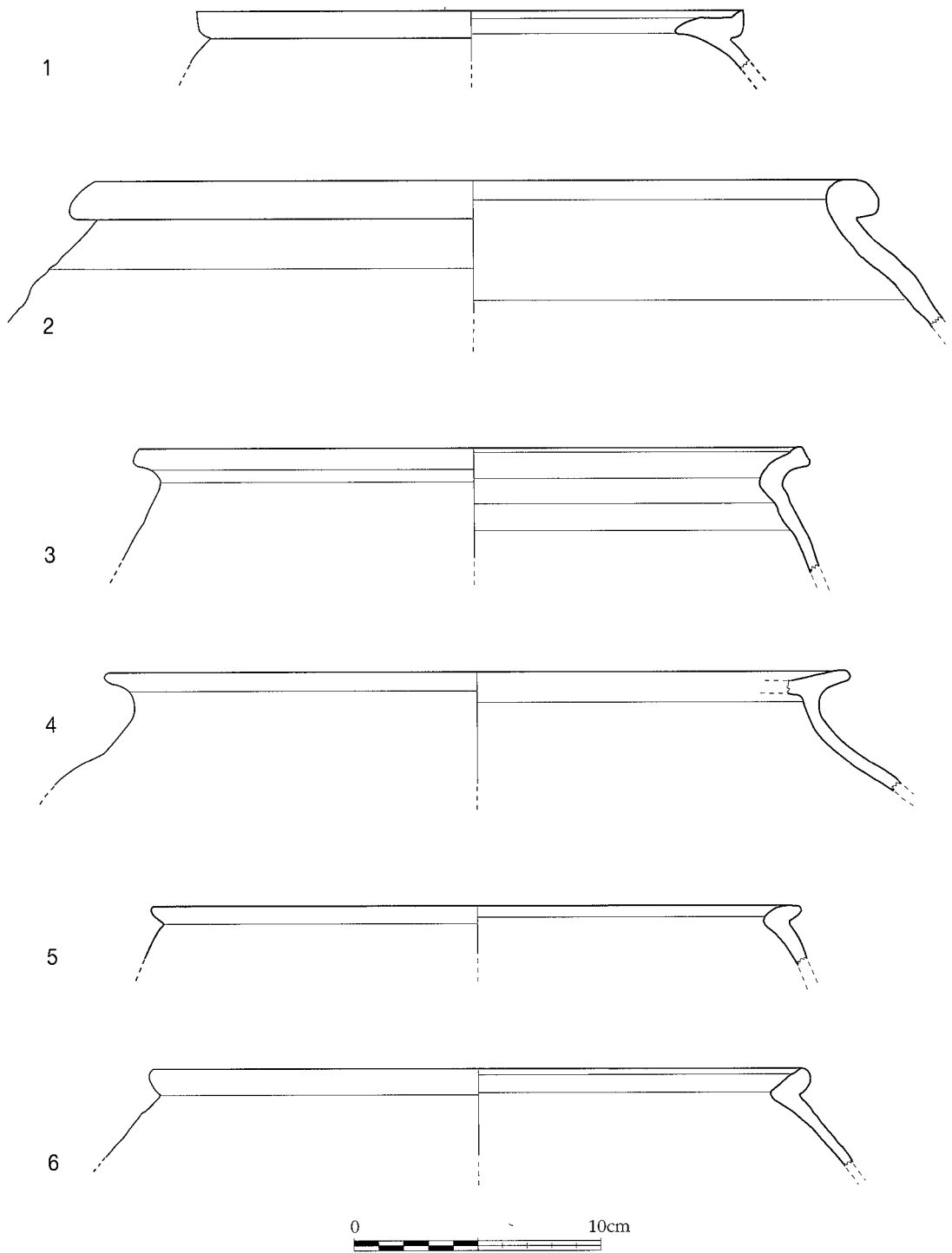


그림 21. 노곡 백자도요지 I 녹청자편(1) 및 토기편(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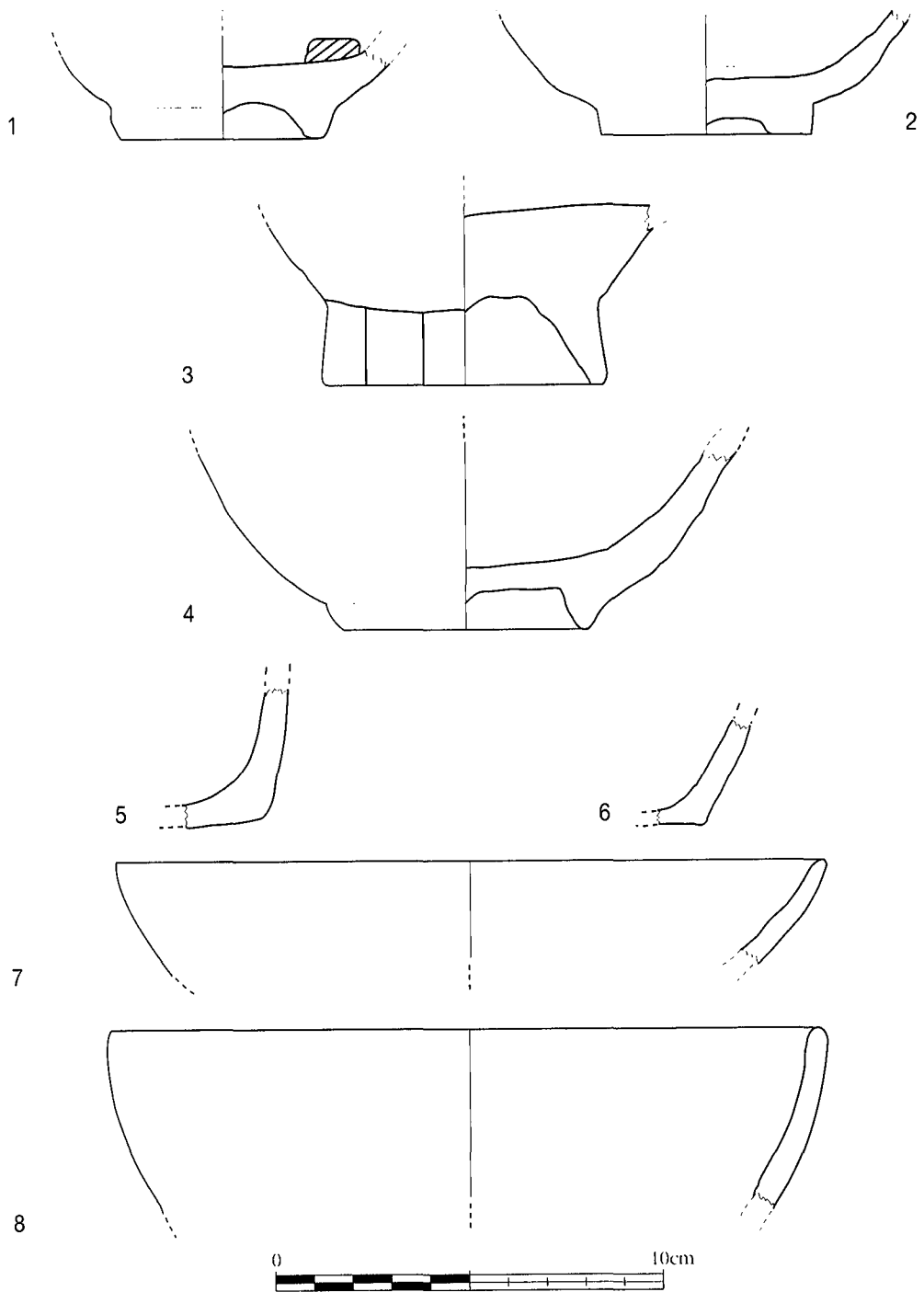


그림 22. 이동면 노곡 백자도요지Ⅱ 수습 자기 각종(1~2) ;
 남사면 아곡리 자기산포지 수습 백자편(3, 4, 6, 8) 및 토기편(5,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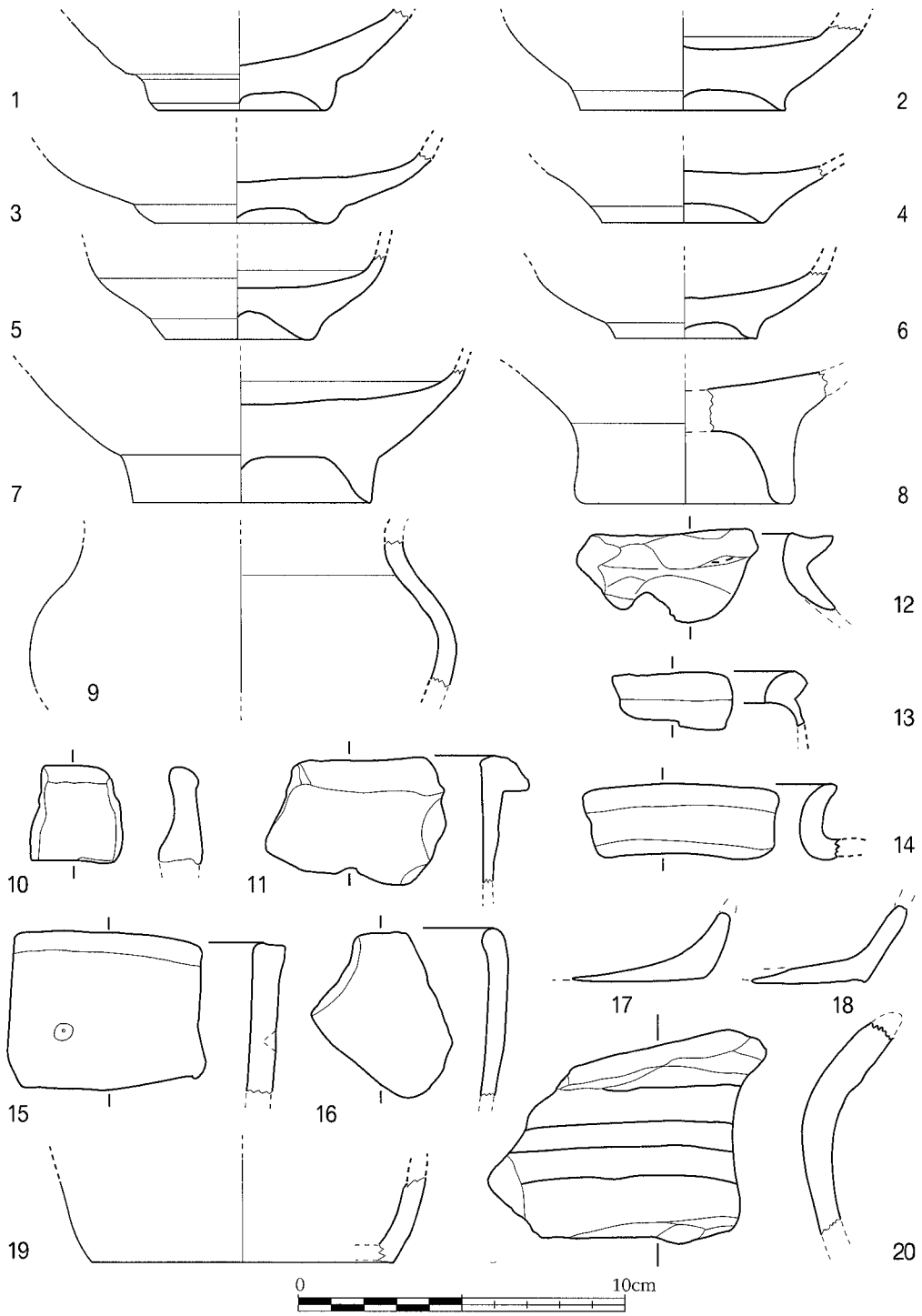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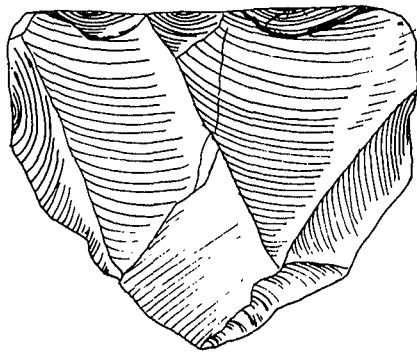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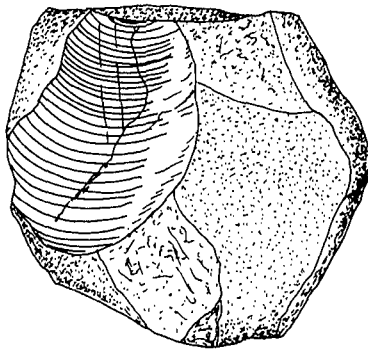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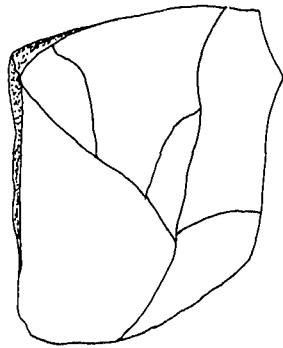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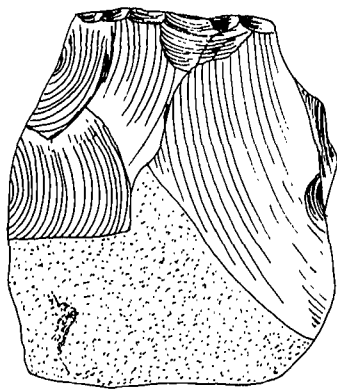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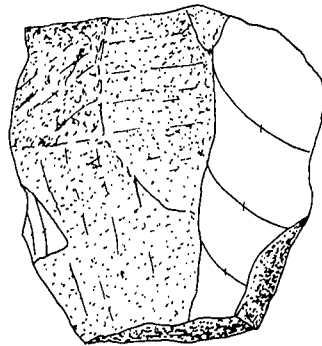
그림 23. 남사면 완장리 자기산포지 수습 자기(1~9) 및 토기편(10~20)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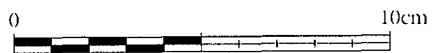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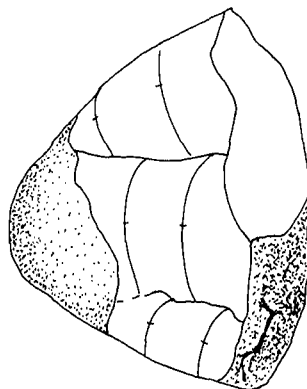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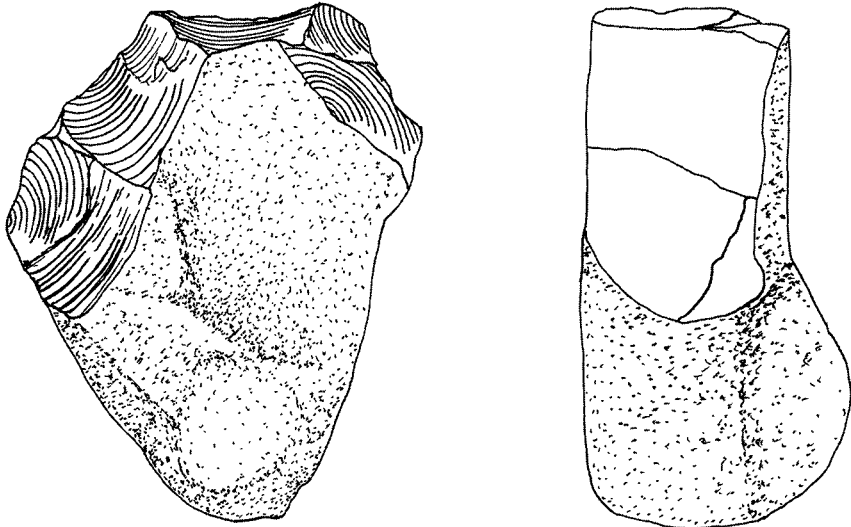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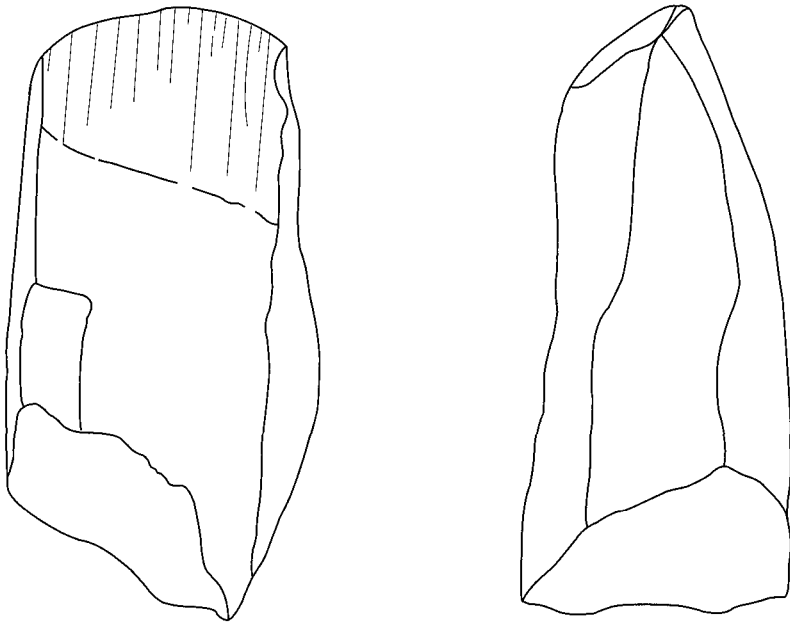


그림 24. 남사면 봉무리 도장골 구석기시대 석기



1



2



그림 25. 남사면 봉무리 도장골 구석기시대 석기(1) 및 주변 수습 반마제석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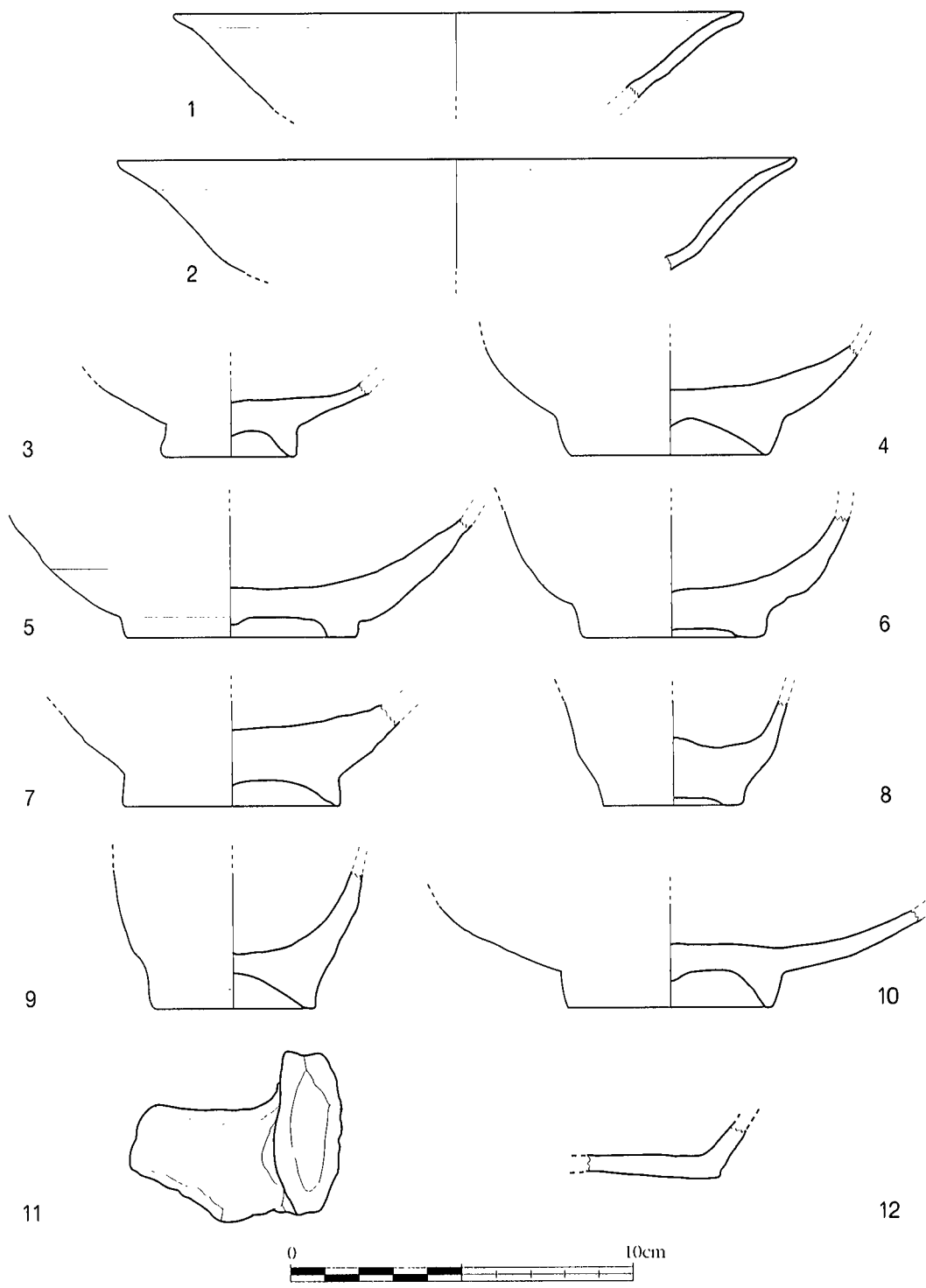


그림 26. 남사면 봉무리 도장골사지 수습 자기(1~10) 및 토기편(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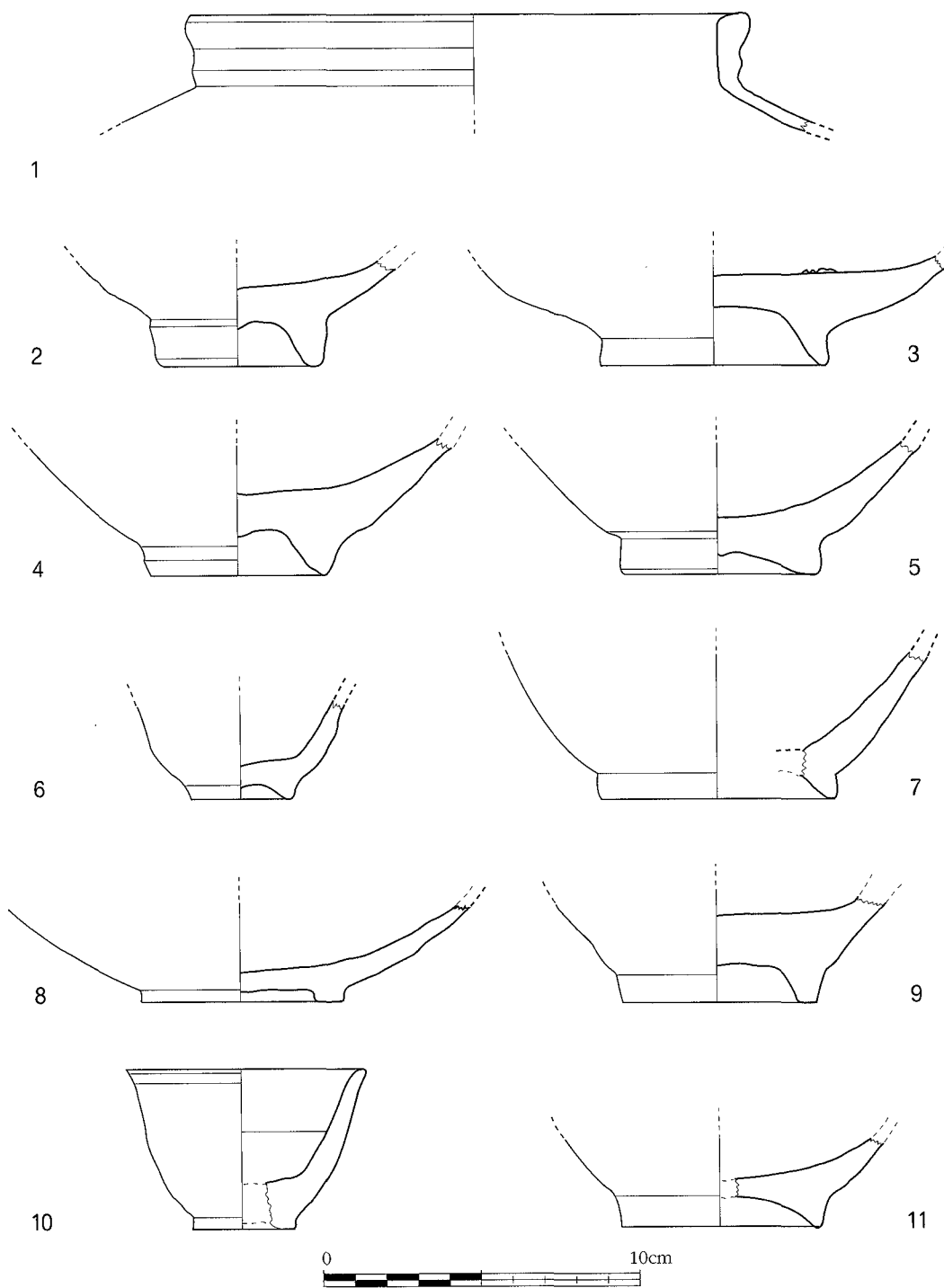


그림 27. 남사면 봉무리 기와집말 자기산포지 수습 자기 각종(1~7) ;
 봉무리 농협창고 뒤 자기산포지 수습 자기 각종(8~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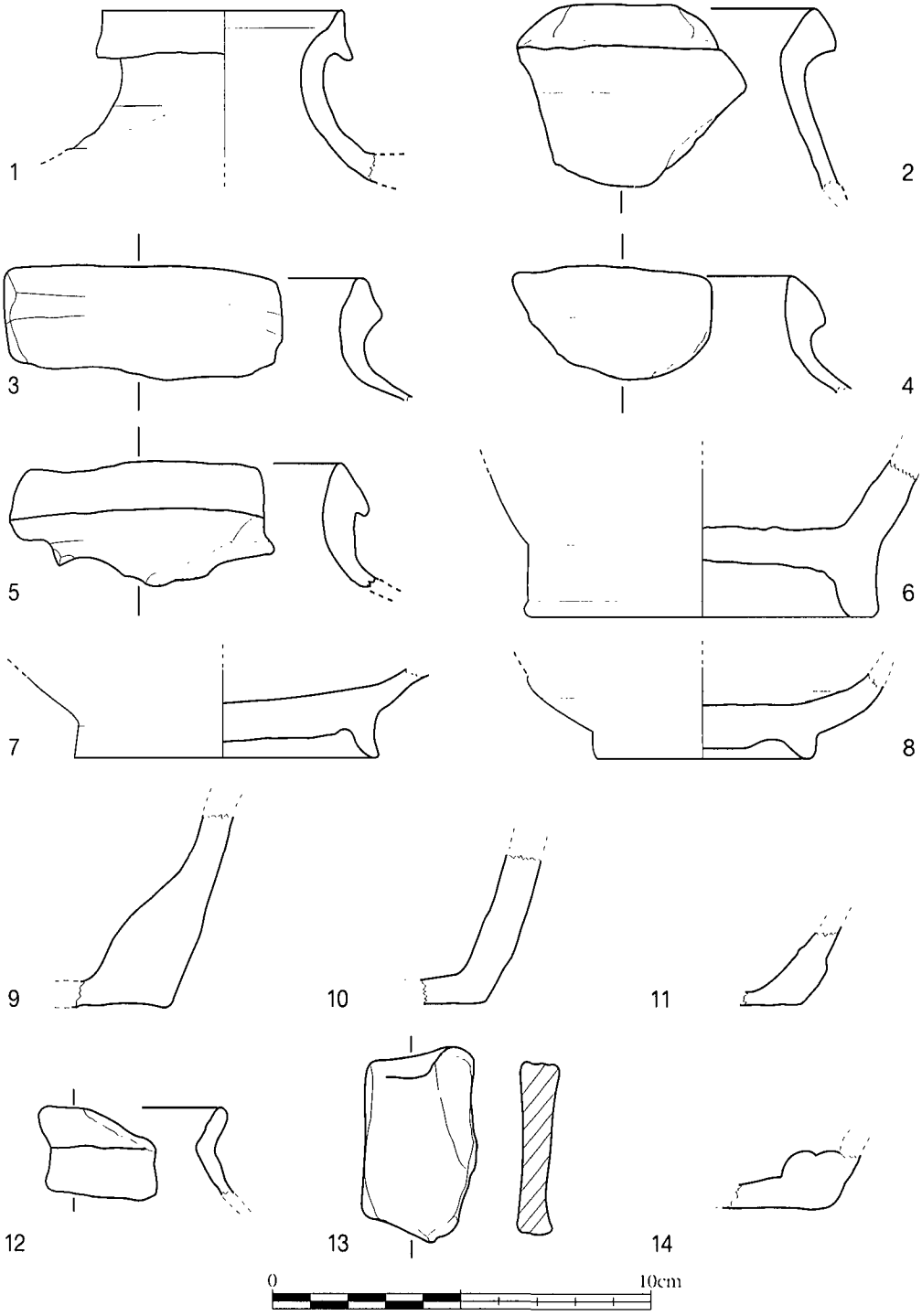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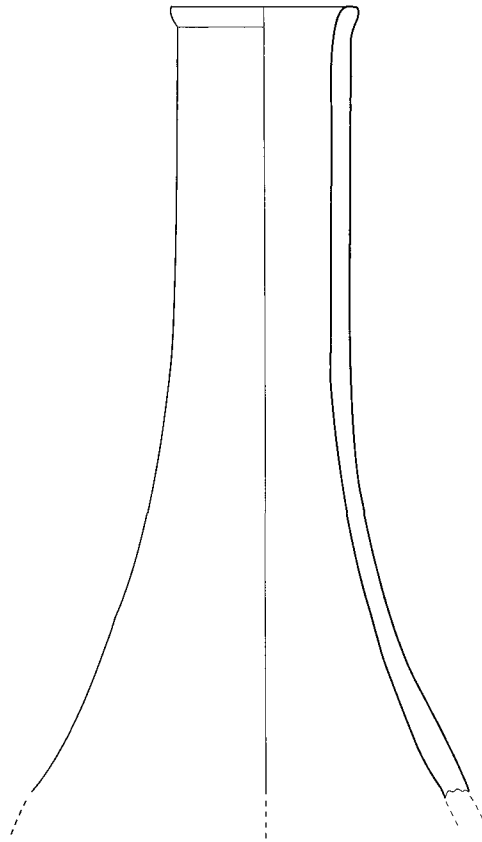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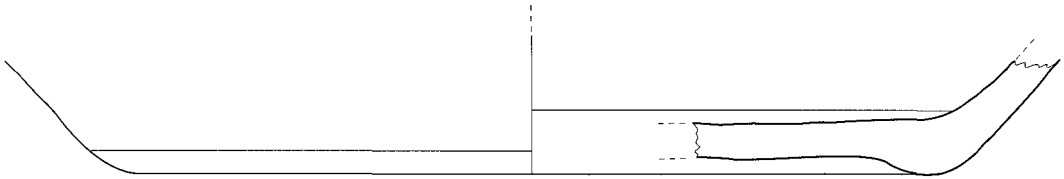


그림 28. 남사면 전궁리 통일신라시대 토기도요지 수습 토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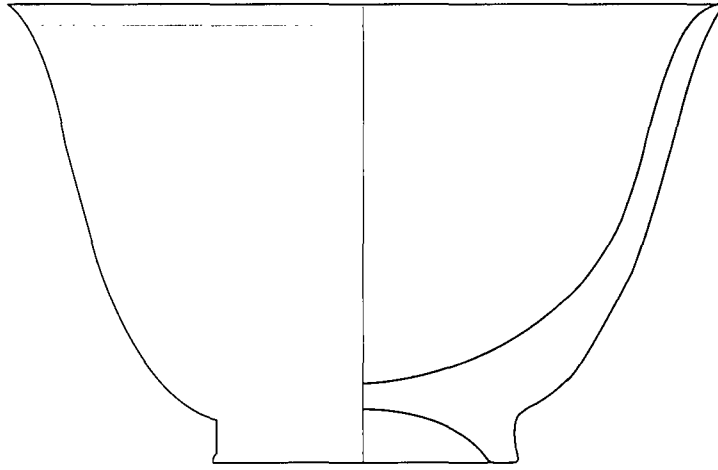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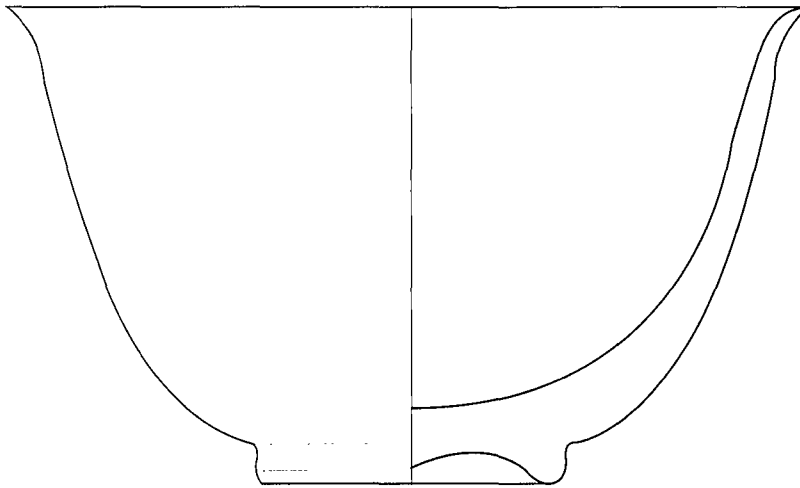
2



그림 29. 남사면 창리 자기산포지 수습 백자 각종



1



2



그림 30. 남사면 원암리 사기막골 도요지 수습 백자대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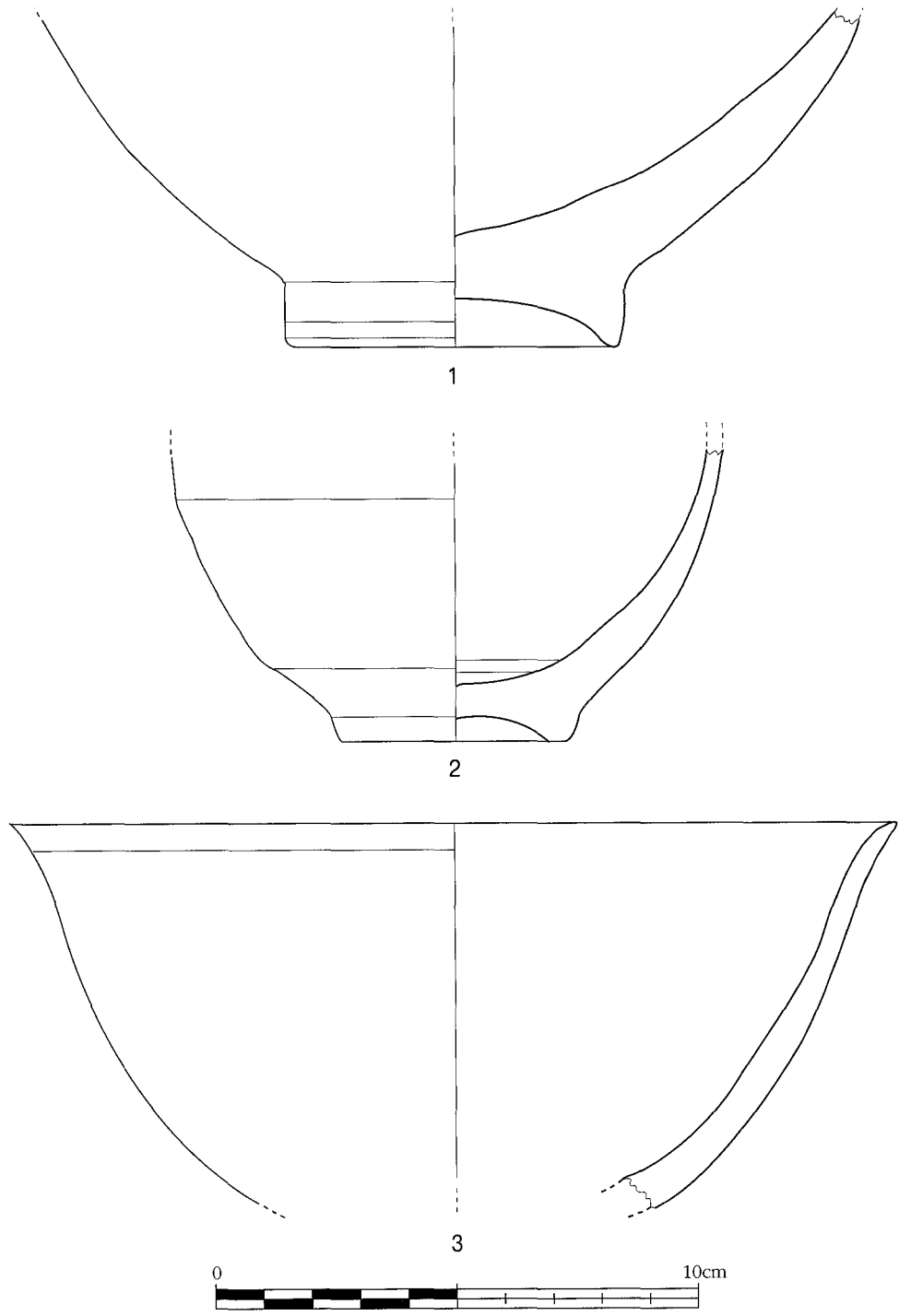


그림 31. 남사면 원암리 사기막골도요지 수습 백자대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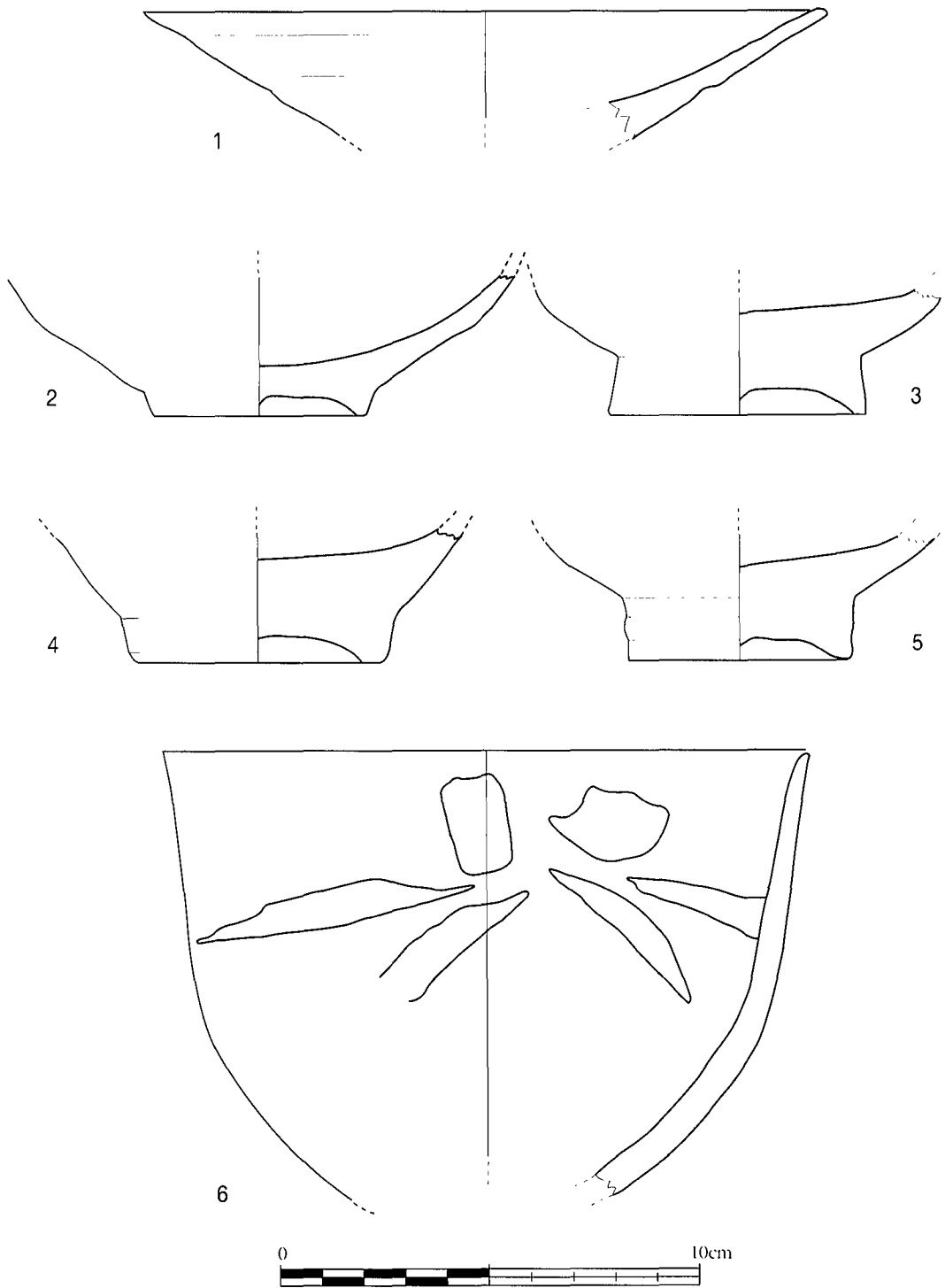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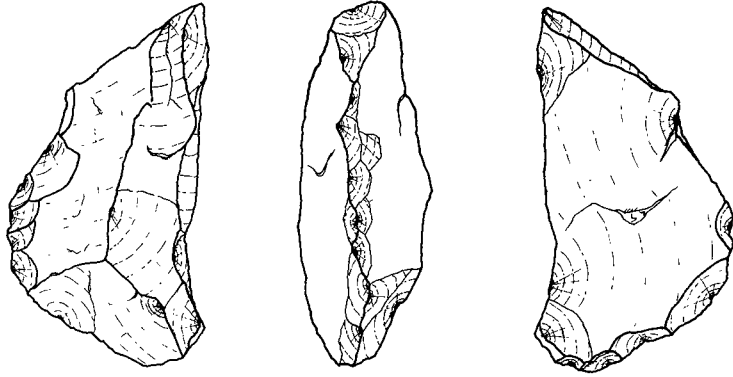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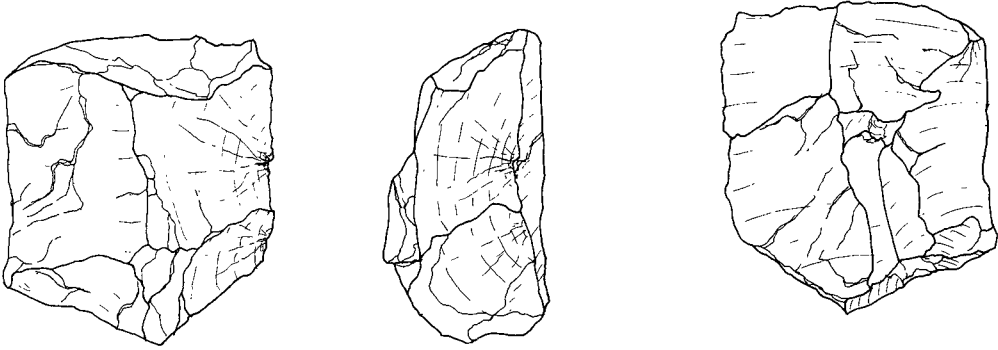


그림 32. 남사면 원암리 사기막골도요지 수습 백자 각종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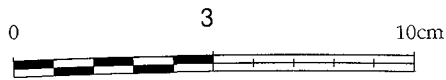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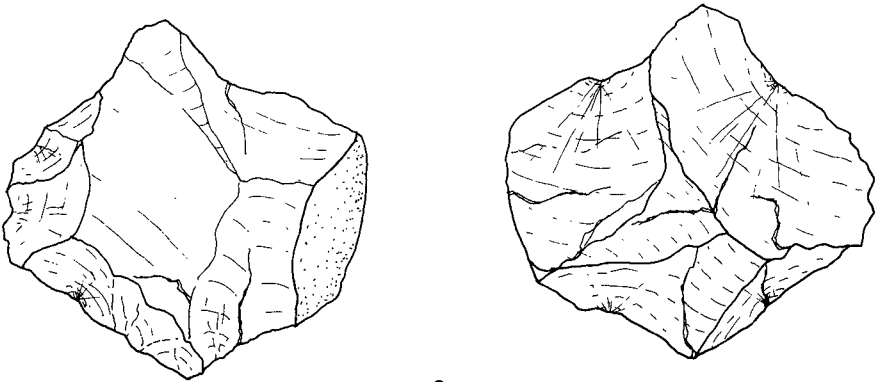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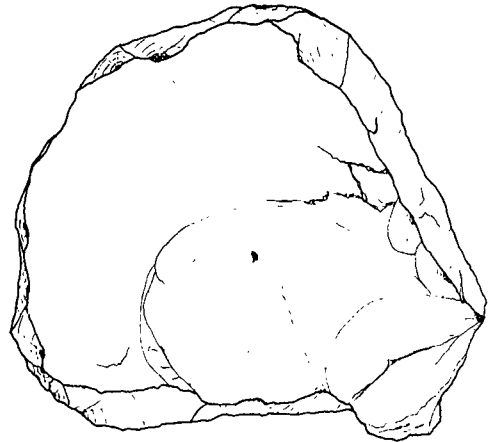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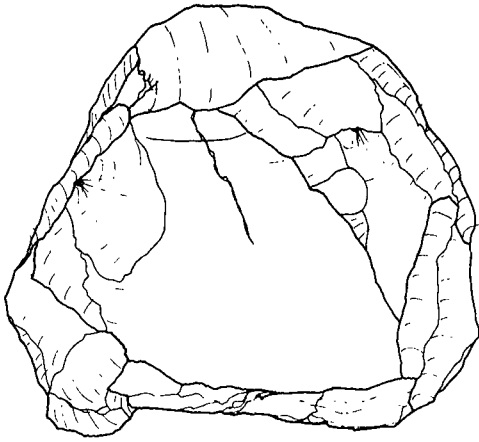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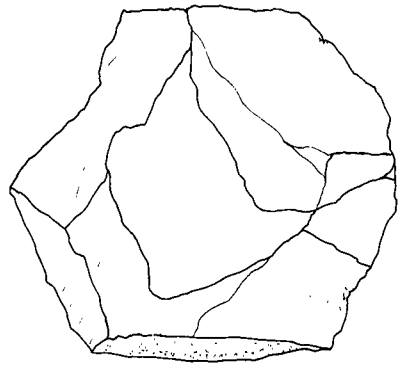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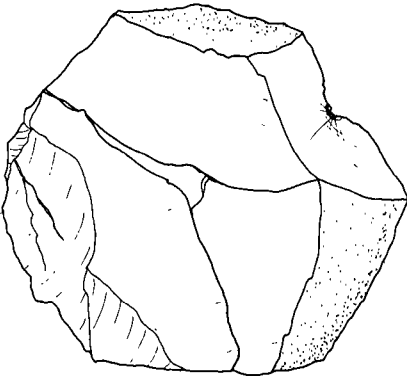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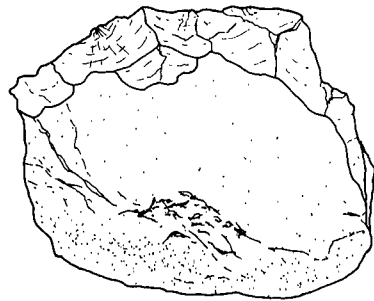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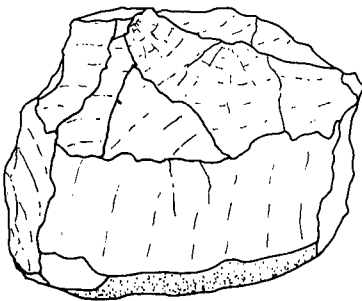
그림 33. 용인군 수습 구석기 각종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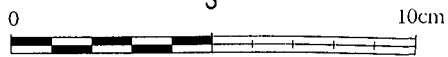


그림 34. 용인군 수습 구석기 각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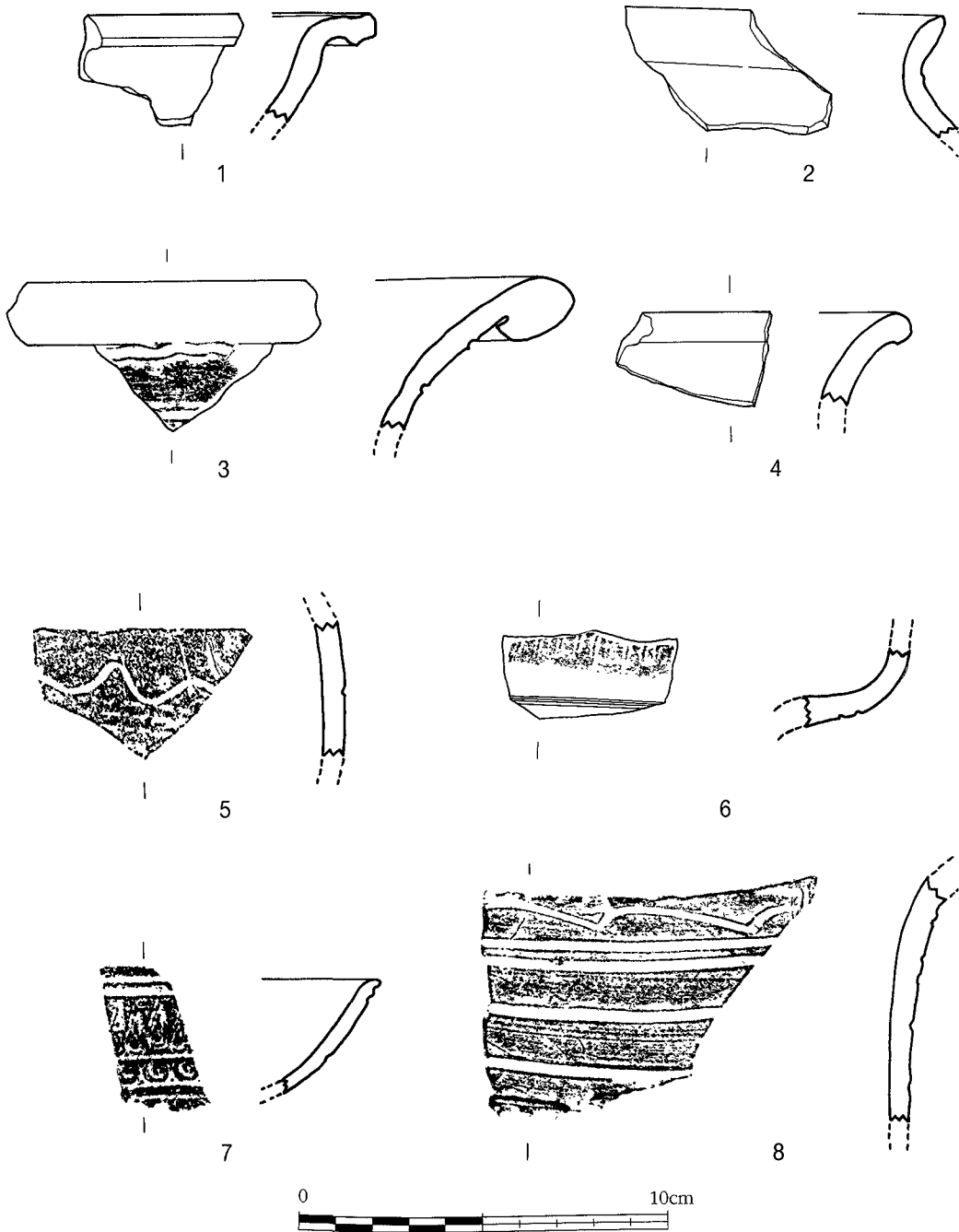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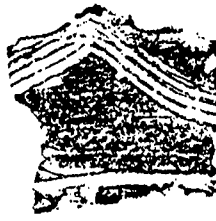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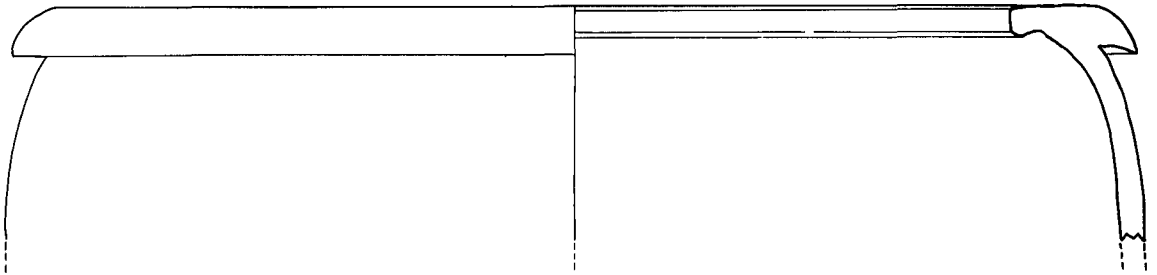
그림 35. 모현면 초부리 하초하 수습 통일신라시대 토기편 각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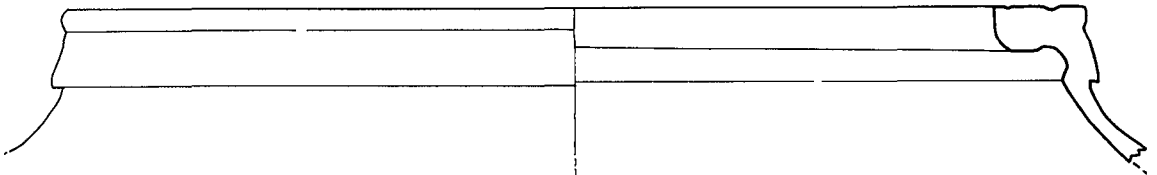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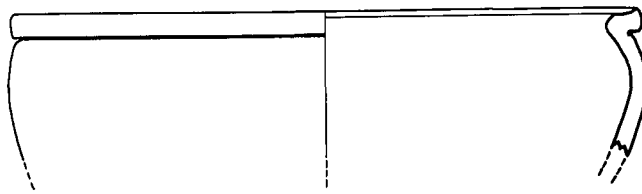
2



3



4



5



그림 36. 모현면 왕산리 초부리 수습 유물 각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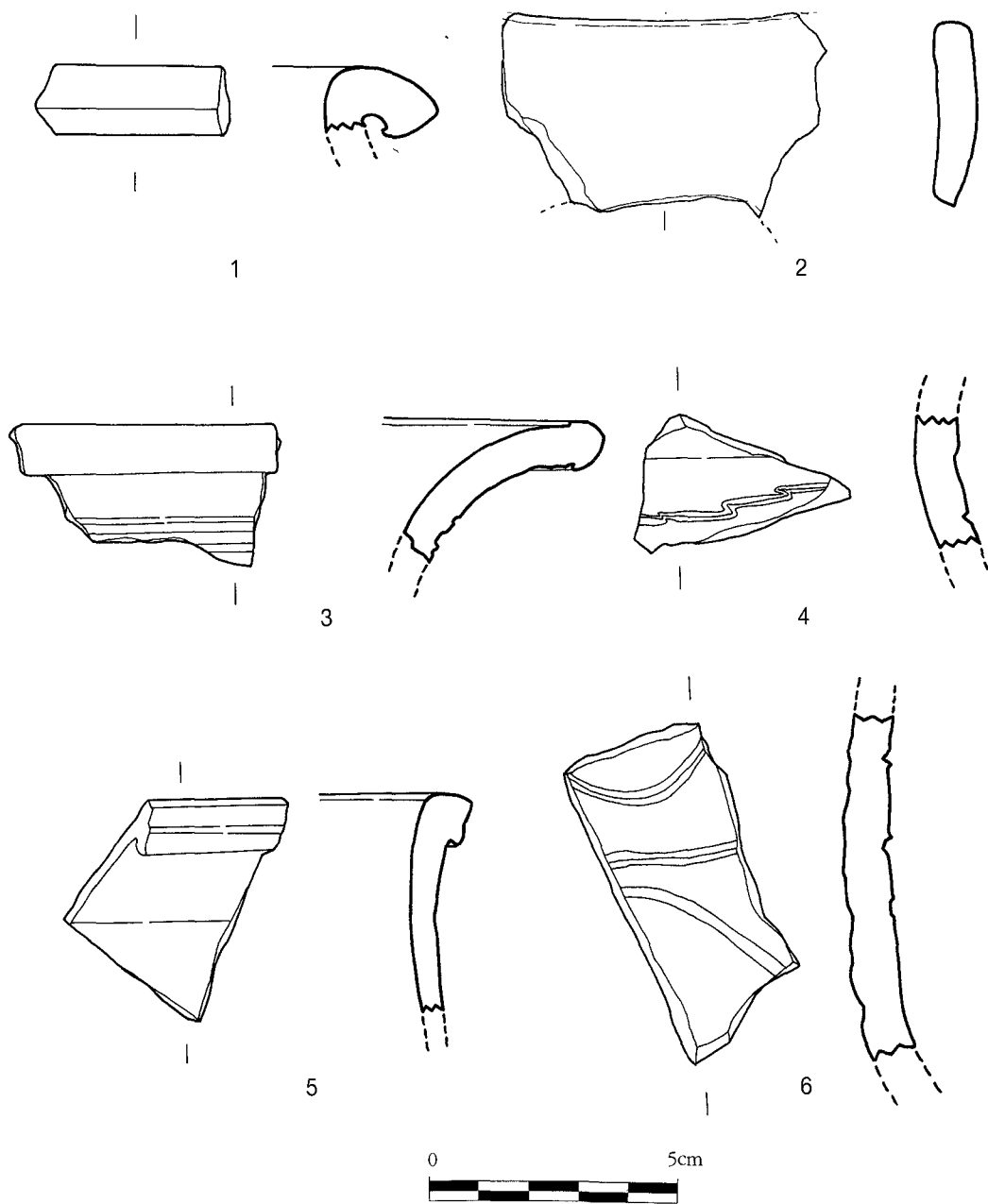


그림 37. 포곡면 금어리 용인읍 운학리 수습 유물 각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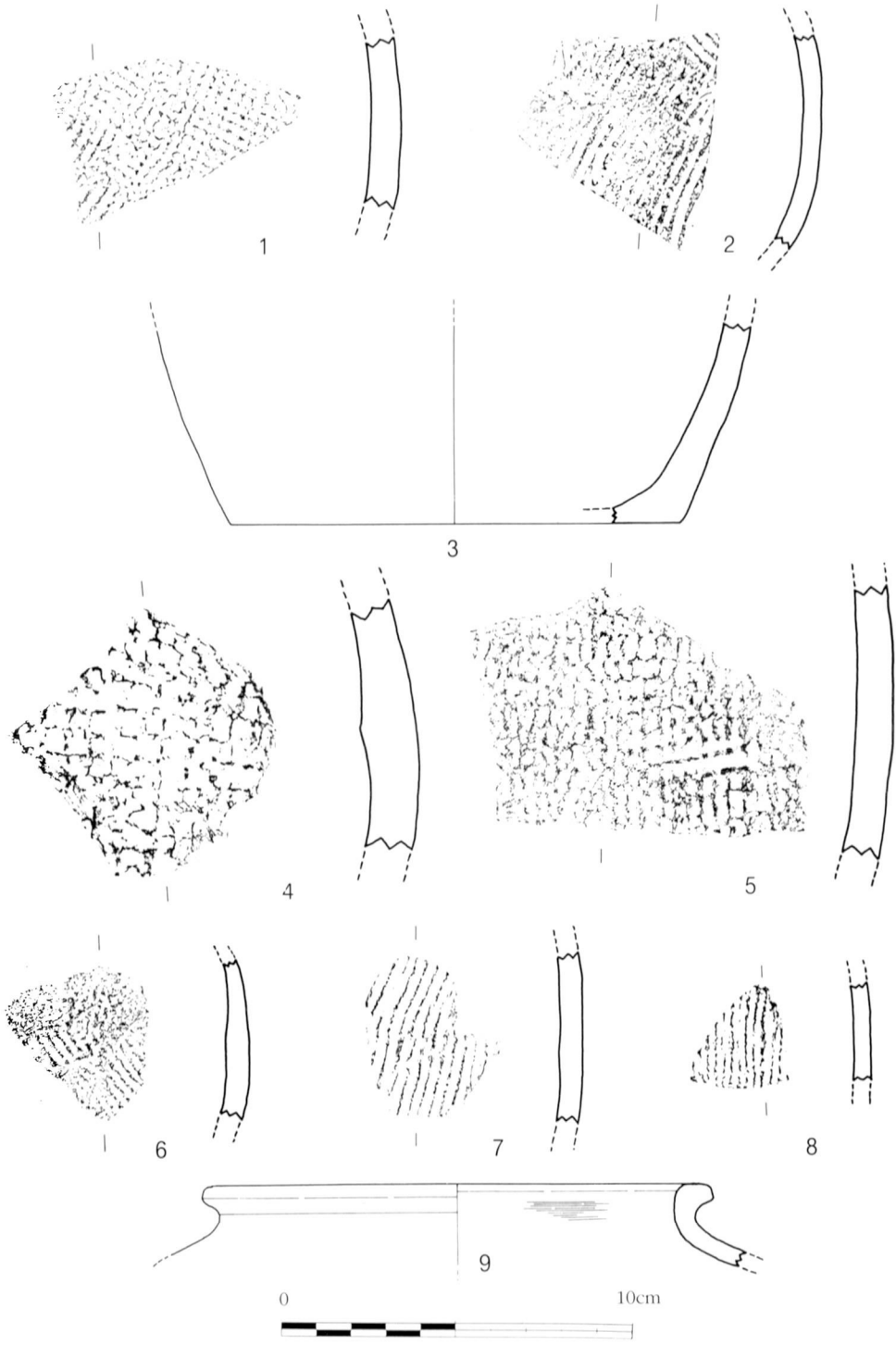


그림 38. 원삼면 고담리 수습 유물 각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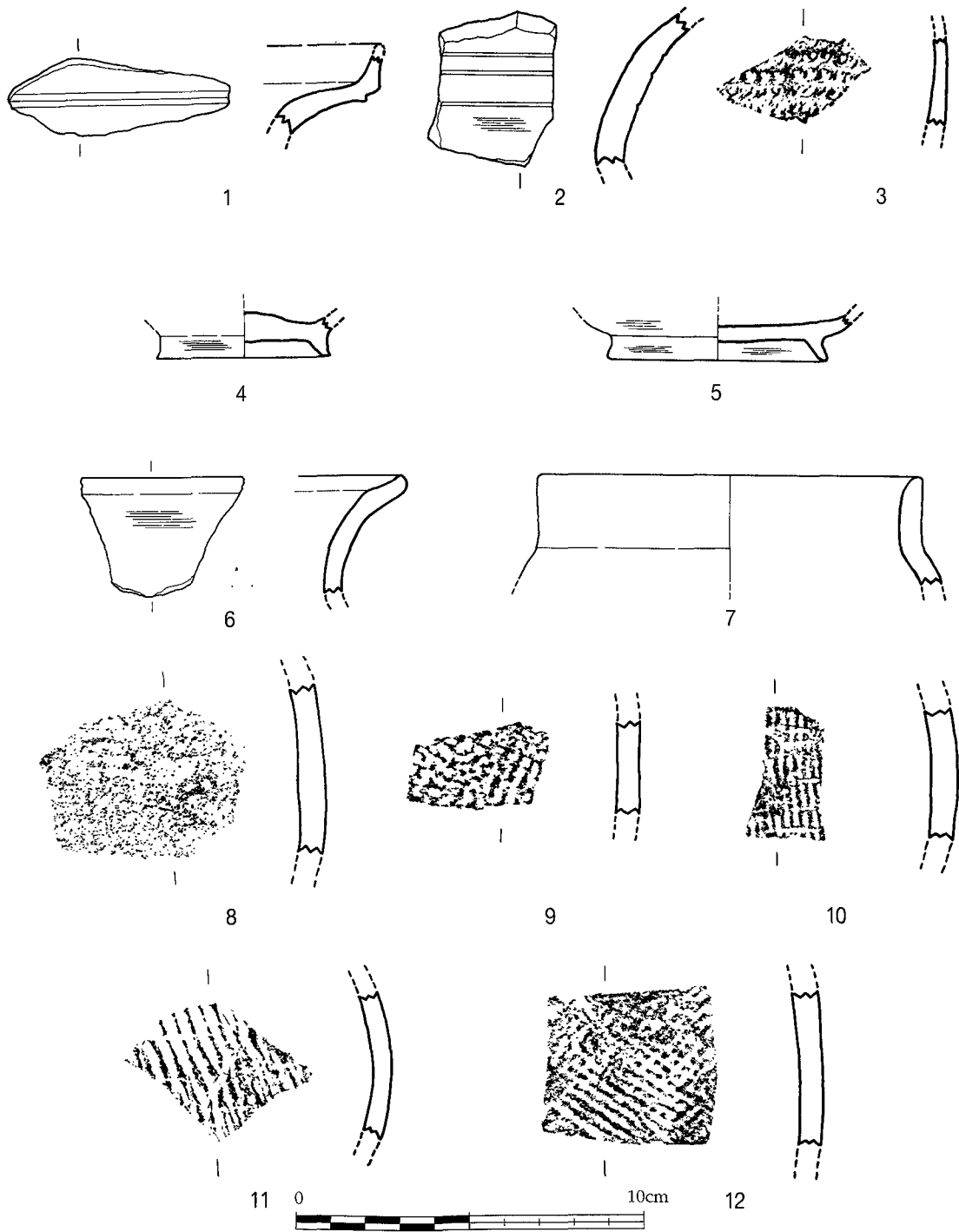


그림 39. 원삼면 사암리·맹리 수습 유물 각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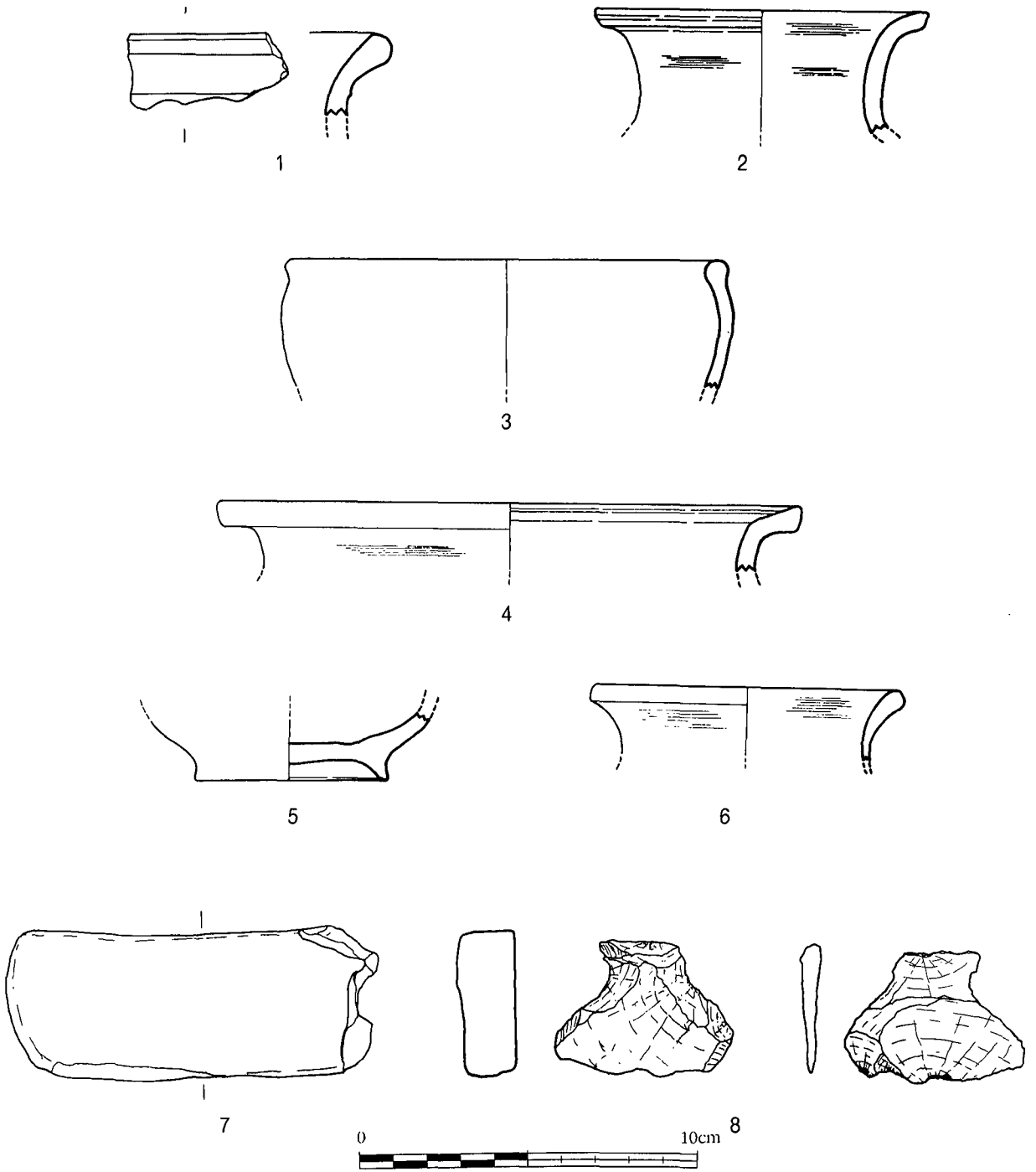


그림 40. 원삼면 두창리 수습 유물 각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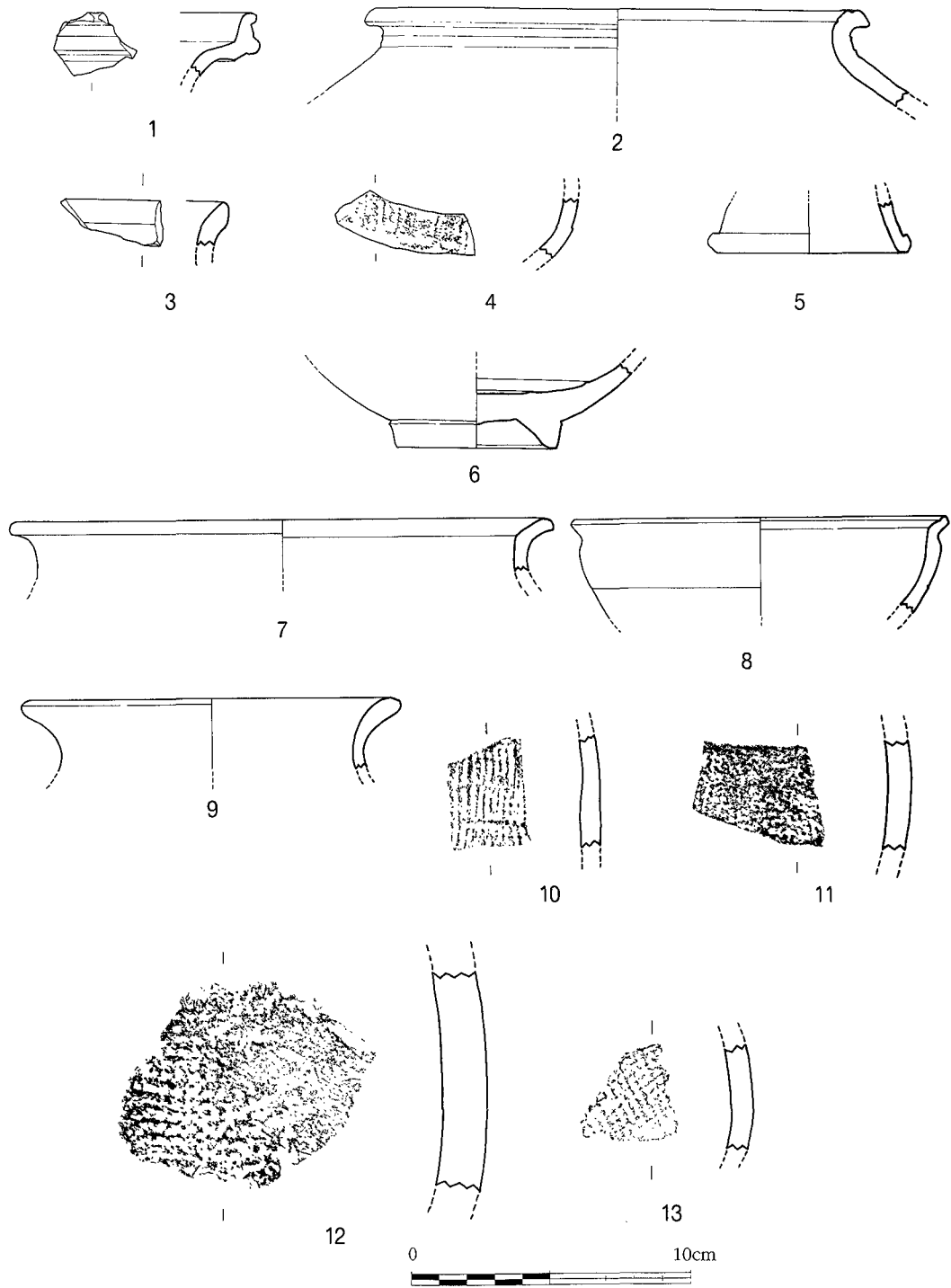


그림 41. 외사면 용천리·외사면 도담리 수습 유물 각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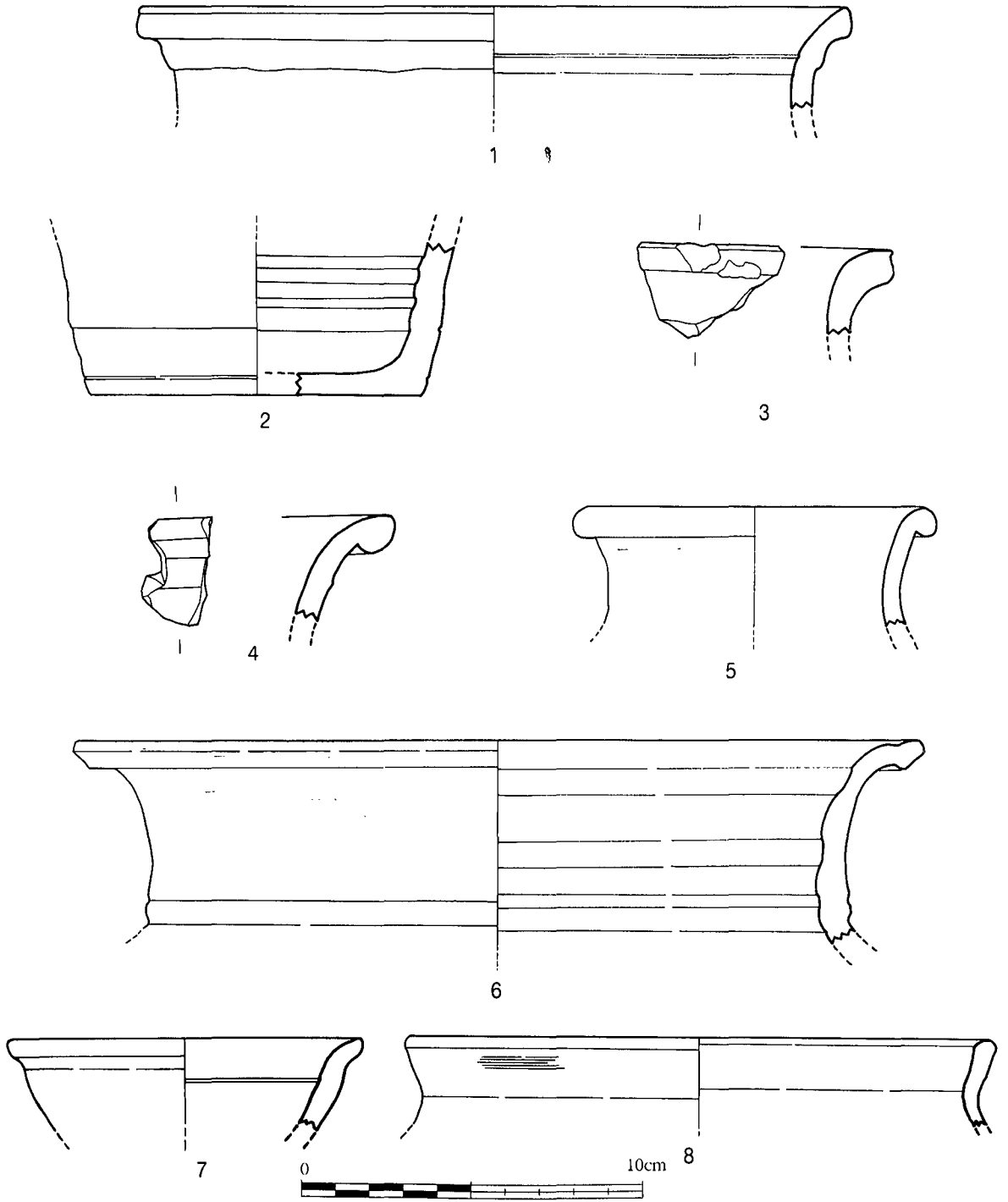


그림 42. 외사면 초담리 영곡·내사면 대대리 수습 유물 각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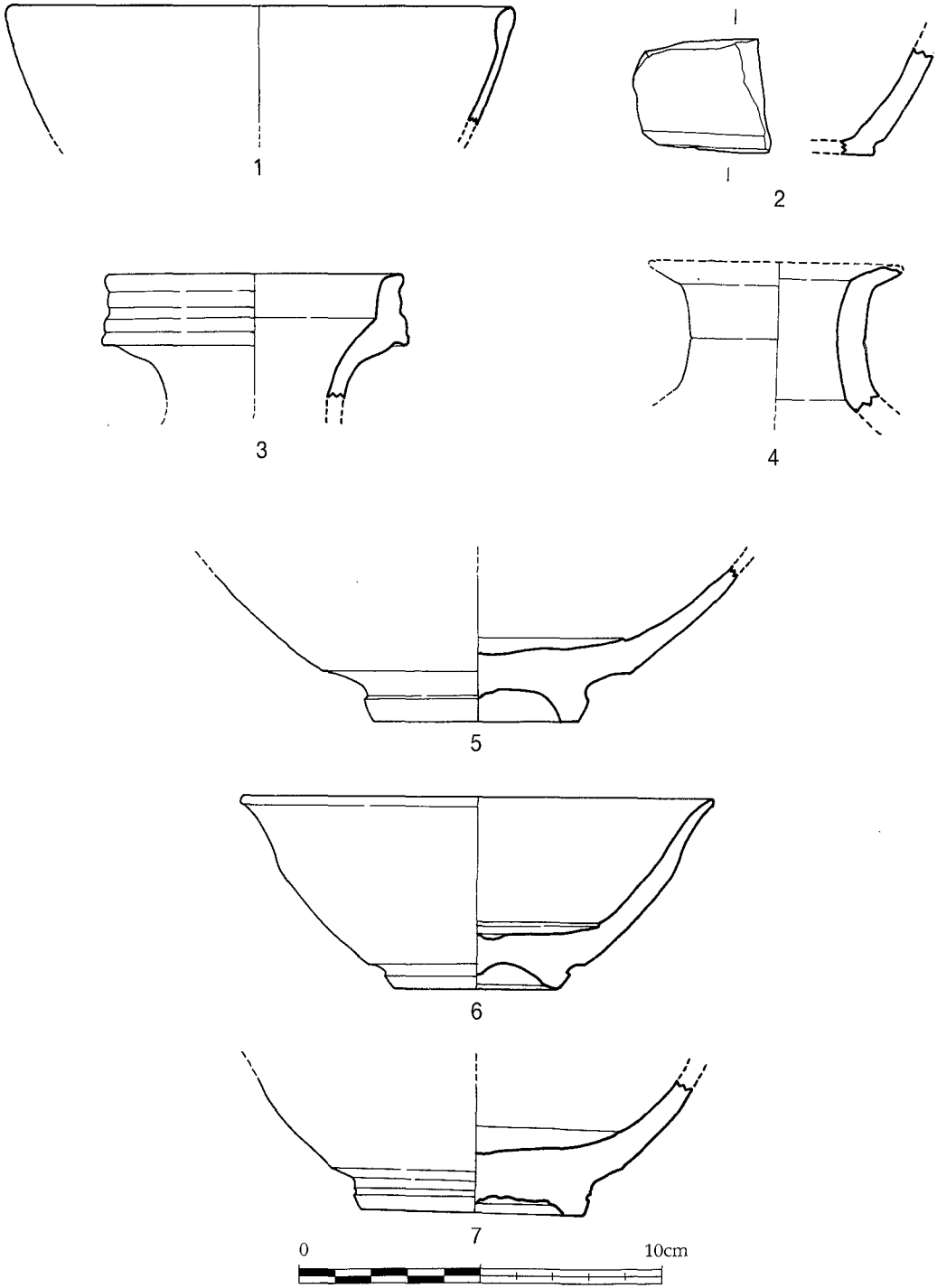


그림 43. 내사면 정수리·내사면 대대리 수습 유물 각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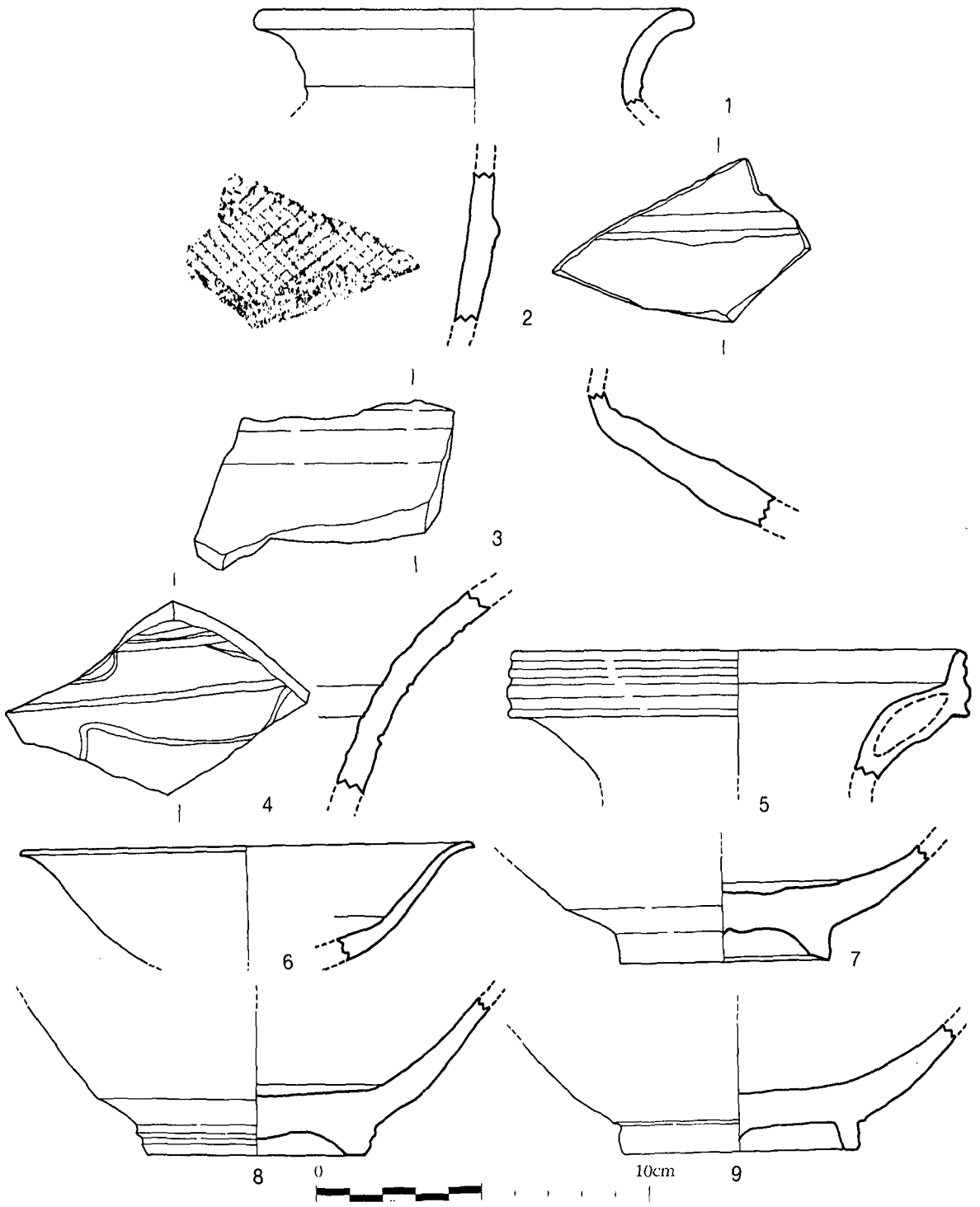


그림 44. 이동면 적동·목리·덕성리 수습 유물 각종



사진 1. 모현면 신원리 지석묘 유적 전경



사진 2. 모현면 신원리 건물지 전경



사진 3. 모현면 신원리 건물지 수습 기와편



사진 4. 모현면 신원리 건물지 수습 기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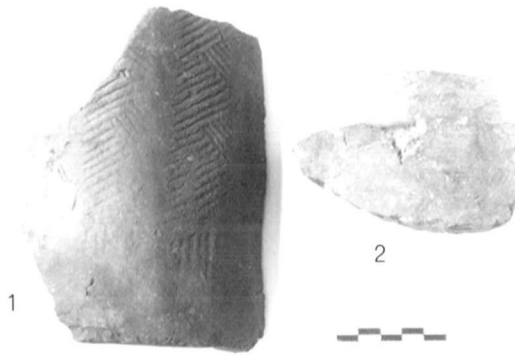


사진 5. 모현면 신원리 건물지 수습 기와편



사진 6. 모현면 신원리 건물지 수습 백자편



사진 7. 모현면 일산리 중촌 자기산포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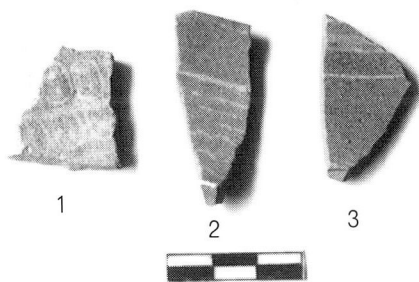


사진 8. 모현면 일산리 중촌 자기산포지 수습 분청사기편



사진 9. 모현면 일산리 중촌 자기산포지 수습 토기편



사진 10. 모현면 일산리 자기산포지 전경



사진 11. 모현면 일산리 자기산포지 수습 분청사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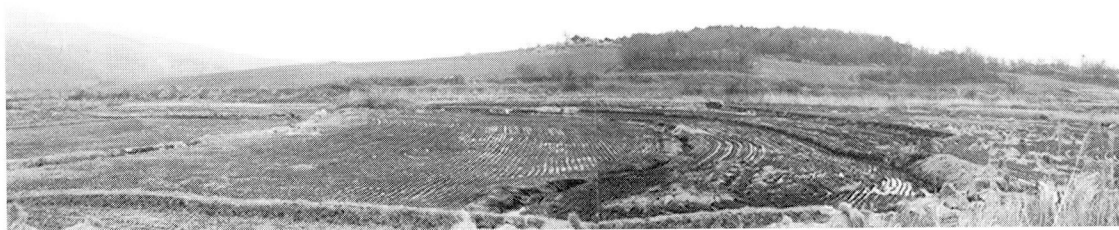


사진 12. 모현면 갈담리 구석기시대 유적 전경



사진 13. 모현면 갈담리 구석기시대 유적 수습 몸돌

사진 14. 모현면 갈담리 구석기시대 유적 수습 몸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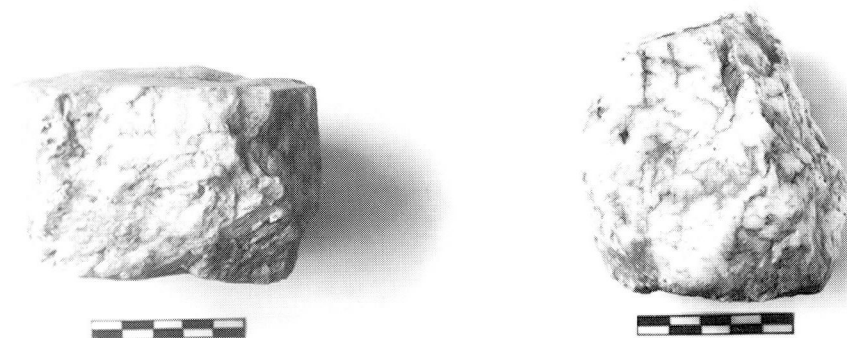


사진 15. 모현면 갈담리 구석기시대 유적 수습 몸돌

사진 16. 모현면 갈담리 구석기시대 유적 수습 찌개



사진 17. 모현면 갈담리 구석기시대 유적 수습 찍개



사진 18. 모현면 갈담리 구석기시대 유적 수습 찍개



사진 19. 모현면 갈담리 구석기시대 유적 수습 찍개



사진 20. 모현면 갈담리 구석기시대 유적 수습 찍개



사진 21. 모현면 갈담리 구석기시대 유적 수습 백자 저부편



사진 22. 모현면 갈담리 구석기시대 유적 수습 토기구연부편



사진 23. 모현면 갈담리 갈월부락 구석기시대 유적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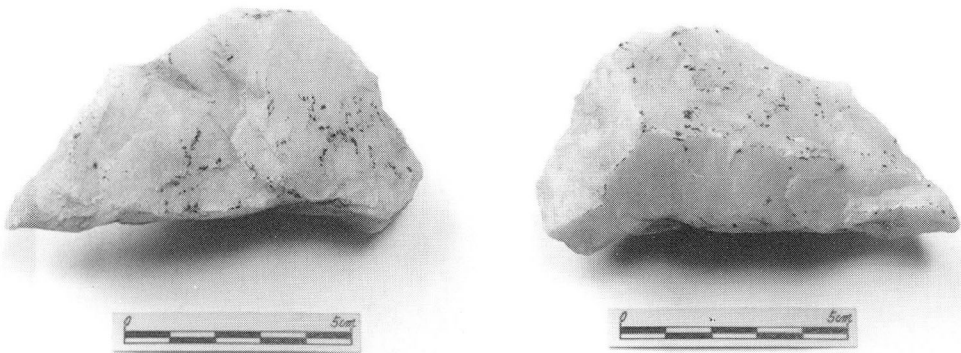


사진 24. 모현면 갈담리 갈월부락 석기



사진 25. 모현면 초부리 하초하 통일신라시대 토기 산포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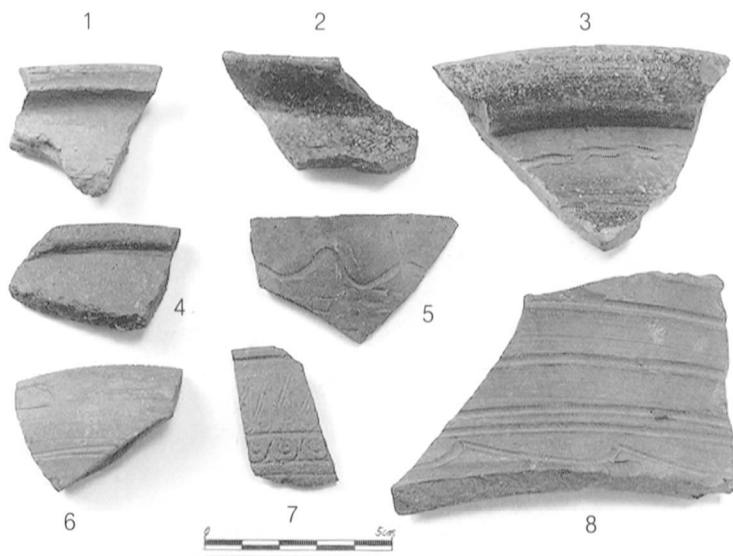


사진 26. 모현면 초부리 하초하 통일신라시대 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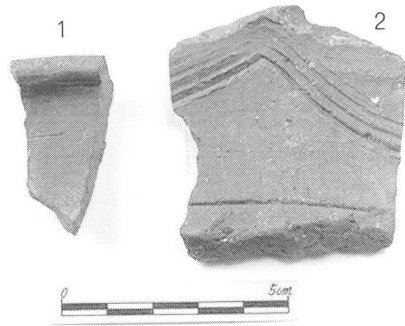


사진 27. 모현면 왕산리 출토 통일신라시대 토기



사진 28. 모현면 초부리 상초하 용기 요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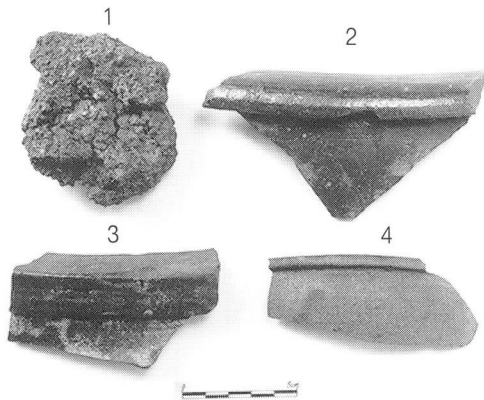


사진 29. 모현면 초부리 상초하 용기



사진 30. 포곡면 마성리 영골 자기산포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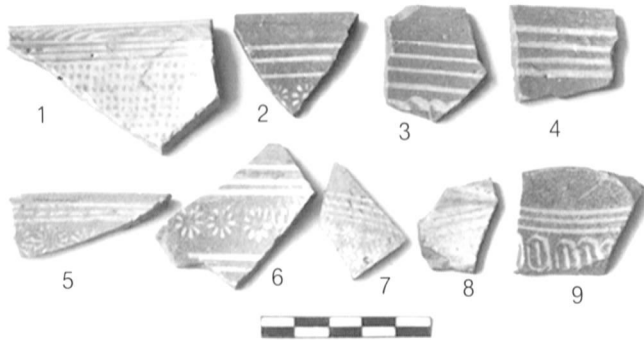


사진 31. 포곡면 마성리 영골 자기산포지 수습 분청사기편



사진 32. 포곡면 마성리 영골 자기산포지 수습 분청사기 저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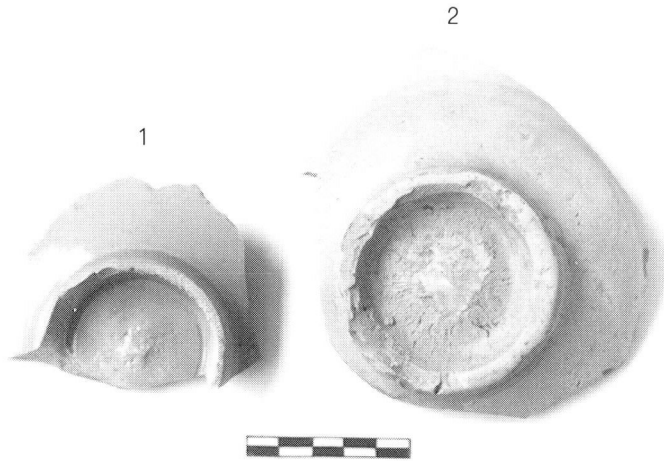


사진 33. 포곡면 마성리 영골 자기산포지 수습 백자 저부편



사진 34. 포곡면 마성리 영골 자기산포지 수습 백자 저부편



사진 35. 포곡면 유운리 1호 지석묘



사진 36. 포곡면 유운리 1호 지석묘 하부구조 상태



사진 37. 포곡면 유운리 2호 지석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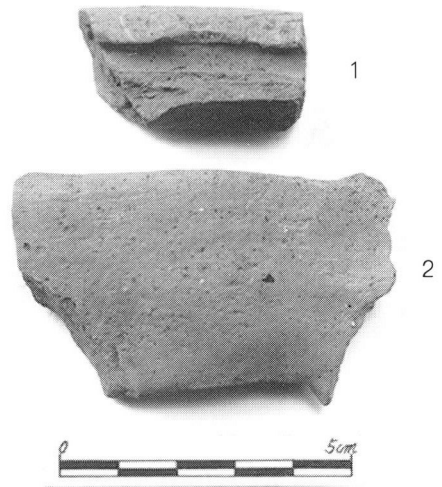


사진 39. 포곡면 금어리 어매실 수습 유물



사진 38. 포곡면 유운리 선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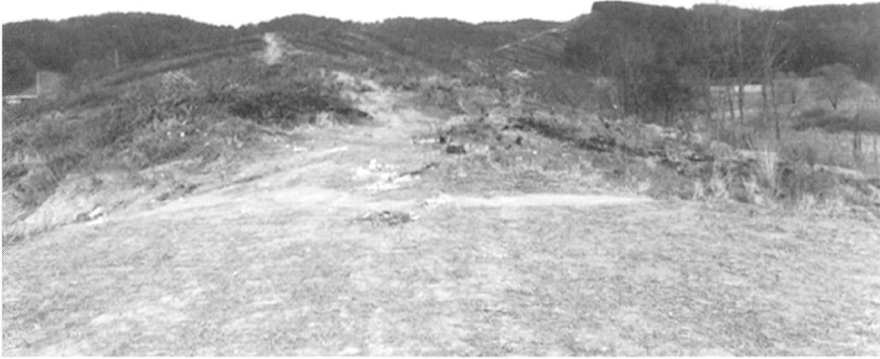


사진 40. 구성면 마북리 백제토기산포지 전경



사진 41. 구성면 마북리 백제토기산포지 수습 타날문 토기편



사진 42. 구성면 상하리 백자산포지 전경



사진 43. 구성면 상하리 백자산포지 수습 백자편



사진 44. 구성면 상하리 백자산포지 수습 백자 저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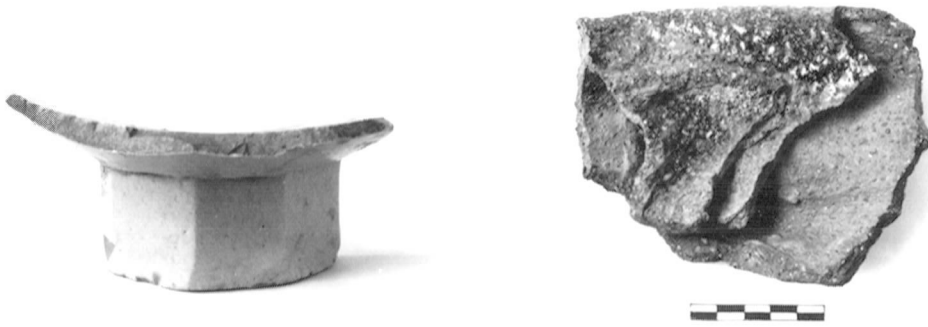


사진 45. 구성면 상하리 백자산포지 수습 제기 저부편 사진 46. 구성면 상하리 백자산포지 수습 옹기편



사진 47. 구성면 상하리 백자산포지 수습 수키와 사진 48. 구성면 상하리 백자산포지 수습 수키와



사진 49. 구성면 보정리 연원부락 백자산포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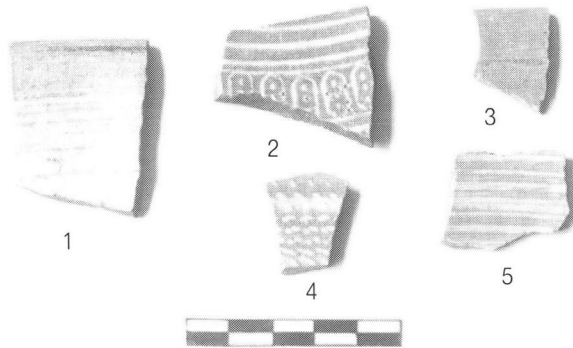


사진 50. 구성면 보정리 연원부락 백자산포지 수습 분청사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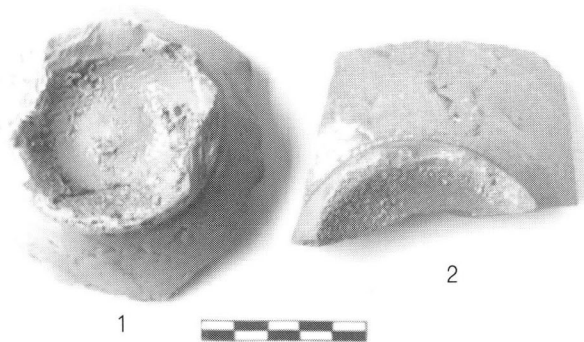


사진 51. 구성면 보정리 연원부락 백자산포지 수습 백자 저부편



사진 52. 구성면 보정리 연원부락 백자산포지 수습 백자 저부편



사진 53. 구성면 보정리 연원부락 백자산포지 수습 토기편



사진 54. 구성면 동백리 토기산포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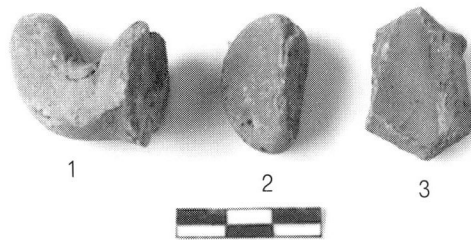


사진 55. 구성면 동백리 토기산포지 수습 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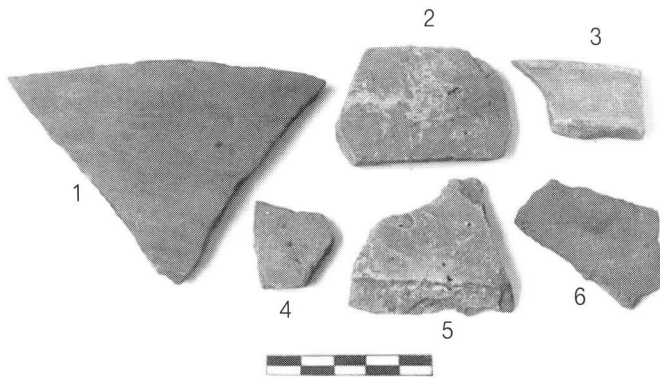


사진 56. 구성면 동백리 토기산포지 수습 토기편



사진 57. 용인시 역북동 고층 전경



사진 58. 용인시 역북동 자기산포지 전경



사진 59. 용인시 역북동 자기산포지 수습 백자 저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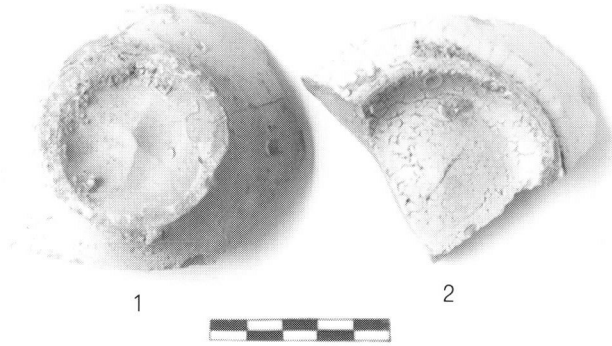


사진 60. 용인시 역북동 자기산포지 수습 백자 저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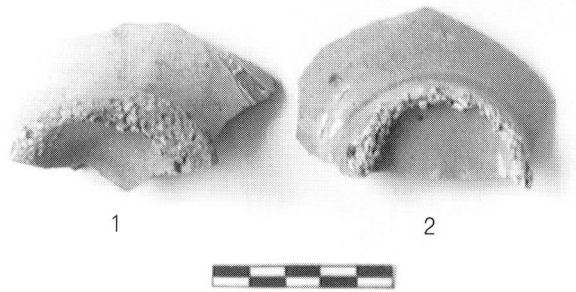


사진 61. 용인시 역북동 자기산포지 수습 백자 저부편



사진 62. 용인시 운학동 자기산포지 수습 토기편



사진 63. 원삼면 고당리 삼국시대 토기 산토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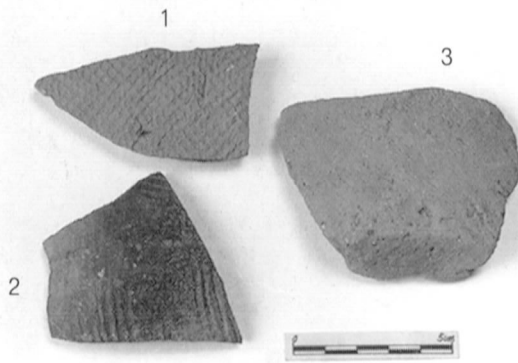


사진 64. 원삼면 고당리 삼국시대 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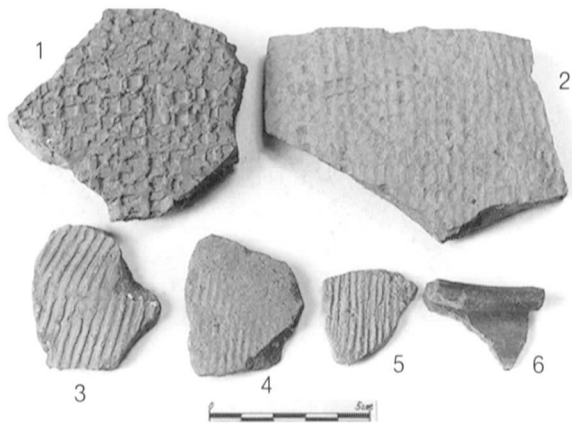


사진 65. 원삼면 고당리 삼국시대 토기



사진 66. 원삼면 사암리 지석묘



사진 67. 원삼면 사암리 모래실 통일신라시대 토기 산포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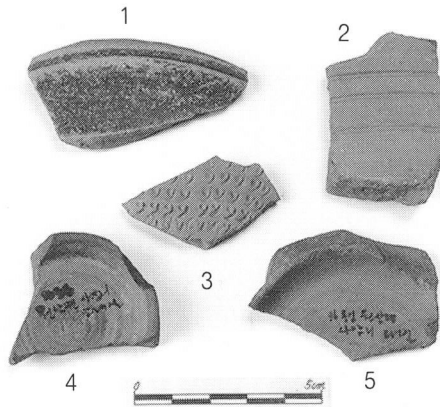


사진 68. 원삼면 사암리 모래실 통일신라시대 토기



사진 69. 원삼면 사암리 수습 숫돌(①), 통일신라시대 토기편(②)



사진 70. 원삼면 맹리 행군이 삼국시대 토기 산포지 전경



사진 71. 원삼면 맹리 행군이 삼국시대 토기



사진 72. 원삼면 목신리 신촌마을 구석기시대 유적 전경



사진 73. 원삼면 목신리 신촌마을 석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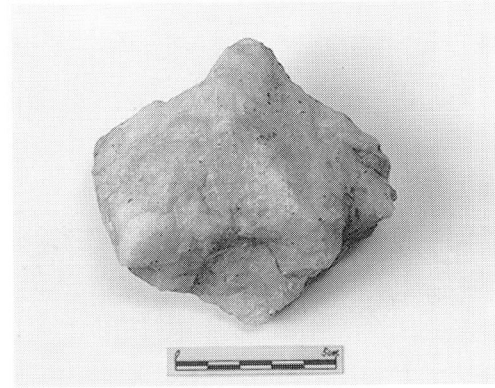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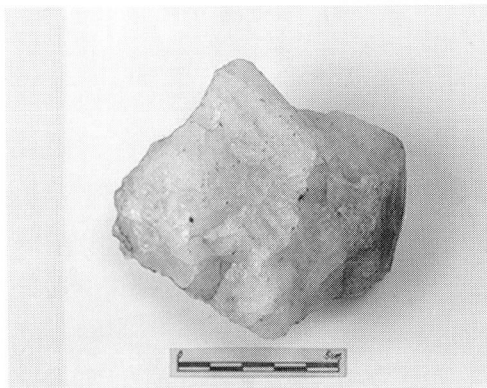


사진 74. 원삼면 목신리 신촌마을 석기



사진 75. 원삼면 두창리·죽릉리·목신리 신촌마을 수습 토기편



사진 76. 원삼면 좌항리 수습 토기편



사진 77. 백암면 석천리 황세울 수습 석기



사진 78. 원삼면 두창리
3층 석탑



사진 79. 원삼면 두창리 선돌



사진 80. 원삼면 사암리 선돌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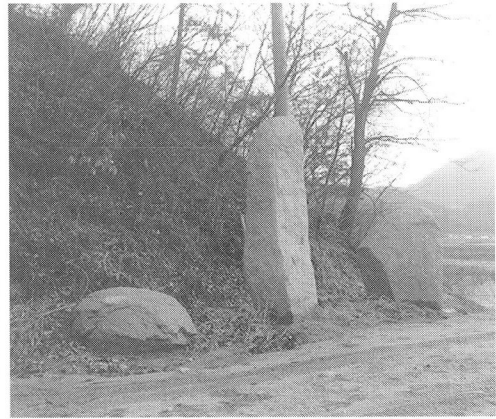


사진 81. 원삼면 사암리 선돌군



사진 82. 백암면 용천리 통일신라시대 토기 산포지 전경



사진 83. 백암면 용천리 통일신라시대 토기



사진 84. 백암면 용천리 수습 조선백자



사진 85. 백암면 근창리 새터말 통일신라시대 토기 산포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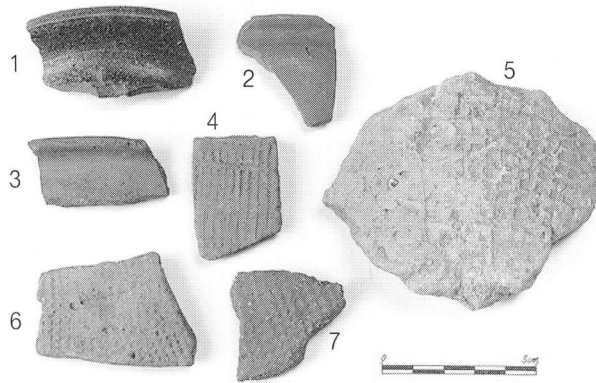


사진 86. 백암면 근창리 새터말 통일신라시대 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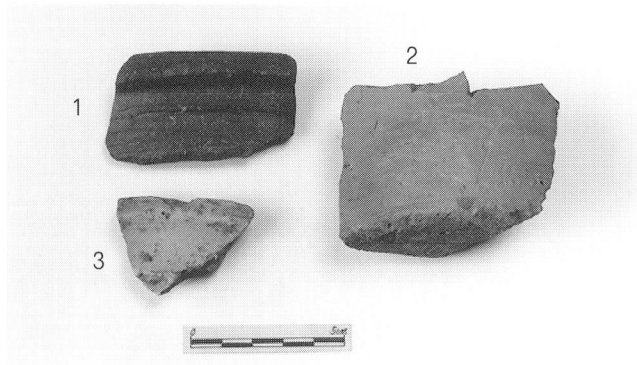


사진 87. 백암면 근삼리 영곡 수습 토기편



사진 88. 양지면 대대리 무량 삼국시대 토기 산포지 전경



사진 89. 양지면 대대리 무량 삼국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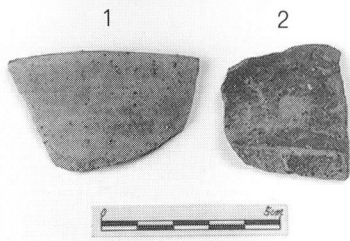


사진 90. 양지면 정수리 수습 회색연질토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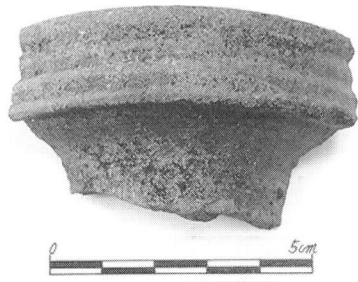


사진 91. 양지면 대대리 무량동 수습 통일신라시대 병 구연부



사진 92. 백암면 백암리 쓰레산 건물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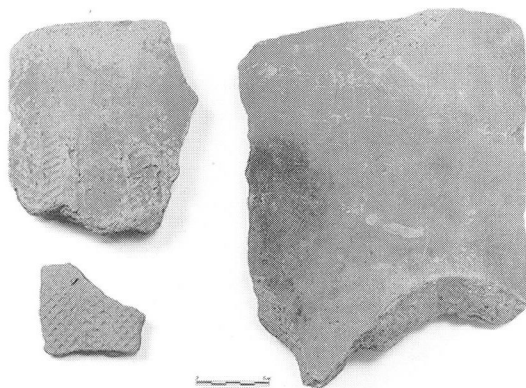


사진 93. 백암면 백암리 쓰레산 건물지 수습 기와편



사진 94. 양지면 대대리 사기점 조선백자 요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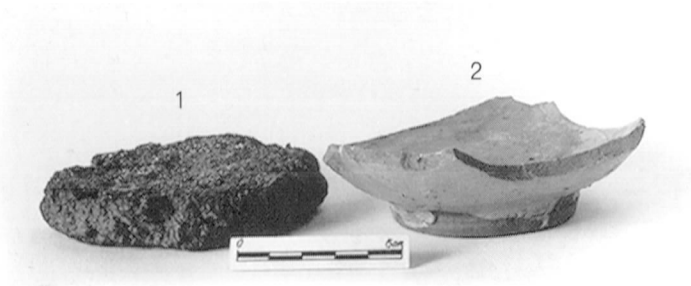


사진 95. 양지면 대대리 사기점 수습 조선백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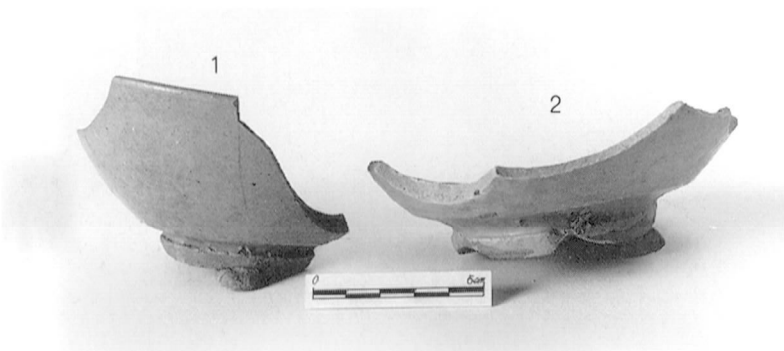


사진 96. 양지면 대대리 사기점 수습 조선백자



사진 97. 이동면 덕성리 구석기시대 유적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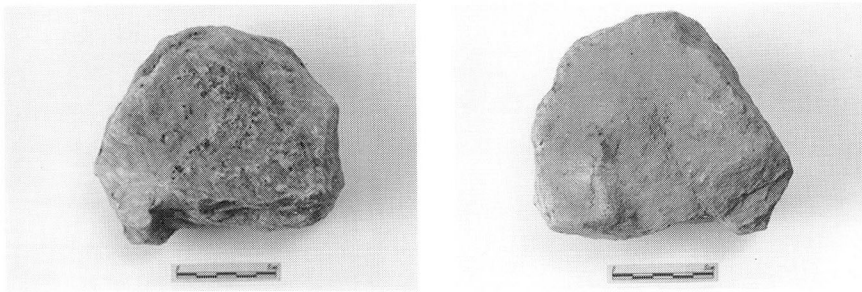


사진 98. 이동면 덕성리 석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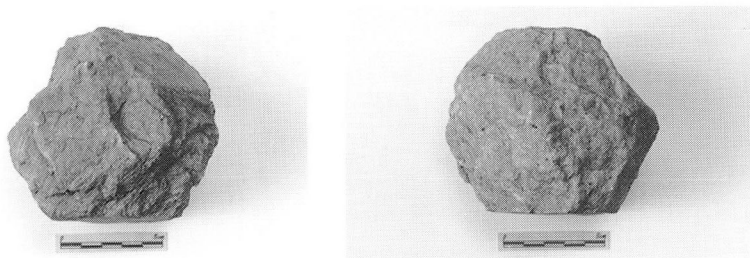


사진 99. 이동면 덕성리 석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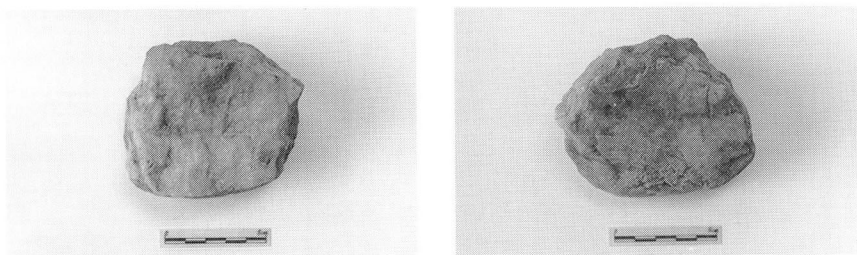


사진 100. 이동면 덕성리 석기



사진 101. 이동면 천리 삼국시대 토기산포지 전경



사진 102. 이동면 천리 수습 삼국시대 호 구연부



사진 103. 이동면 묵리 적동 통일신라시대 토기산포지 전경



사진 104. 이동면 묵리 적동 통일신라시대 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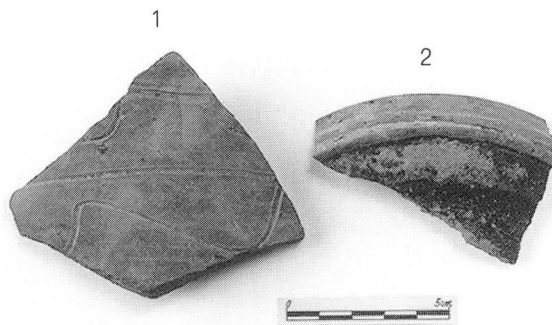


사진 105. 이동면 묵리 적동 통일신라시대 토기



사진 106. 이동면 목리 적동 조선백자 요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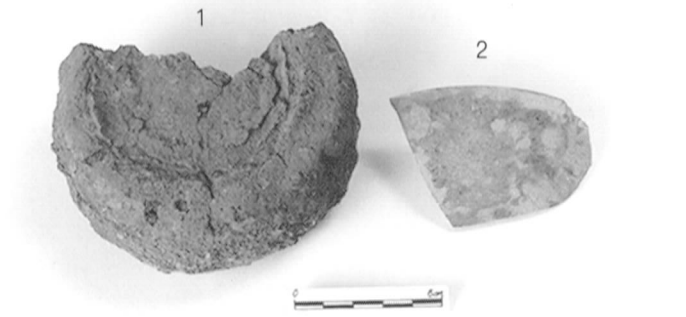


사진 107. 이동면 목리 적동 조선백자



사진 108. 이동면 목리 적동 조선백자



사진 109. 이동면 덕성리 조선백자 요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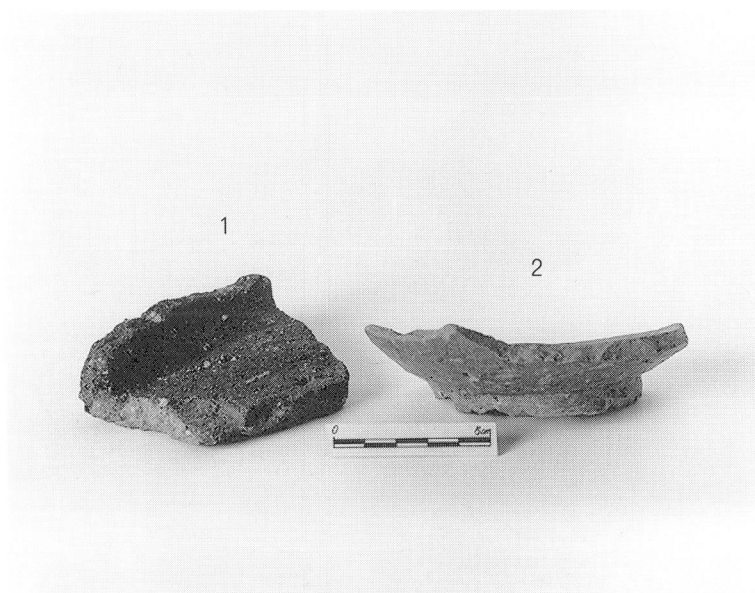


사진 110. 이동면 덕성리 조선백자



사진 111. 이동면 서리 상덕도요지 전경



사진 112. 이동면 서리 상덕도요지 수습 백자뚜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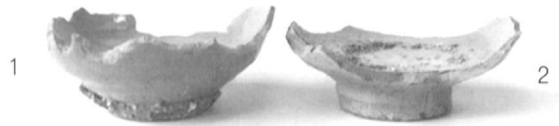


사진 113. 이동면 서리 상덕도요지 수습 백자 저부편



사진 114. 이동면 서리 상덕도요지 수습 백자 저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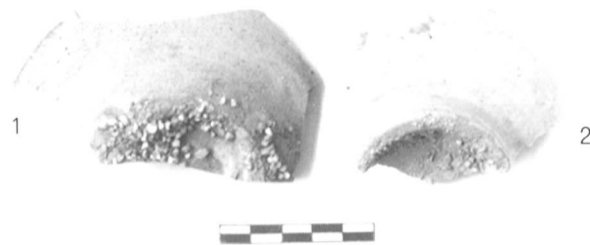


사진 115. 이동면 서리 상덕도요지 수습 백자 저부편



사진 116. 이동면 서3리 자기산포지 전경



사진 117. 이동면 서3리 자기산포지 수습 고려백자 저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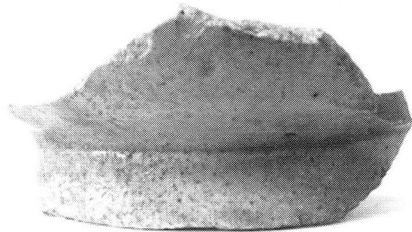


사진 118. 이동면 서3리 자기산포지 수습 고려백자 저부편



사진 119. 이동면 서3리 자기산포지 수습 고려백자 저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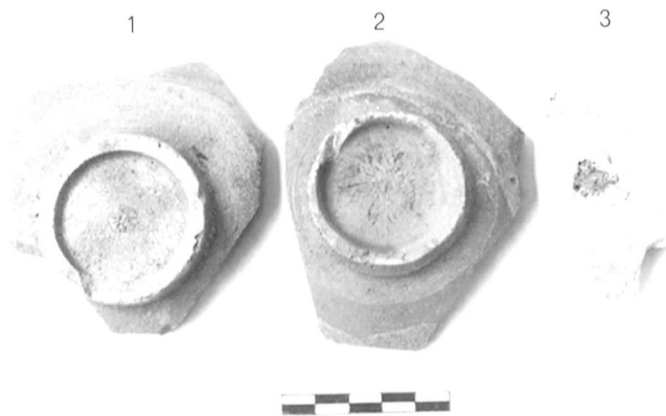


사진 120. 이동면 서3리 자기산포지 수습 고려백자 저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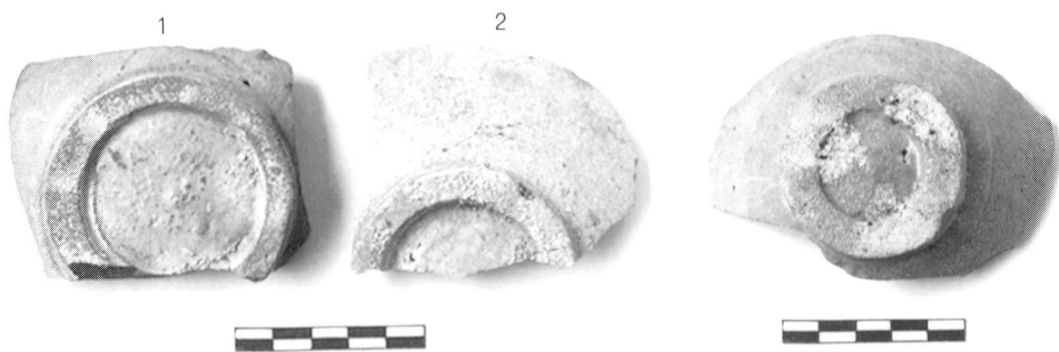


사진 121. 이동면 서3리 자기산포지 수습 고려백자 저부편

사진 122. 이동면 서3리 자기산포지 수습 고려백자 저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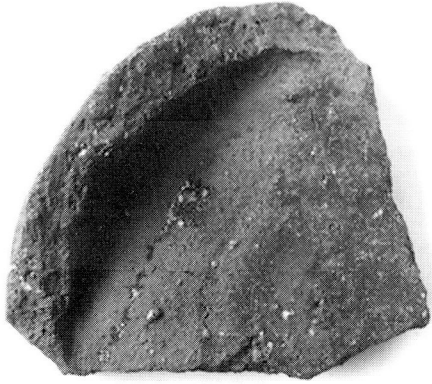


사진 123. 이동면 서3리
자기산포지
수습 감발편



사진 124. 이동면 서3리
자기산포지
수습 기와편



사진 125. 이동면 서3리
자기산포지
수습 기와편



사진 126. 이동면 서3리
자기산포지
수습 기와편



사진 127. 이동면 서리 사기막골 백자도요지 전경



사진 128. 이동면 서리 사기막골 백자도요지 수습 도지미



사진 129. 이동면 서리 사기막골 백자도요지 수습 분청사기저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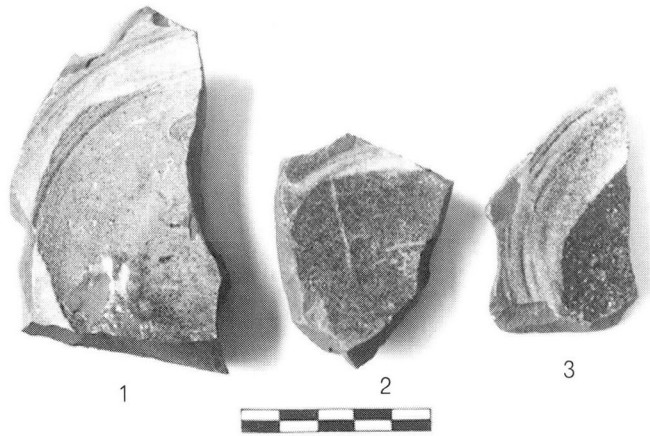


사진 130. 이동면 서리 사기막골 백자도요지 수습 백자대접



사진 131. 이동면 서리 사기막골 백자도요지 수습 백자대접

사진 132. 이동면 서리 사기막골 백자도요지 수습 백자대접



사진 133. 이동면 서리 사기막골 백자도요지 수습 백자대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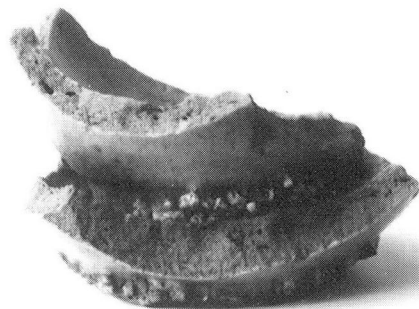


사진 134. 이동면 서리 사기막골 백자도요지 수습 백자대접편



사진 135. 이동면 서리 사기막골 백자도요지 수습 백자저부편



사진 136. 이동면 서리 사기막골 백자도요지 수습 백자저부편



사진 137. 이동면 서리 사기막골 백자도요지 수습 흑유자기병 구연부편



사진 138. 이동면 서리 사기막골 분청사기도요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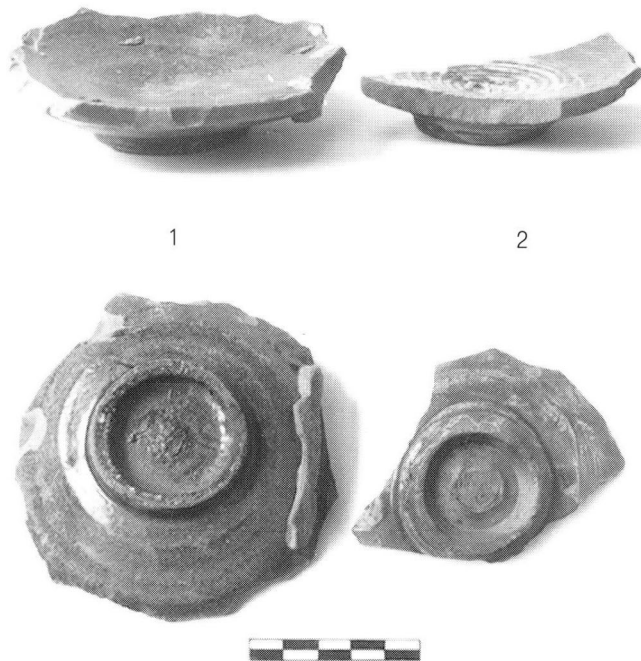


사진 139. 이동면 서리 사기막골 분청사기도요지 수습 분청사기저부편



사진 140. 이동면 서리 사기막골 분청사기도요지 수습 저부편



사진 141. 이동면 서리 사기막골 분청사기도요지 수습 저부편



사진 142. 이동면 서리 사기막골 분청사기도요지 수습 저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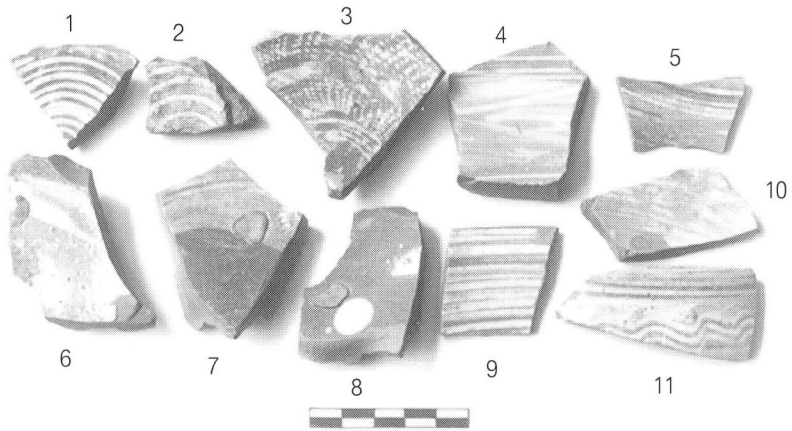


사진 143. 이동면 서리 사기막골 분청사기도요지 수습 분청사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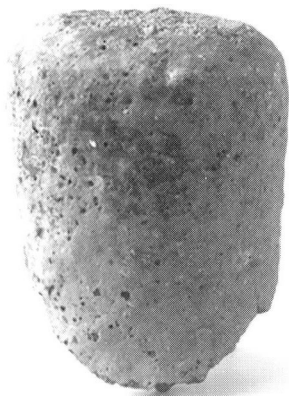


사진 144. 이동면 서리 사기막골 분청사기
도요지 수습 원통도지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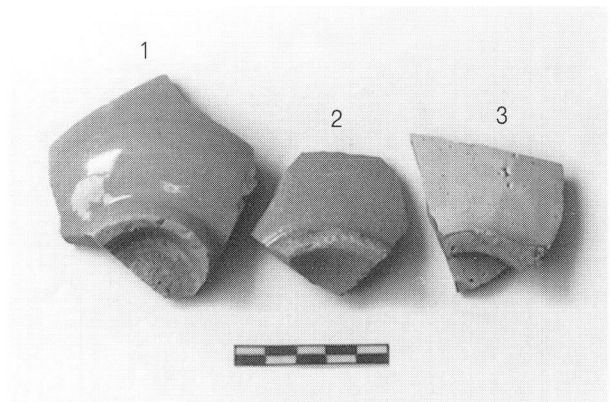


사진 145. 이동면 서리 사기막골 분청사기도요지
수습 백자저부편



사진 146. 이동면 서리 상반곡 고려백자도요지 원경



사진 147. 이동면 서리 상반곡 고려백자도요지 집중산포지 1



사진 148. 이동면 서리 상반곡 고려백자도요지 집중산포지 2



사진 149. 이동면 서리 상반곡 고려백자도요지 집중산포지 3



사진 150. 이동면 서리 상반곡 고려백자도요지 집중산포지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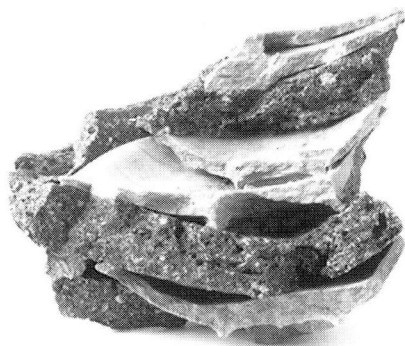


사진 151. 이동면 서리 상반곡 고려백자도요지 수습 고려백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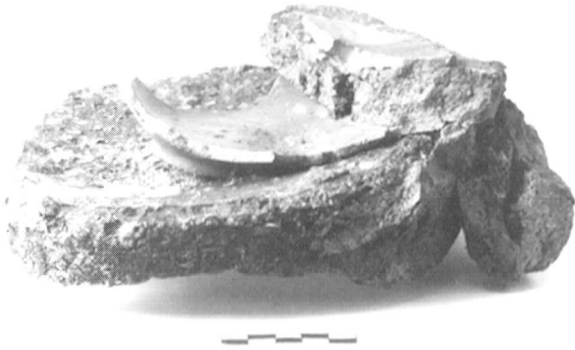


사진 152. 이동면 서리 상반곡 고려백자도요지
수습 고려백자



사진 153. 이동면 서리 상반곡 고려백자
도요지 수습 고려백자



사진 154. 이동면 서리 상반곡 고려백자도요지
수습 고려백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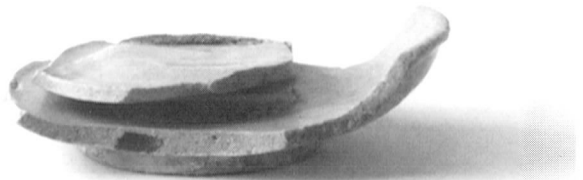


사진 155. 이동면 서리 상반곡 고려백자도요지
수습 고려백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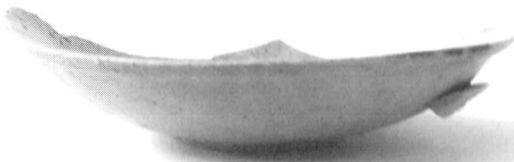


사진 156. 이동면 서리 상반곡 고려백자도요지
수습 고려백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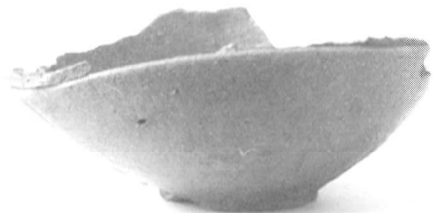


사진 157. 이동면 서리 상반곡 고려백자
도요지 수습 고려백자



사진 158. 이동면 서리 상반곡 고려백자도요지 수습 고려백자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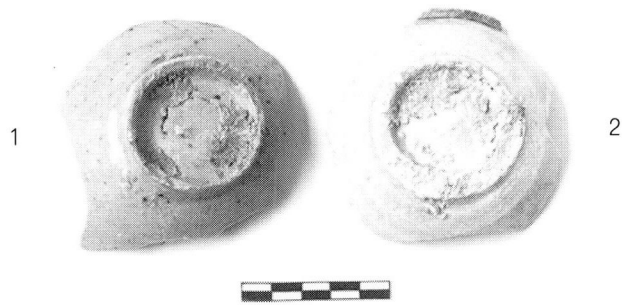


사진 159. 이동면 서리 상반곡 고려백자도요지 수습 고려백자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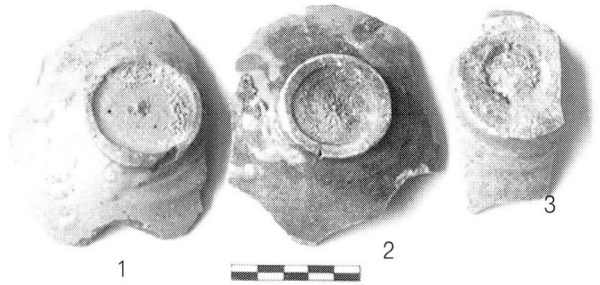


사진 160. 이동면 서리 상반곡 고려백자도요지 수습 고려백자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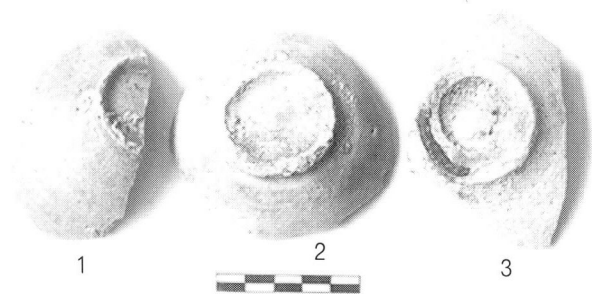


사진 161. 이동면 서리 상반곡 고려백자도요지 수습 고려백자저부



사진 162. 이동면 서리 상반곡 고려백자도요지
수습 명문있는 고려백자 구연부



사진 163. 이동면 서리 상반곡 고려백자도요지
수습 고려백자 저부



사진 164. 이동면 서리 상반곡 고려백자도요지 수습 함의 뚜껑



사진 165. 이동면 서리 상반곡 고려백자도요지 수습 대형대접의 구연부



사진 166. 이동면 서리 상반곡 고려백자도요지 수습 고려백자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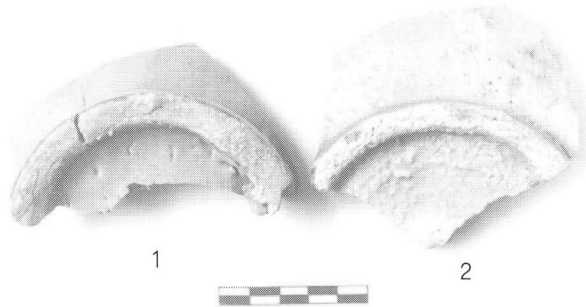


사진 167. 이동면 서리 상반곡 고려백자도요지 수습 고려백자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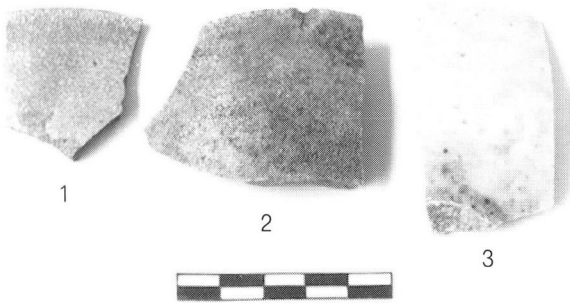


사진 168. 이동면 서리 상반곡 고려백자도요지 수습 고려백자구연부



사진 169. 이동면 서리 상반곡 고려백자도요지 수습 기와편



사진 170. 이동면 서리 하반곡 자기산포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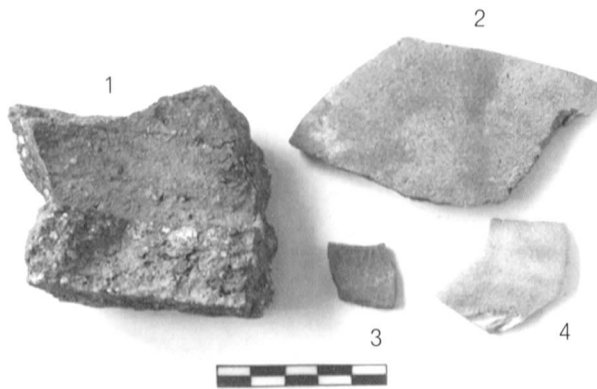


사진 171. 이동면 서리 하반곡 자기산포지 수습 감발 및 고려자기편

원문누락

원문누락

원문누락

원문누락

원문누락

원문누락

원문누락

원문구략

원문누락

원문누락

원문누락

원문구략

원문누락

원문구략

원문누락

원문누락



사진 221. 이동면 노곡 백자도요지 I 수습 백자대접 구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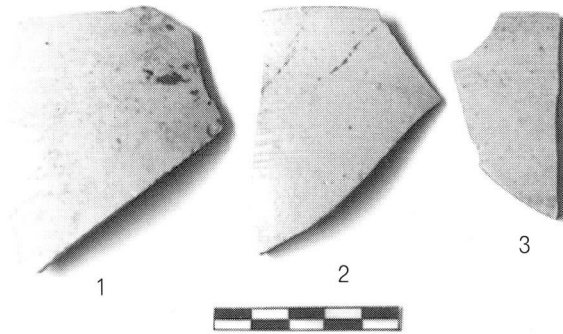


사진 222. 이동면 노곡 백자도요지 I 수습 백자구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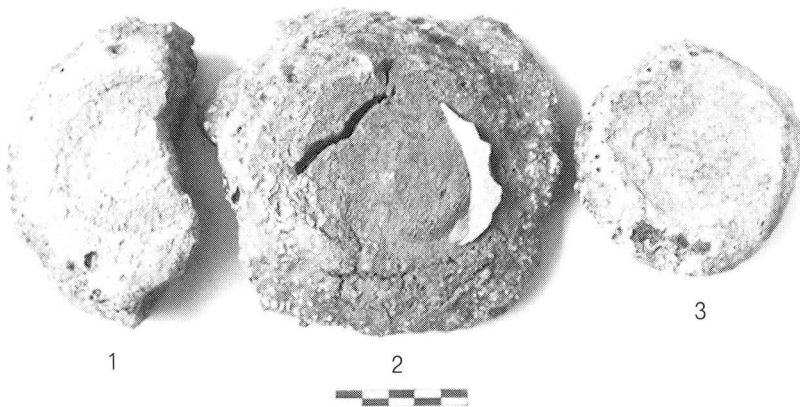


사진 223. 이동면 노곡 백자도요지 I 수습 도지미



사진 224. 이동면 노곡 백자도요지 I 수습 백자



사진 225. 이동면 노곡 백자도요지 I 주변 수습 분청사기편



사진 226. 이동면 노곡 백자도요지 I 주변 수습 녹청자편



사진 227. 이동면 노곡 백자도요지 I 주변 수습 토기편



사진 228. 이동면 노곡 백자도요지 II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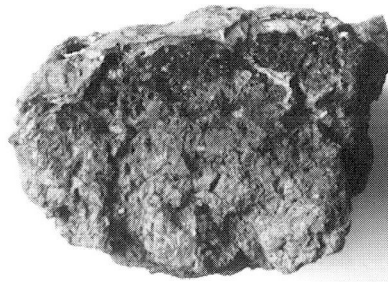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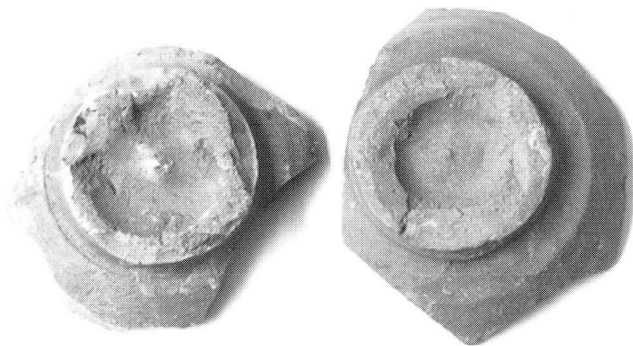


사진 229. 이동면 노곡 백자도요지 II 수습 가마벽 파편



1



2

사진 230. 이동면 노곡 백자도요지 II 백자저부편



사진 231. 남사면 완장리 자기산포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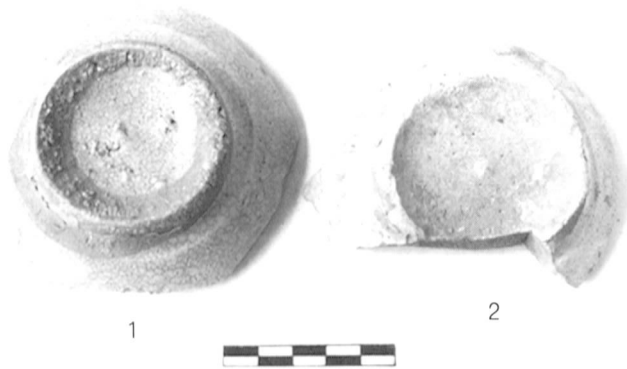


사진 232. 남사면 완장리 자기산포지 수습 백자저부편



사진 233. 남사면 완장리 자기산포지 수습 백자저부편



사진 234. 남사면 완장리 자기산포지 수습 백자저부편



사진 235. 남사면 완장리 자기산포지 수습 백자저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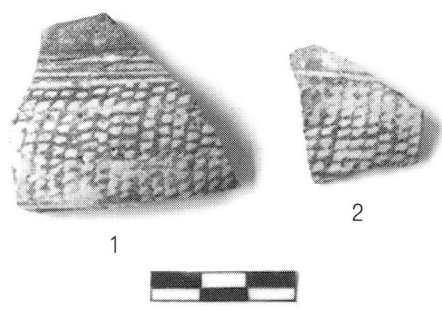


사진 236. 남사면 완장리 자기산포지 수습 분청사기편



사진 237. 남사면 완장리 자기산포지 수습 통일신라시대 토기편(1) 및 조선시대 토기편



사진 238. 남사면 완장리 자기산포지 수습 조선시대 토기편



사진 239. 남사면 완장리 자기산포지 수습 조선시대 토기 저부편



사진 240. 남사면 아곡리 자기산포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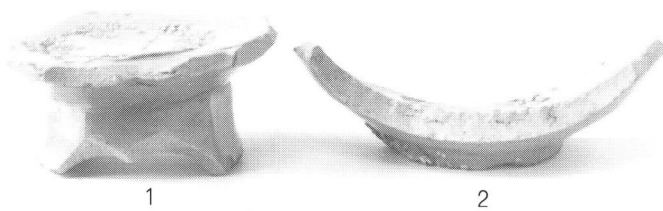


사진 241. 남사면 아곡리 자기산포지 수습 백자저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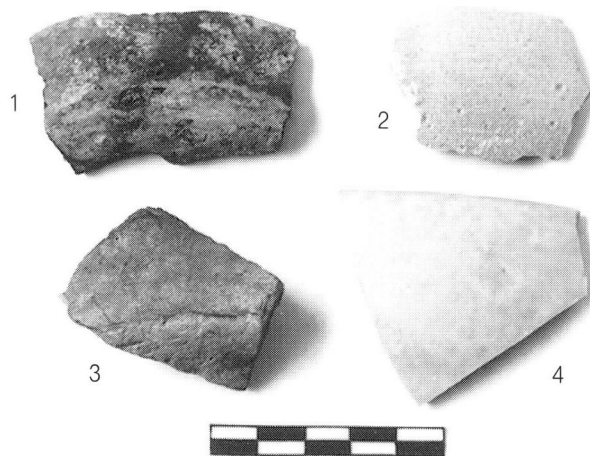


사진 242. 남사면 아곡리 자기산포지 수습 자기 및 토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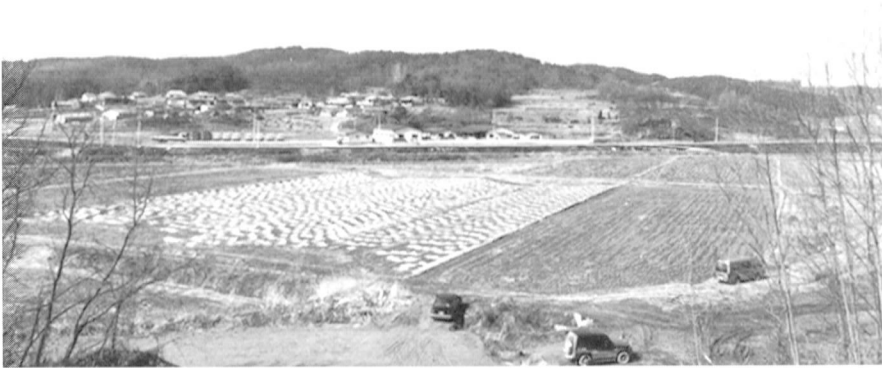


사진 243. 남사면 봉무리 도장골유적 원경
(① 구석기시대 지점 : ② 반마제석부 수습지점 : ③ 사지)



사진 244. 남사면 봉무리 도장골유적 근경



사진 245. 남사면 봉무리 도장골 구석기시대 유적 전경



사진 246. 남사면 봉무리 농협창고 뒤 지층단면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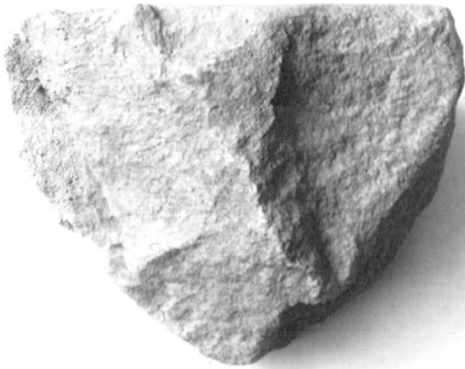


사진 247. 남사면 봉무리 도장골
구석기시대 유적 수습 몸돌



사진 248. 남사면 봉무리 도장골
구석기시대 유적 수습 몸돌



사진 249. 남사면 봉무리 도장골
구석기시대 유적 수습 몸돌



사진 250. 남사면 봉무리 도장골
구석기시대 유적 수습 찌개



사진 251. 남사면 봉무리 도장골 청동기시대 유적 전경



사진 252. 남사면 봉무리 도장골 구석기시대 유적 수습 반마제석부



사진 253. 남사면 봉무리 도장골 사지 전경



사진 254. 남사면 봉무리 도장골 사지 수습 초기청자 구연부편(①) 및 고려백자 구연부편(②)



사진 255. 남사면 봉무리 도장골 사지 수습 분청사기저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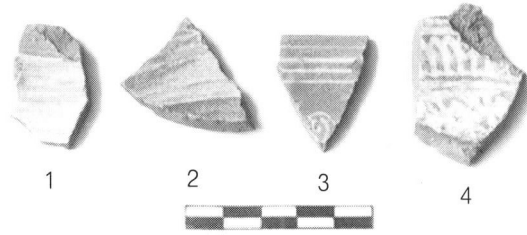


사진 256. 남사면 봉무리 도장골 사지 수습 분청사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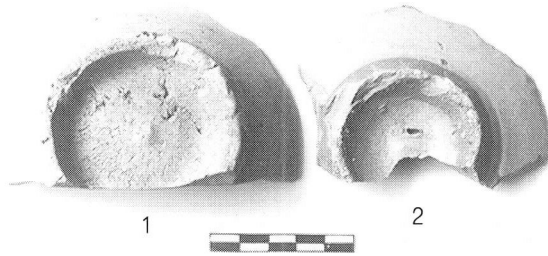


사진 257. 남사면 봉무리 도장골 사지 수습 백자저부편



사진 258. 남사면 봉무리 도장골 사지 수습 백자저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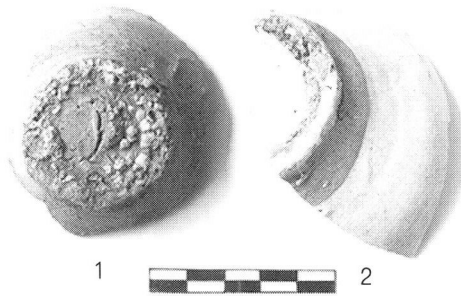


사진 259. 남사면 봉무리 도장골 사지 수습 백자저부편



사진 260. 남사면 봉무리 도장골 사지 수습 백자저부편



사진 261. 남사면 봉무리 도장골 사지 수습 파수 및 토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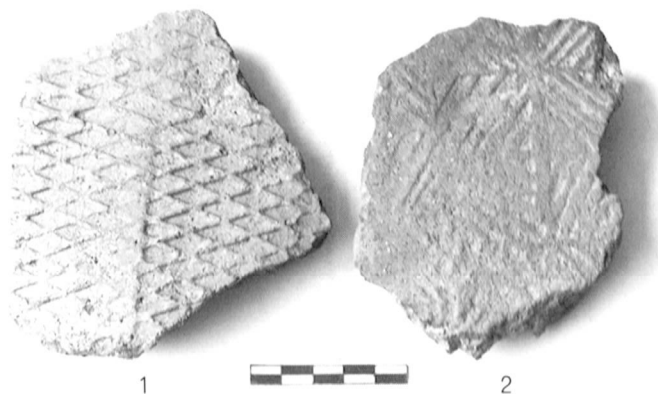


사진 262. 남사면 봉무리 도장골 사지 수습 기와편



사진 263. 남사면 봉무리 기와집말 자기산포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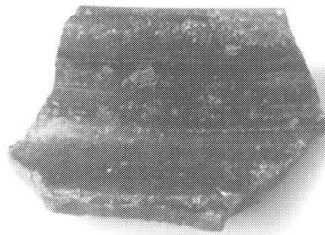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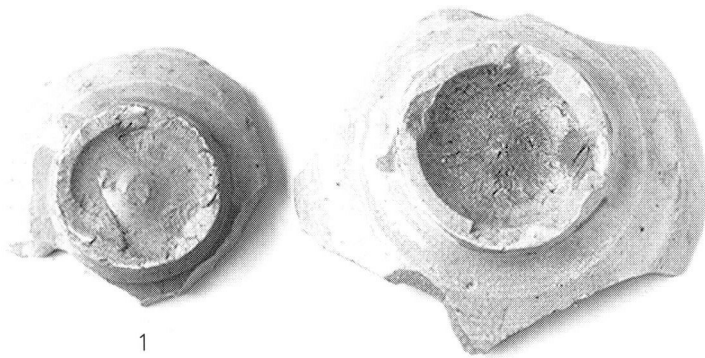


사진 264. 남사면 봉무리 기와집말 자기산포지 수습 초기분청사기 저부



1

2



사진 265. 남사면 봉무리 기와집말 자기산포지 백자저부



사진 266. 남사면 봉무리 기와집말 자기산포지 수습 백자저부



사진 267. 남사면 봉무리 기와집말 자기산포지 수습 백자저부



사진 268. 남사면 봉무리 기와집말 자기산포지 수습 백자저부



사진 269. 남사면 봉무리 농협창고 뒤 자기산포지 전경



사진 270. 남사면 봉무리 농협창고 뒤 자기산포지 수습 초기분청사기 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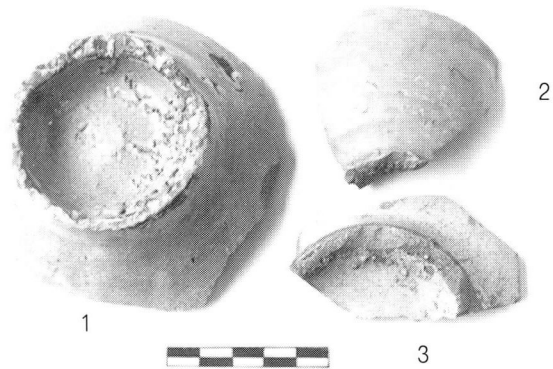


사진 271. 남사면 봉무리 농협창고 뒤 자기산포지 수습 백자



사진 272. 남사면 전궁리 통일신라시대 토기도요지 전경



사진 273. 남사면 전궁리 통일신라시대 토기도요지 수습 토기구연부편



사진 274. 남사면 전궁리 통일신라시대 토기도요지 수습 토기구연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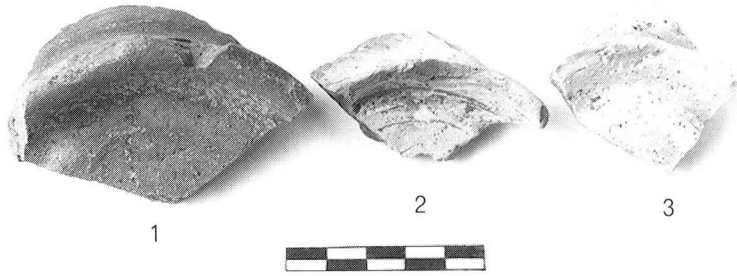


사진 275. 남사면 전궁리 통일신라시대 토기도요지 수습 토기저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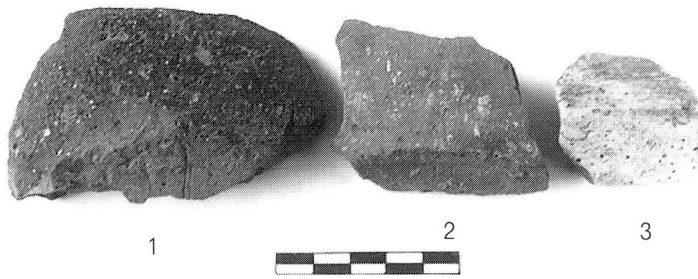


사진 276. 남사면 전궁리 통일신라시대 토기도요지 수습 토기편



사진 277 남사면 전궁리 통일신라시대 토기도요지 수습 토기편



사진 278. 남사면 전궁리 통일신라시대 토기도요지 수습 토기편 및 토기도지미



사진 279. 남사면 전궁리 통일신라시대 토기도요지 수습 소토덩어리



사진 280. 남사면 창3리 백자산포지 전경



사진 282. 남사면 창3리 백자산포지
수습 백자접시

사진 281. 남사면 창3리 백자산포지 수습 백자병



사진 283. 남사면 원암리 사기막골 백자도요지 원경



사진 284. 남사면 원암리 사기막골 백자도요지 근경



사진 285. 남사면 원암리 사기막골 백자도요지 수습 백자



사진 286. 남사면 원암리 사기막골 백자도요지 수습 백자



사진 287. 남사면 원암리 사기막골 백자도요지 수습 백자



사진 288. 남사면 원암리 사기막골 백자도요지 수습 백자



사진 289. 남사면 원암리 사기막골 백자도요지 수습 백자



사진 290. 남사면 원암리 사기막골 백자도요지 수습 백자



사진 291. 남사면 원암리 사기막골 백자도요지 수습 백자



사진 292. 남사면 원암리 사기막골 백자도요지 수습 백자



사진 293. 남사면 원암리 사기막골 백자도요지 수습 백자 구연부



사진 294. 남사면 원암리 사기막골 백자도요지 수습 백자저부



사진 295. 남사면 원암리 사기막골 백자도요지 수습 백자



사진 296. 남사면 원암리 사기막골 백자도요지 수습 철화백자 구연부



사진 297. 남사면 원암리 사기막골 백자도요지 수습 철화백자 구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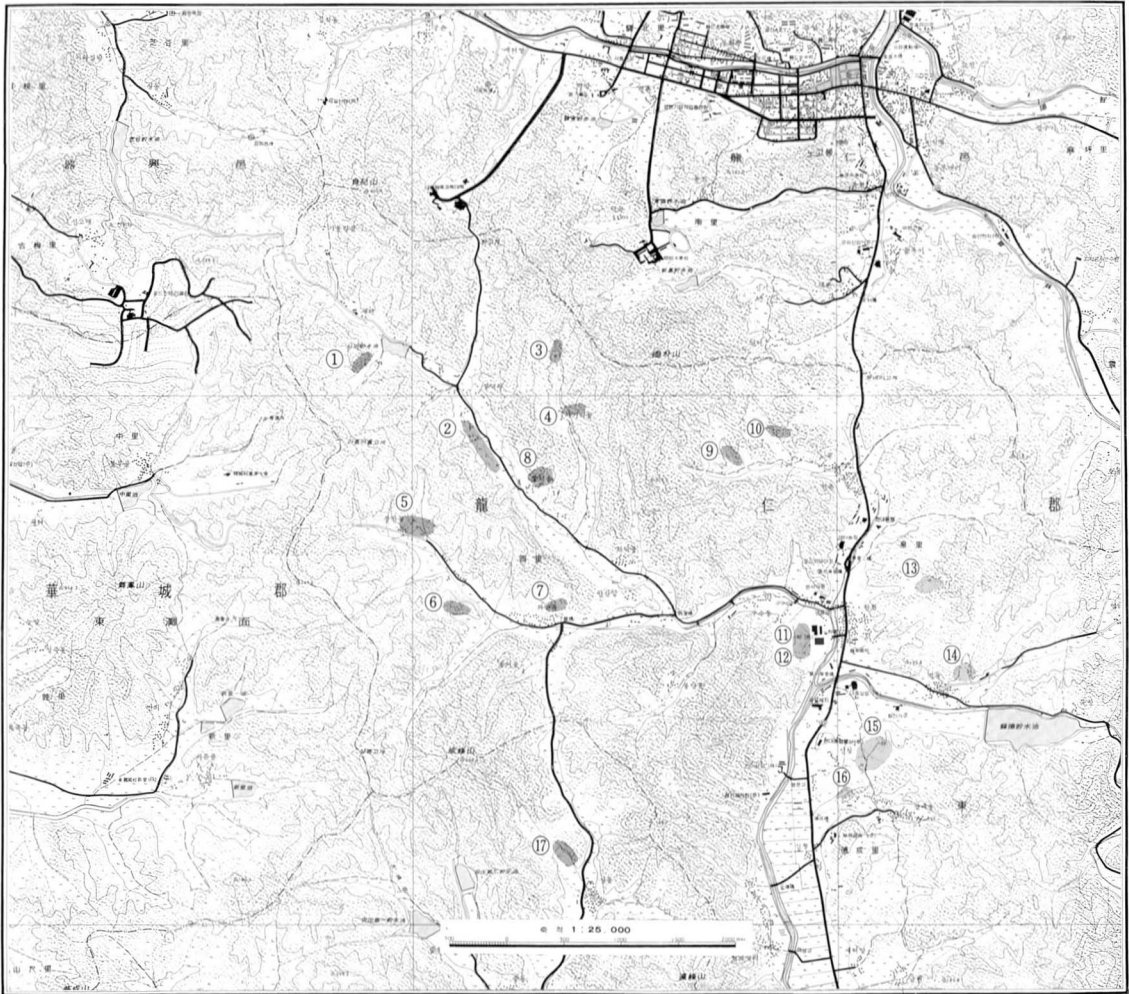
부록 1. 용인시 매장문화재 일람표

번호	위 치	성 격	시 대	비 고
1	모현면 신원리	지석묘	청동기시대	
2	모현면 신원리	건물지	조선시대	
3	모현면 매산리 중촌마을	자기산포지	조선시대	
4	모현면 일산리	자기산포지	조선시대	
5	모현면 갈담리 파담마을	산포지	구석기시대	
6	모현면 갈담리 갈월마을	산포지	구석기시대	
7	모현면 초부리 하초하마을	토기산포지	통일신라시대	
8	모현면 초부리 상초하마을	용기요지	조선시대	
9	모현면 초부리	지석묘	청동기시대	
10	모현면 왕산리	토기산포지	통일신라시대	
11	모현면 왕산리	지석묘	청동기시대	
12	포곡면 마성리 영골마을	자기산포지	조선시대	
13	포곡면 유운리	지석묘	청동기시대	
14	포곡면 유운리	선돌	청동기시대	
15	포곡면 유운리	산포지	청동기시대	일단병식석검
16	포곡면 전대리	산포지	청동기시대	마제석부
17	포곡면 마성리	고분	통일신라시대	동경, 정병, 등자, 대야
18	포곡면 금어리 어매실마을	토기산포지	삼국시대	
19	구성면 마북리	토기산포지	삼국시대	
20	구성면 상하리	백자산포지	조선시대	
21	구성면 보정리 연울부락	백자산포지	조선시대	
22	구성면 동백리	토기산포지	고려시대	
23	구성면 상하리	지석묘	청동기시대	
24	구성면 보정리 연울부락	석기산포지	청동기시대	
25	용인시 마북동	고분		
26	용인시 마북동	자기산포지	조선시대	
27	용인시 운학동	토기산포지	통일신라시대	
28	용인시 운학동	석실분		
29	용인시 마평리	적석총		
30	기흥읍 고매리	석기산포지	청동기시대	
31	기흥읍 서천리	지석묘	청동기시대	
32	원삼면 고담리	토기산포지	삼국시대	
33	원삼면 사암리	지석묘	청동기시대	
34	원삼면 사암리	입석군	청동기시대	
35	원삼면 사암리 모래실	토기산포지	통일신라시대	
36	원삼면 맹리	지석묘	청동기시대	

번호	위 치	성 격	시 대	비 고
37	원삼면 맹리 행군이	토기산포지	삼국시대	
38	원삼면 맹리 행군리	토성	삼국시대	
39	원삼면 목신리 신촌마을	석기산포지	구석기시대	
40	원삼면 좌항리	토기산포지	통일신라시대	
41	원삼면 좌항리	고분군	고려시대	
42	원삼면 태봉산	토성지	삼국시대	
43	원삼면 두창리	선돌군	청동기시대	
44	백암면 용천리	토기산포지	통일신라시대	
45	백암면 용천리	고려백자산포지	고려시대	
46	백암면 근창리 새터말	토기산포지	통일신라시대	
47	백암면 근삼리 영곡	토기산포지	통일신라시대	
48	백암면 백암리 쓰레산	건물지	조선시대	
49	백암면 석천리 황새울	석기산포지		
50	백암면 근삼리	지석묘	청동기시대	
51	백암면 고안리	분청사기도요지	조선시대	
52	양지면 대대리 무량	토기산포지	삼국시대	
53	양지면 대대리 사기점	백자요지	조선시대	
54	양지면 정수리	토기산포지	삼국시대	
55	양지면 정수리	석기산포지	청동기시대	석부
56	양지면 주북리	지석묘	청동기시대	
57	양지면 식금리	석실분	고려시대	
58	이동면 서리	상덕도요지	조선시대	
59	이동면 서리 사기막골	분청사기도요지	조선시대	
60	이동면 서리 사기막골	고려백자도요지	고려시대	
61	이동면 서3리	지기산포지	고려시대	
62	이동면 서리 상반곡	고려백자산포지	고려시대	
63	이동면 서리 하반곡	자기산포지	고려시대	
64	이동면 서리 하반 삼막골	토기산포지	조선시대	
65	이동면 서리 중덕골	고려백자도요지	고려시대	
66	이동면 하반곡	석실분	고려시대	
67	이동면 천리 구수동	석기산포지	구석기시대	
68	이동면 천리 구수동	자기산포지	조선시대	
69	이동면 천리	토기산포지	삼국시대	
70	이동면 노곡	백자도요지	조선시대	
71	이동면 덕성리	석기산포지	구석기시대	
72	이동면 덕성리	백자산포지	조선시대	

번호	위 치	성 격	시 대	비 고
73	이동면 목리 적동	토기산포지	통일신라시대	석부
74	이동면 목리 적동	백자도요지	조선시대	
75	남사면 완장리	자기산포지	조선시대	
76	남사면 아곡리	자기산포지	조선시대	
77	남사면 봉무리 도장골	석기산포지	구석기시대	
78	남사면 봉무리	석기산포지	청동기시대	
79	남사면 봉무리	사지	조선시대	
80	남사면 봉무리 기와집말	자기산포지	조선시대	
81	남사면 봉무리	자기산포지	조선시대	
82	남사면 전궁리	토기요지	통일신라시대	
83	남사면 창리	자기산포지	조선시대	
84	남사면 창리	선돌	청동기시대	
85	남사면 원암리 사기막골	자기산포지	조선시대	

부록 2. 용인시 매장문화재 위치도



〈지도 1〉

- | | |
|-----------------------|-------------------------|
| ① 이동면 서리 상덕도요지 | ② 이동면 서3리 자기산포지 |
| ③ 이동면 서리 사기막골 분청사기도요지 | ④ 이동면 서리 사기막골 고려백자도요지 |
| ⑤ 이동면 서리 상반곡 고려백자산포지 | ⑥ 이동면 서리 하반곡 자기산포지 |
| ⑦ 이동면 서리 하반 삼막골 토기산포지 | ⑧ 이동면 서리 고려백자도요지 |
| ⑨ 이동면 노곡 백자도요지 I | ⑩ 이동면 노곡 백자도요지 II |
| ⑪ 이동면 천리 구수동 석기산포지 | ⑫ 이동면 천리 구수동 자기산포지 |
| ⑬ 이동면 천리 토기산포지 | ⑭ 이동면 묵리 적동 토기산포지·백자도요지 |
| ⑮ 이동면 덕성리 석기산포지 | ⑯ 이동면 덕성리 백자산포지 |
| ⑰ 남사면 완장리 자기산포지 | |



〈지도 2〉

- | | |
|----------------------|----------------------|
| ① 남사면 아곡리 자기산포지 | ② 남사면 처인성지 |
| ③ 남사면 창리 자기산포지 | ④ 남사면 창리 선돌 |
| ⑤ 남사면 봉무리 도장골 사지 | ⑥ 남사면 봉무리 석기산포지 |
| ⑦ 남사면 봉무리 기와집말 자기산포지 | ⑧ 남사면 봉무리 자기산포지 |
| ⑨ 남사면 전궁리 토기요지 | ⑩ 남사면 원암리 사기막골 자기산포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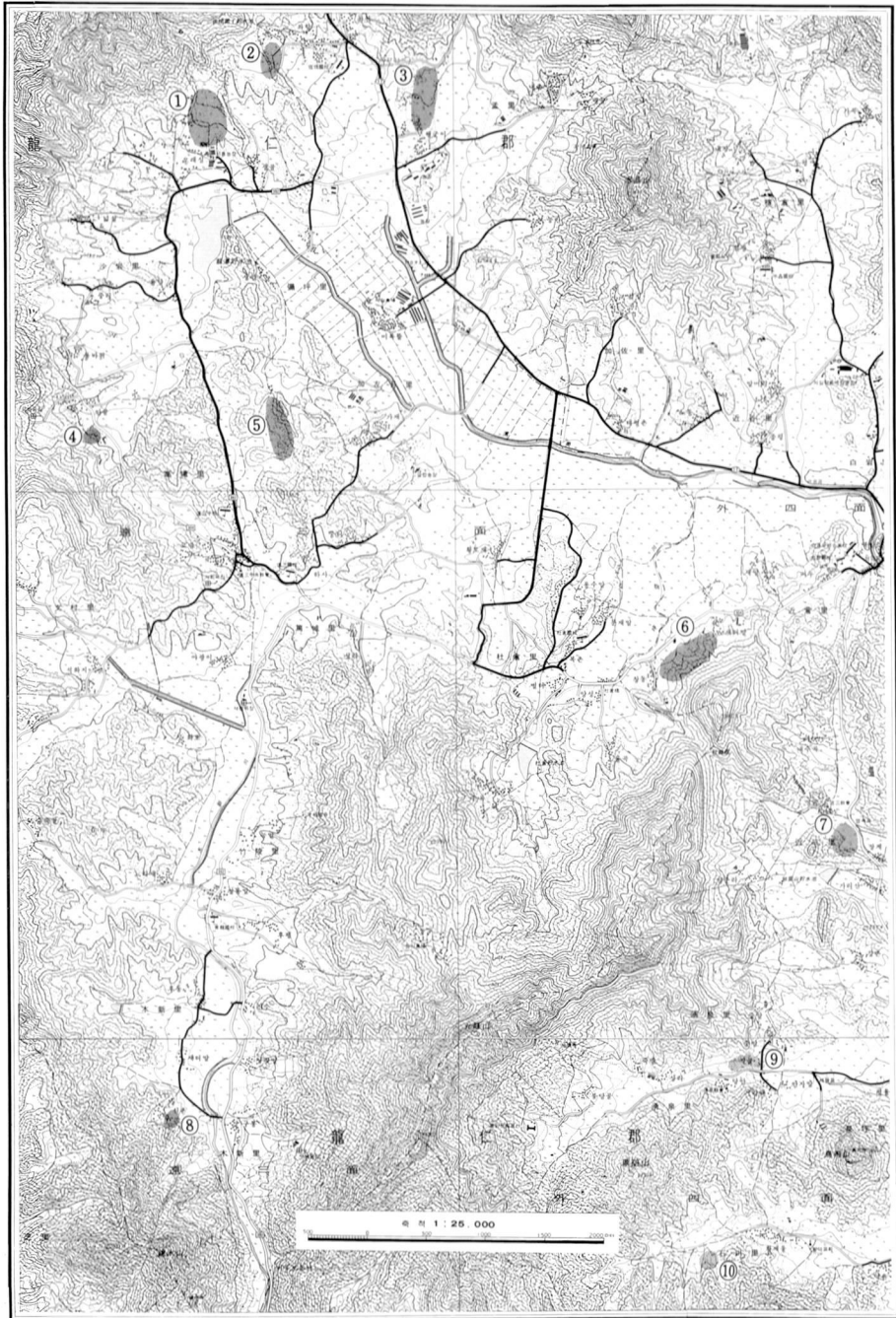
〈지도 3〉

- | | |
|----------------------|-----------------|
| ① 구성면 보정리 연울부락 백자산포지 | ② 구성면 마북리 토기산포지 |
| ③ 구성면 동백리 토기산포지 | ④ 구성면 상하리 지석묘 |
| ⑤ 구성면 상하리 백자산포지 | |



〈지도 4〉

- | | |
|-----------------------|----------------------|
| ① 모현면 일산리 자기산포지 | ② 모현면 왕산리 토기산포지 |
| ③ 모현면 매산리 중촌마을 자기산포지 | ④ 모현면 갈담리 갈월마을 산포지 |
| ⑤ 모현면 신원리 지석묘 | ⑥ 모현면 신원리 건물지 |
| ⑦ 모현면 갈담리 파담마을 산포지 | ⑧ 모현면 초부리 상초하마을 용기요지 |
| ⑨ 모현면 초부리 하초하마을 토기산포지 | ⑩ 포곡면 유운리 지석묘 |
| ⑪ 포곡면 전대리 산포지 | ⑫ 용인시 마북동 고분 |
| ⑬ 용인시 마북동 자기산포지 | ⑭ 양지면 정수리 토기산포지 |
| ⑮ 양지면 대대리 사기점 백자요지 | ⑯ 양지면 대대리 무량 토기산포지 |



〈지도 5〉

- | | |
|---------------------|----------------------|
| ① 원삼면 사암리 모래실 토기산포지 | ② 원삼면 좌향리 토기산포지 |
| ③ 원삼면 맹리 행군이 토기산포지 | ④ 원삼면 고담리 토기산포지 |
| ⑤ 원삼면 사암리 입석군 | ⑥ 원삼면 두창리 선돌군 |
| ⑦ 백암면 근삼리 영곡 토기산포지 | ⑧ 원삼면 목신리 신촌마을 석기산포지 |
| ⑨ 백암면 용천리 토기산포지 | ⑩ 백암면 석천리 황새울 석기산포지 |

龍仁市의 文化遺蹟

—용인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1996년 8월 20일 인쇄

1996년 8월 30일 발행

집필진 崔夢龍 · 李憲宗 · 吳世筵

편집 서울大學校博物館 · 龍仁市

발행

인쇄 보은길 ☎ 3474-2651

《非賣品》

Cultural Relics of Yong-in City

1996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Yong-in City